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구한말(舊韓末) 선교사들의 교육 · 의료활동



2008년 8월 일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歴史教育専攻

양 식 용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구한말(舊韓末) 선교사들의 교육 · 의료 활동

指導教授 : 조 세 현

이 논문을 敎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제출함.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歷史敎育專攻

양 식 용

양식용의 敎育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8년 8월 일

주 심 문 학 박 사 이 근 우 (인)

위 원 역사학박사 조 세 현 (인)

위 원 문 학 박 사 신 명 호 (인)



목 차

Abstract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방법 및 범위	2
II. 구한말 시대적 배경	5
III. 선교사들의 입국과 활동	14
1. 가톨릭 선교사들의 밀입국과 박해	14
2. 개신교 선교사들의 입국과 활동	28
3. 선교사들의 대한(對韓) 인식	43
가. 가톨릭 선교사의 대한(對韓) 인식	43
나. 개신교 선교사의 대한(對韓) 인식	48
IV. 선교정책에 따른 선교사들의 교육·의료활동	57
1. 가톨릭 선교사들의 교육·의료활동	57
가. 교육활동	57
나. 의료활동	70
다. 기타 사회활동	73
(1) 고아원 운영	73
(2) 한글 보급교육 및 언론정책	76
2. 개신교 선교사들의 교육·의료활동	79

가. 교육활동	79
나. 의료활동	90
다. 기타 사회활동	95
(1) 금주, 금연, 아편금지	95
(2) 미신타파	98
 V. 가톨릭과 개신교의 교육·의료사업 및 사회활동 비교	100
 VI. 결론	105
 참고문헌	109



표 목 차

《표1》 홍선대원군의 쇄국정책 때 처형당한 외국인 신부	22
《표2》 그리스도교 신자 증가 표 (단위: 명)	25
《표3》 朝鮮 가톨릭 敎勢 統計	27
《표4》 가톨릭계 學校 및 學生 數의 各 道別 累計(1894-1909年)	60
《표5》 宗派別 道別 學校 數(1910年 2月)	66
《표6》 舊韓末 가톨릭계 學校	67
《표7》 배재학당 학과목별 시간 수	82
《표8》 舊韓末 개신교계 學校	86
《표9》 1896년 新教育機關 現況	88

The Educational and Medical Activities of the Missionaries in the End of the Period Guhanmal

by Yang Sik Yong

*Major of History Education
Graduate School for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Abstract

Guhanmal(舊韓末) was the period of the modernization that Chosun(朝鮮) had escaped from the traditional society and for the aspect of the educational history, it was a time of transition which escaped from the old education and introduced the new education. Considering this special historical situation, this thesis takes notice of the aspect of how the education of missionaries from Catholic and Protestant Churches, which foreign religions are, affected the formation of the national consciousness.

The point of this thesis is to identify the following : first, the background how the people accept the Christianity, second, the concrete nation education which the Christianity developed, third, the Christianity's contribution to the Korean society, to arouse the national consciousness for people and achieve the goal through the medical and educational activities.

The missionaries developed the following educational work in the Chosun society.

First, the missionaries introduced the western educational system and played

the roll of the frontier who imports modern sciences. Second, by educating the children of the noble or common people without discrimination, they broke the class consciousness and established the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Third, they conducted the education for the whole man as sports, speech meeting, forum etc. and the education aimed at the social service. Fourth, they published the newspaper and journals in Korean to awake the importance of the Korean language.

The medical works which developed by the missionaries contributed to the social reform as following.

First, by curing the people from king Kojong(高宗) to the people of the lower classes, they helped eliminate the estrangement between classes. And through the medical activities, they showed the humanity of the missionaries to Korean people. Second, the people were thankful that they overcame their physical suffering, and the missionaries could preach the gospel with this chance.

Third, on the basis of their puritanic faith and conscience they forbade drinking, smoking and opium and it helped the civilization of the Korean people.

As above, the Christianity affected the whole Chosun society with the equality of the sexes and extension of the women's rights, the abolition of class distinctions, breaking the conventionalities, medical works and school education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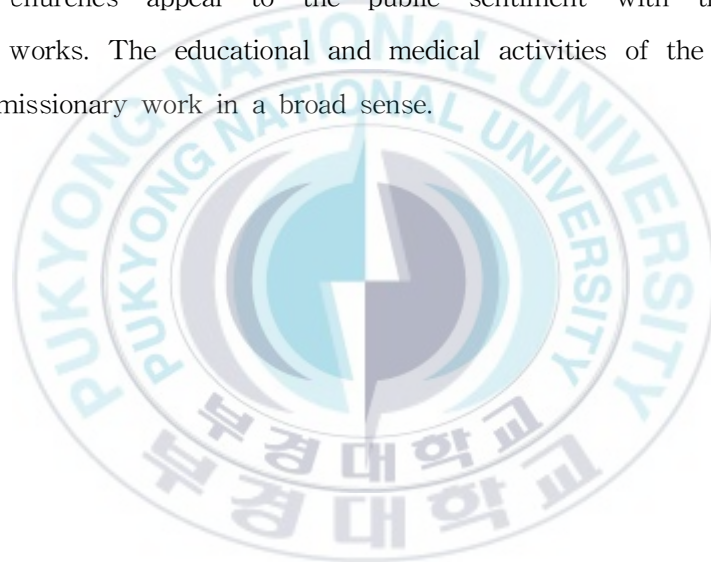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missionary works between Catholic and Protestant missionaries.

First, while the Catholic missionaries directly preach the gospel, did the Protestant missionaries indirectly by establishing hospital and school. Second, while the Catholic missionaries conveyed their doctrines through the words, the Protestant missionaries translated the bible and preached the gospel.

Third, while the Catholic missionaries were more involved in the politics, the Protestant missionaries weren't.

Fourth, while the Catholic missionaries illegally entered in Chosun, the Protestant missionaries entered carefully after the official opening of the country. Fifth, while the Catholic missionaries lived with the believers, the Protestant missionaries demonstrated the welfare to the people, to show them their comfort and luxury life.

Generally speaking, while the Catholic churches directly preach the gospel, the Protestant churches appeal to the public sentiment with their indirect missionary works. The educational and medical activities of the missionaries would be the missionary work in a broad sense.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조선은 1876년 일본에 문호를 개방할 때까지 서양 각국의 개국 요청과 압력을 거부하고 쇄국정책(鎖國政策)을 견지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은 정치적으로는 중국과 사대관계(事大關係)를 유지하면서 중국 이외의 서양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피하는 자세를 유지하였다.¹⁾ 그러나 시대의 대세는 조선이 언제나 은둔(隱遁)의 나라로만 머물게 허용하지 않았다. 조선사회는 통상과 개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감에 따라 개화를 위한 조건이 국내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강경한 쇄국주의자 대원군이 고종 10년(1873년)에 정권에서 물러난 것과 맞물려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²⁾ 국내외적인 역학관계에 변화는 조선 왕실이 서구문명을 내포한 가톨릭과 개신교를 받아들이면서 조선으로 하여금 오랜 쇄국정책에서 벗어나 국제사회로 나아가는 기회를 맞이하였다.

가톨릭이 이 땅에 전파된 시점은 이승훈이 이벽에게 세례를 집전하면서 신앙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던 1784년³⁾을 잡고 있고, 개신교는 의료선교사 알렌이 입국하던 1884년⁴⁾을 전파된 시점으로 잡고 있다.

가톨릭이 처음 전파되던 시기의 조선사회는 전통적인 유교사상에 기반을

1) 동덕모, 『朝鮮朝의 國際關係』, (서울: 박영사, 1990), p.78.

2) 李基白, 『韓國史新論』, (서울: 일조각, 1999), p.318.

3) 한국사목연구소, 『국사』, (서울: 한국 천주교중앙협의회, 1991), p.22.

4)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92), p.150.

둔 사회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수많은 迫害을 받았으나, 반면에 가톨릭보다 100년이나 늦게 전파된 개신교는 거의 박해가 종식되던 시기이므로 비교적 쉽게 이 땅에 전파되었다.

그런데 구한말 조선 왕실이 만난 가톨릭과 개신교는 초기의 수용 때와는 달리 그 모습이 서구 제국주의 침략의 앞잡이로서가 아니라 조선의 백성들을 개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갔기 때문에 왕실의 총애를 받을 수 있었다. 일부 상류층 인사들은 富國強兵에 도움이 되는 종교라 생각하여 서양종교에 입교하였다. 이상재(李商在, 1850~1927)가 “나라를 구원하려는 길을 찾아 보려는 생각에서 개신교에 믿음을 갖게 되었다.”⁵⁾ 는 회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한말 조선사회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위기에 직면한 나라를 구하는데 힘이 되어 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본 논문은 가톨릭 선교사와 개신교 선교사들이 입국하여 백성들에게 선교활동 과정에서 보여준 교육·의료활동과 사회봉사활동을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 삼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요점은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이 교육과 의료활동에 의하여 민중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하고 발휘하는데 영향을 미친 사실들을 규명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조선 백성이 그리스도교를 수용하게 된 배경, 둘째 그리스도교가 전개한 구체적인 民族教育과·의료활동·사회봉사, 셋째 그리스도교가 조선사회에 남긴 공헌 등에 관하여 밝혀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이 논문은 문헌 연구방법을 사용할 것이며, 1차 자료로는 구한말 개화사상에 관한 내용과 선교사들의 교육·의료활동에 관한 내용을 주로 이용할

5) 이관구, 「월남 선생의 정치 구국 활동」, 『나라사랑 9집』, (서울: 외솔회, 1972), p.36.

것이다. 여기서 구한말이라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개화세력이 본격적으로 대두 되고 열강의 침략이 시작되던 고종 1873년에서 1905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필자의 연구에 도움을 준 기존 연구로는 배효식의 「구한말(舊韓末)가톨릭과 개신교 선교사들의 비교연구」와 金顯洙의 「구한말 미 선교사 활동의 정치적 의미」 그리고 심홍보의 「한국천주교 사회복지사 연구」 등이 있다. 이런 논문들을 통하여 구한말 선교사들의 교육·의료활동과 복지활동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 밖에도 李奎元의 『開化期 韓國基督教 民族教育의 研究』와 백낙준의 『韓國改新敎史』 및 柳洪烈의 『韓國天主敎會史』 등과 같은 저서들도 도움이 되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염두에 두면서 본 연구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서양 종교가 개화기에 전개한 교육·의료활동이 조선 백성들에게 민족의식의 형성과 고취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두고 고찰할 것이다.

필자는 제Ⅱ장에서 19세기말 조선이 사회·정치·종교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아보고, 서양 종교인 가톨릭과 개신교에 대해서 조선 백성들이 수용해가는 과정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제Ⅲ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가톨릭 선교사의 밀입국과 박해 부분은 가톨릭이 개신교보다 100년 전에 이 땅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가톨릭이 전래되는 17세기 초까지 거슬러 올라가 언급하고자 한다.

둘째, 구한말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이 조선에 입국하여 활동할 당시는 어떠한지 그 자취를 더듬어 보고, 초기 선교사들의 성향이 어떠한지를 다룬다.

셋째, 구한말은 전통체제가 근대체제로 전환하는 중요한 분기점이었는데, 이때 가톨릭과 개신교 선교사들의 대한(對韓)인식을 살펴본다. 동시에 구한

말에 조선 백성들은 가톨릭과 개신교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도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선교사들이 개화기 조선 백성들에게 행한 많은 사회봉사활동 중에서 교육·의료활동, 고아원 사업, 사회복지 사업 등을 살펴본다. 예를 들어, 가톨릭의 활발한 교육활동 기사를 담고 있는 「경향신문」, 「뤼텔 주교의 일기」, 「한국가톨릭대사전」 등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여기서 선교사들이 민족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근대 학교를 설립하여 신식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제Ⅴ장에서는 가톨릭과 개신교 선교사들이 펼쳤던 여러 활동과 그리스도교가 조선에 들어오는 과정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고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 부분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동시에 가톨릭 선교사와 개신교 선교사들의 선교 방법의 차이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덧붙이자면, 그리스도교는 보통 가톨릭(Catholic)과 개신교(Protestant)로 구별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신앙의 대상으로서 예수를 믿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라는 의미로 함께 사용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가톨릭이나 개신교가 각각의 독특한 내용을 가지고 전개되는 활동에 대해서는 나누어 표현하였다. 그리고 천주교를 가톨릭으로, 기독교를 개신교로 용어를 통일해 사용하였다. 본고의 시대 범위는 19세기 말 “대한제국” 시기도 포괄하지만 편의상 “조선”이라는 용어로 통일해 사용했다. 그 서술 범위는 대체로 1866년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가지고 제너럴셔먼호(General Sherman)를 타고 조선에 들어오고자 했던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1910년 일제의 침탈에 의해 조선왕조가 멸망할 때까지로 설정하였다.

II. 구한말 시대적 배경

19세기 말 조선사회는 세도정치로 사회기강이 문란해지고 농촌의 피폐·빈궁으로 계속적인 민란이 발생하였다. 기존의 社會秩序를 거부하며 계급과 계층의 해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⁶⁾ 게다가 이 시기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상품시장을 넓이기 위한 식민지 확보를 추구하는 때였다.⁷⁾ 경제적 이권을 얻으려고 하는 서구 제국주의 세력에 맞서 민족 自主獨立 國家를 형성해야 하는 시대적 명제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韓半島를 위협하는 외세의 침략에 대항하기에는 조선왕실의 힘은 너무나도 허약하기만 하였다.⁸⁾ 실로 구한말은 정치적 혼란기로 열강 세력의 각축장이었다.⁹⁾

특히 영·불은 인도로 점진, 거기서 다시 동북 방향으로 북상하여 중국을 거쳐 한반도에 접근하고 있었고, 미국은 서진하여 1854년에 일본의 문호를 개방시켰고, 다시 조선에 접근하였다. 이러한 서구 帝國主義 세력 팽창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대원군은 鎖國政策을 강력히 집행하였다. 하지만 朝鮮王室로서도 세계의 시운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 1876년 門戶를 開放했다. 청나라 정부조차 개국을 찬성하게 되었다.¹⁰⁾ 그러나 문호개방으로 인한 新文明의 유입은 일본을 위시한 열강의 침략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개화와 자주화 양자를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6) 이만열, 『한말 기독교와 민족운동』, (서울: 평민사, 1980), p.62.

7) 손규태, 『한국 민족교회사 서술의 문제』, (신학사상사, 1987), 제59집, p.182.

8) 김진섭, 「초기 기독교인의 주체적 복음 수용과 신앙형성」, (감리교신학대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2), p.3.

9) 이종성, 「한국 재래 종교의 기복사상이 교회에 끼친 영향」, (서울신학대학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p.71.

10) 崔南善, 『朝鮮歷史』, (서울: 東明社, 1946), p.95.

커다란 歴史的 시련이 조선 백성에게 안겨졌다.

개화의 시대적 구분은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나, 좁게는 1884년에서 1894년까지 약 10년으로 보는 견해와 넓게는 개항(1876)으로부터 국권을 상실 당하는 시기(1905)¹¹⁾까지로 보는 견해가 있다. 대체로 “1800년대 후반부터 1910년대에 이르는 4,50년간을 개화기라고 하는 역사 단계로 설정하는 것에는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¹²⁾ 것이 통설이다. 구한말에 개화사상은 朝鮮社會를 지배하였고, 그 사상의 내용을 보면 3단계로 변천하여 발전하였다. 첫째, 1870년대 “開化”는 “開國”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었고, 해외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개화사상으로 간주되었다. 둘째, 1880년대의 개화는 소위 외국 기술을 받아들여 나라의 부강을 이룩해 보겠다는 사상이다. 셋째, 1890년대와 1900년대의 개화 사상가들은 국가의 獨立과 국민의 權利를 주장하였다.¹³⁾ 1884년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김옥균, 박영훈, 서광범, 홍영식, 서재필 등이 중심이 된 개화파들은 일본이 서양에 대하여 완전 개방한 결과 빠른 시일 내에 강력한 近代國家를 세운 것이라고 보아 개방과 그리스도교 수용을 역설했다. 실제로 박영훈은 1884년 12월의 甲申政變이 실패로 돌아가자 일본으로 망명하여 고종에게 올린 상소문에서 국력과 종교와의 관계를 비교하였다. 그는 오늘날 가톨릭과 개신교가 왕성한 구미 각국은 나라가 강하고 왕성 한 데 반해, 우리 조선과 유교는 현재 둘 다 쇠퇴하여 이 때문에 침략을 당하므로 한심하고 탄식할 따름이라 하였다.¹⁴⁾ 또한 박영훈은 교육과 그리스도교를 통해 立憲政府를 수립하여 자유롭고 개화된 근대적 민족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서재필, 윤치호, 유대치, 이동인, 강위 등 개화파 인물

11) 趙芝勳, 「開化思想의 모티브와 그 本質」, 『韓國思想講座』, (서울: 韓國思想研究所, 1963), p.9.

12) 李炫熙, 『韓國開化100年史』, (서울: 乙酉文化史, 1976), p.11.

13) 李光麟, 『韓國開化史研究』, (서울: 一潮閣, 1969), p.22.

14) 송길섭, 『韓國神學思想史』, (서울: 大韓基督教思想史, 1987), p.18.

들은 양반관료 국가를 무너뜨리고 국민 국가를 세워 보려는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상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호를 개방하여 서양문화를 수입할 것을 주장했다.¹⁵⁾ 그러나 급진 개화 노선은 일반 지식인들의 동의나 국민적 공감대 없이 성급하게 추진한 방법론상의 문제성이 있었다.¹⁶⁾ 개화파 중에서도 자주적 개화를 주장한 인사들은 언론활동, 학교교육 등의 憂國的인 민족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⁷⁾ 개화정책이 청·일 양국의 제도를 모방한 시책이었으므로 양국은 자기 세력의 부식(扶植)을 위해 서로의 대립은 불가피한 현상이었다. 그 결과는 壬午軍亂과 甲申政變으로 이어졌다. 안으로는 近代化의 진통과 밖으로는 國權守護의 몸부림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1876년의 朝·日修好條約 체결로 개항을 단행하게 된 중요한 시점을 전후하여 당시의 조선사회는 다음과 같은 정치단체와 사상이 있었다. 당시 개항을 둘러싸고 크게 두 세력이 경합하였다. 하나는 전통적 국책인 쇄국을 주장한 위정척사파(偉正斥邪派)이고, 다른 하나는 개국을 외치며 나라의 부국강병(富國強兵)을 꾀하였던 개화파(改化派)였다. 그런데 이 개화파는 그 개화의 방법론의 차이 때문에 다시 둘로 갈라지며, 온건한 개화 방식을 주장하는 집단을 온건 개화파 또는 동도서기파(東道西器派)라고 하고 다른 한편은 일본과 같은 급진적 개화를 시도하려는 급진 개화파(急進改化派) 또는 개화당으로 분류되었다.¹⁸⁾ 이렇게 국내 여론은 수구(守舊)와 개국(開國)이라는 의견으로 대립 분열되었다. 그런데 1880년 제2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던 김홍집(金弘集)이 일본에서 가져온 황중헌의 『조선책략』(朝鮮策略)을 조정에서 전국 유생들에게 복사 배포한 왕실과 정부 관료들

15) 이광린, 『前揭書』, p.221.

16) 정옥자, 『조선후기 역사의 이해』, (서울: 일지사, 1993), p.219.

17) 閔丙秀外 2人, 『開化期 憂國文學 - 韓國文學과 民族意識(Ⅱ)』, (서울: 新丘文化史, 1974), p.10.

18) 송길섭, 『前揭書』, pp.13~14.

의 태도로 보아서 이들이 벌써 개화의 필요성을 느꼈음을 암시해 주는 대목이다. 이 책은 조선이 취할 태도를 조언한 것으로 “조선이 친중국(親中國), 결일본(結日本), 연미국(聯美國)의 외교정책을 써서 부국강병을 도모해야 하며, 구미 제국과 개국 통상하여 조선의 이익을 구해야 하고, 서양의 학문과 기술을 습득해서 중국과 일본에 유학생을 파견하고, 서양 교수를 초빙하며, 국토 개발과 산업, 그리고 무역을 진흥시켜 富國強兵策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었다.”¹⁹⁾ 이 『朝鮮策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서구 그리스도교의 선교를 허락해야 한다는 내용과, 특히 가톨릭을 천주교로 개신교를 야소교로 표현했다는 점이다. 그리스도교에 대한 수용 여부를 놓고 전통사상을 고수하려는 위정척사파와 서양 문물만을 받아들이자는 온건파, 그리고 그리스도교까지 받아들이자는 급진 개화파로 국내 여론은 분열상태를 보이게 되었다.²⁰⁾

조선왕조는 어려움에 직면한 국정을 유지하고자 주자학의 정통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왕조 질서를 위협하는 가톨릭을 사학(邪學)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정학(正學) 즉, 주자학을 지키고 가톨릭을 배제한다는 위정척사 사상이 형성되었다.²¹⁾ 비록 이들의 사상은 대단히 보수적이었으나,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경고하고, 또 主體意識을 고취하였기 때문에 넓은 지지세력을 획득하였다.²²⁾ 위정척사 사상은 후일 항일의병운동의 지도이념으로 계승되었고, 민족주의 사상으로 전화되었다. 이와 같은 척화론에 나타난 긍정적인 民族意識은 바로 을미사변 이후의 의병항쟁에서 보다 체계적인 형

19) 한우근, 『개항 당시의 위기의식과 개국사상』, (한국사 논문선집Ⅵ), (서울: 일조각, 1982), pp.26~27.

20) 배효식, 「구한말 가톨릭과 개신교 선교사들의 선교정책 비교 연구」, (수원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pp.16~17.

21) 홍순창, 『한말의 민족사상』, (서울: 탐구당, 1975), p.58.

22) 송길섭, 『일제하 감리교회 삼대성좌』, (서울: 성광문화사, 1972), p.74.

태로 계승되어 갔다.²³⁾

1894년 청·일전쟁과 1905년 노·일전쟁은 강대국들이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서 벌인 전쟁으로 조선은 이들 나라의 전쟁터를 제공하는 꼴이 되어 버렸고, 이 소용돌이 속에서 백성들은 의지할 곳 없이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때 백성들은 새로운 종교인 그리스도교를 만나게 되었다. 백성들은 치외법권(治外法權)을 누리는 선교사에게 의지하기 위하여 교회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인지 『大韓每日申報』는 백성들이 교회로 나가 그들의 몸과 마음을 의지하려고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일제는 선교사들이 조선 백성들을 보호 해주는 것에 대하여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²⁴⁾ 경계의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조선의 국력이 어느 정도 쇠약한 상태인가를 짐작하게 하고, 억울한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외국인 선교사가 이 일을 대신했다는 것은 조선왕조의 종말이 가까워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조·미수호통상조약은 중국과 일본 이외에 조선이 다른 나라와 맺은 최초의 근대적인 외교조약이었다. 고종은 특히 조약 제1조에 명문화된 ‘거중조정’에 큰 기대를 걸었다. 왜냐하면 외세의 침략으로 조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미국이 이 조항에 근거해서 구제해 줄 것을 강하게 믿었기 때문이다. 고종을 위시한 조정에서는 미국을 다른 서구 열강과는 달리 조선의 진정한 친구라고 여기는 환상 같은 것이 형성되어 있었다. 고종이 미국 의회에서 조·미조약이 비준되고 초대 미국 공사가 조선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 춤을 추었을 정도였다. 이러한 환상은 몇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첫째, 조·미조약 체결 과정에서 미국이 청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23) 윤병석, 『근대 한국 민족운동의 사조』, (집문당, 1996), p.25.

24) 宋吉燮, 『韓國神學思想史』, p.79.

조선의 자주 독립권을 명문화하였고, 주미조선공사관을 워싱턴에 설치하면서 청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주 외교를 실현하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고종과 관료 대신들은 미국이 다른 서구 열강들과 달리 땅을 빼앗는 경향이 없으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고 백성들의 품성이 관후(寬厚)하고 순실(純實)하다고 믿었다.

둘째, 조선에 와서 선교활동을 펼치던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이었다. 순전히 이타적(利他的)인 목적으로 병원과 학교, 고아원을 세우고 조선인들을 돕는 선교사들의 모습이 조선인들에게 마치 미국의 실제 모습 인양 비쳐진 것이다. 특히 민비 시해 사건 후 고종이 신변의 위협을 극도로 느낄 때 고종을 바로 옆에서 경호하고 안심시켜 준 사람들이 미국 선교사들이었으므로 마치 미국이 정말로 도와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조약 체결 당시에 기대했던 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되자 조선을 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외교관들과 선교사들은 국적을 초월하여 조선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였다.

서울에서 을사보호조약이 굴욕적으로 체결되던 1905년 11월 15일, 헐버트(H. B. Hulbert)는 고종의 밀사로 미국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갔지만 거절당하였다. 고종이 보낸 친서의 일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882년 조·미수호조약 이후 두 나라 관계는 아주 친밀하였습니다. 나와 국민은 귀국 선교사들의 친절함과 동정 어린 관심에 더욱 감사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나와 국민들에게 보여준 귀 정부의 선교사들의 친절을 통해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에 외교적 도움을 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귀국과 강력한 우호관계를 다시 다지기를 원합니다.”²⁵⁾

25) 민경배, 『한국 민족교회 형성사론』, (연세대학교출판부, 1974), pp.11~12.

조·미수호통상조약 제1조에 “미합중국 대통령과 대조선 국왕은 그들의 臣民과 더불어 평화와 우호가 계속될 것을 기약하며, 만약 제삼국이 조선과 미국의 어느 한쪽 정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또는 억압적으로 행동할 때에는 다른 한 정부는 사건의 통지를 받은 즉시 이의 원만한 타결을 가져오도록 주선을 다함으로써 그 우의를 보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미국 정부는 멸망해가는 대한제국의 운명을 건지기 위하여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헐버트는 조선을 소개하며, 일본의 악의를 폭로한 자신의 저서에서 미국이 조선을 배반 했다고 표현하며 미국의 대한(對韓) 정책에 분노하였다. 헐버트는 미국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 미국 국민은 비난을 받아야 한다. 조선 국민은 1905년의 우리 행동에 대하여 배신자라고 생각할 것이다. 조선 정부와 관계를 갖은 지난 기간 동안 미국은 조선 국민에게 미국 깃발의 정의를 위해 휘날릴 것이라고 ... 그러나 우리(미국 정부)가 국제 문제와 얽히면서 정의란 단어가 무색하게 조선 국민을 먼저 버렸다. 심지어 안녕이란 말 한마디조차 없이.” 26)

미국 정부는 러·일전쟁(1904)의 촉발 요인이던 용암포 사건 후에 일본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는데, 막상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기울어지자 미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견제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그런 견제의 움직임이 바로 테프트-가쓰라 밀약(The Taft-Katsura Agreement, 1905, 7, 29)²⁷⁾이

26) H. B. Hulbert, The passing of Korea (London & New York William Heinemann 1906 : Seoul : reprinted by Yonsei University Press, 1969), pp.222~223.

27) ① 일본의 한국에 대한 종주권(Suzerainty)을 인정한다.

② 극동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미, 영, 일 3국은 실질적인 동맹관계에 있어야 한다.

③ 일본은 필리핀에 대해 침략적 의도가 없고, 미국의 지배를 확인 한다.

다. 이 협정에서 미국은 필리핀의 안전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일본에게 對韓自由行動權을 공식적으로 보장하였다. 미국은 일본과 밀약을 맺고 한반도에 대한 중주권을 일본에게 인정한다는 ‘불개입정책’에서 ‘조선포기정책’으로 외교의 기조가 바뀌면서 조선의 운명을 일본에 넘겨주었다. 또한 영국은 제2차 영·일동맹을 체결하여 일본의 조선에 대한 권리를 승인했고, 영국은 그 대신 인도에 대한 지배권을 확인하였다. 영·미·일은 아시아에 있어서 식민지 정책에 서로合一하였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남진정책을 공동으로 저지하였다. 그래서 영·미 양국은 일본을 적극 후원한 끝에 러·일전쟁은 미국대통령 Roosevelt의 중간 알선에 의하여 1905년 7월에 맺어진 포오츠머스조약에 의하여 일본의 승리로 끝났다. 여기서 일본은 조선에 있어서의 정치·군사·경제를 러시아로부터 인정받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조선의 주권을 강탈하는 을사조약을 조인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미국 외교관과 선교사들은 미국의 대한(對韓)정책에 반대하였다. 1903년 알렌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와 격렬한 논쟁을 벌였으나, 그의 친일 정책을 돌려놓는데 실패하고 본국으로 소환되었다.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됨과 더불어 입국한 헬버어트는 비록 선교사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당시 미국 외교관으로서 조선을 위해서 애쓴 흔적을 살펴보면 아쉬움은 더욱 절실해 진다.

오늘날 한미관계가 “혈맹의 우방”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대하여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뿌린 긍정적인 측면은 역사적으로 그 예가 그리 흔치도 않다. 하지만 지난날의 공과마저도 묻어 버리거나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지난날의 과오가 묻혀 버리는 것은 아니며, 또 지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지난날의 서글웠던 사실들을 묻어 버리려는 것만이 옳은 자세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긴 역사의 안목에서 지난날을 더듬어 보는 것은 우리에게 값진 교훈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Ⅲ. 선교사들의 입국과 활동

1. 가톨릭 선교사들의 밀입국과 박해

조선 가톨릭 역사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외국인 선교사 입국 전에 자생적으로 가톨릭을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17세기 초에 가톨릭이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종교로서가 아니라 서학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사상 곧 학문적 대상으로서였다.

동양에 가톨릭을 처음 전파한 성직자들은 인류애의 사상과 개척정신에 불타고 있던 예수회 신부들이었다. 조선에 가톨릭이 처음 전해진 것은 명나라 사신이었던 이수광(1563-1628)이 중국에서 선교하던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1552-1610)신부의 『천주실의(天主實義)』, 『중우론(重友論)』 등을 그의 저서 『지봉유설(芝峰類說)』에 소개한 데서 비롯됐다. 한편, 이수광과 같은 시대의 허균(許筠)도 베이징[北京]에서 가톨릭의 12가지 기도문인 《십이단(十二端)》을 가지고 귀국하였는데, 그는 조선 최초의 가톨릭 신자였다.

1636년 말 중국의 청태종은 조선을 침공한 후 인조의 아들인 소현세자와 왕자 봉림대군을 볼모로 잡아갔다. 그들은 8년간 북경에 머무르며, 예수회 신부인 아담 샬(Johann Adam Shall 1592-1666)을 만나 친교를 맺으면서 가톨릭을 접하게 되었다. 1645년 조선에 도착한 소현세자는 학질에 걸려 죽게 되어 결국 가톨릭 전파의 역할과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 버렸다.²⁸⁾

28) 최수일, 『기독교 선교 역사』,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2003), p.173.

조선에 가톨릭이 수용된 이후 발전과정을 몇 단계로 구분한다면 첫째 단계는, 이승훈이 귀국하여 전도활동을 시작한 1784년부터 진산사건이 발생하였던 1791년까지는 가톨릭의 潛入期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교리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이벽, 이승훈, 권일신 등이 가톨릭을 전교(傳敎)하면서 교단을 조직·운영함으로써 조선 가톨릭의 기반을 다져놓았다. 둘째 단계는, 진산사건이 발생한 1791년부터 주문모 신부가 입국한 1794년까지는 가톨릭의 태동기였다고 볼 수 있다. 진산사건의 발발로 가톨릭 지도급 인사들의 활동이 중단되고 양반계급의 상당수는 교회를 이탈했다. 셋째 단계는, 주문모 신부가 입국하여 포교활동을 시작한 1795년부터 辛酉獄事가 일어난 1800년까지는 가톨릭의 발전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주문모 신부를 정점으로 명도회를 조직하여 교리를 연구하고 정약중을 중심으로 『유교요지』, 『聖敎全書』 등을 펴내 기존의 天主教理를 보완하고 전파시켰다.

성호학파(星湖學派)안에는 신후담(愼後聃), 안정복(安鼎福)과 같이 가톨릭을 비판하는 계열도 있었지만, 또한 이벽(李穡), 권철신(權哲身) 등과 같이 가톨릭을 적극 신봉하려는 계열들이 있었다. 때마침 1783년 이승훈은 조선 정부로부터 중국에 동지사(冬至使)로 임명된 그의 부친을 따라 북경으로 가게 되었다. 이승훈은 이벽보다 두 살 아래였으나, 이들은 절친한 친구 사이로 함께 서학 연구에 열중하고 있었다. 이벽은 이승훈이 북경사절단 일행에 끼게 된 것을 기뻐하며 찾아가 다음과 같이 부탁했다.

“자네가 북경에 가게 된 것은 천주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코자 하는 표적일세. 북경에 가거든 즉시 천주당을 찾아가서 서양인 학자들과 상의하여 모든 것을 물어보고, 그들과 교리를 파고들어 그 종교의 모든 예배 행위를 자세히 알아 가지고 필요한 서적들을 가져오게! 삶과 죽음의 큰 문제와 영혼의 큰 문제가 자네 손에 있으니, 가서 무엇보다도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게!” 29)

그리하여, 이승훈(李承薰)이 북경에서 1784년 2월, 귀국에 앞서 예수회 신부 그라몽(梁棟材)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조선 최초의 영세(領洗)신자가 되었다. 이렇게 세례를 받고 돌아온 이승훈과 함께 강학회는 단순히 학습연구의 모임 성격에서 종교단체의 성격으로 변화하게 됐다. 이승훈은 같이 공부하던 동료인 권일신, 정약중, 정약용, 이벽 등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를 계기로 적극적인 신앙 활동이 전개 되었고, 후일에 조선 가톨릭교회 창설의 주동 인물이 되었다. 이리하여 정약전 3형제, 중국어 역관 김범우(金範禹)·최인길(崔仁吉), 상인(常人) 출신의 이단원(李端源) 등 수십 명에게 대세를 주어 1784년 겨울, 역관 김범우의 집 대청에서 주일미사를 드리고 조선 최초의 가톨릭교회를 설립하였다. 그러다가 1785년 을사추조적발사건(乙巳秋曹摘發事件)이 벌어졌다. 형조판서 김화진은 김범우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을 보고 탐색한 끝에 그 곳에 가톨릭 교인들의 집회장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김범우를 체포하기에 이르렀다. 주범 격인 이승훈, 권철신, 이벽 등은 권문세도가의 자제이므로 훈방하고 중인인 역관 김범우를 잡아 종교를 버리도록 요구하고 그를 단양으로 귀양 보내 결국 그는 귀양지에서 순교했다. 그러나 이때부터 조선의 가톨릭은 박해가 계속되는 형극(荊棘)의 길을 걸었고, 그러한 박해는 일제강점기를 거쳐 6·25전쟁 때까지 계속되었다. 한편 주자학의 보수적 정통주의 사회 속에 완전히 이질적인 사상체계를 가진 가톨릭의 신앙 집단이 형성되자 이는 곧 사회문제로 확대되어 갔다. 가톨릭 운동은 주자학적 전통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교리서 연구에 몰두하다가 스스로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결국 조선에서는 자생적 가톨릭 교인들이 생겨나게 됐다.³⁰⁾

가톨릭의 초기 100년의 역사는 실로 박해와 순교사의 점철이었다. 첫 수난은 1791년 조상의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고발로 이른바 ‘진산사건(珍

29) 샤를르 달레, 安應烈, 崔奭祐 譯註, 『韓國天主教教會史 上』, (성분도출판사, 1979), p.304.

30) 김인수, 『간추린 한국교회 역사』, (서울: 한국장로교회 출판사, 1997), pp.20~21.

山事件)’이 터졌다. 가톨릭 신앙에 열렬하였던 정약용의 외종(外從)인 윤지충(尹持忠)과 권상연(權尙然)이 북경 주교의 가르침을 따라 제사를 폐지하고 조상을 상징하는 위패를 불사르자 그들은 관헌에 체포되어 고문 끝에 전주(全州)에서 사형을 당했다. 당시 전라삼사 정민시(鄭民始)는 윤지충의 백절불굴함을 “그는 다만 天主 있는 줄만 알고 임금과 아버지가 있는 줄은 모른다.”고 표현했다.³¹⁾ 이것은 조상제사 금지, 天主를 大君, 大父母로 여기면서 세속의 君主와 父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남·여의 同席 등, 가톨릭의 교리와 신자들의 행태가 기존의 윤리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조선의 유교체제 하에서는 효도사상과 결부 되어 4대조까지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냈다. 이것을 갑자기 우상숭배라고 죄악시하여 폐지하려는 것은 곧 유교체제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큰 충돌이 일어났고, 이것이 조선 순교사의 첫 장이 되는 신해교난(辛亥教難)이다.

1784년 가톨릭교회가 창설된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성직자를 모시게 되었는데, 그가 중국인 주문모(周文謨) 신부다. 주신부의 내한으로 교세가 확장되어 4,000명의 신도수를 헤아리게 되었으나, 그의 밀입국을 밀고한 자가 있어, 주신부를 피신시키고 신부로 가장하였던 지황(池瓚), 윤유일(尹有一)은 포도청에서 타살·순교 했다.

1801년 신유박해(辛酉迫害) 때에 주문모 신부와 명도회의 활동으로 신자수가 10,000여 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정조의 죽음 이후 어린 순조가 임금이 되자 정순왕후 김씨는 가톨릭을 금하는 하교를 내렸다. 수많은 신자들이 산속으로 도망가게 되었고, 정부는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을 써서 교인을 모조리 잡아들이라는 임금의 교서를 전국에 내리고, 전국에 포졸들을 풀어 이단원을 비롯하여 이가환(李家煥)·현감 이승훈, 승지 정약용, 홍낙

31) 基督教思想 編輯部, 『韓國歷史와 基督教』, (서울: 大韓基督教書會, 1983), p.25.

민(洪樂民), 권철신, 정약중, 총회장 최창현(崔昌顯), 여회장(女會長) 강완숙(姜完淑)과 그 가족들을 잡아들였다. 이어 많은 교인들이 서소문(西小門) 밖 네거리에서 순교하거나 귀양을 갔다. 이때 희생된 교인 수는 300명이 넘었으며, 나중에 자수한 주문모 신부도 한강 새남터에서 효수(梟首)되었다. 이때부터 외국인 성직자를 새남터 형장에서 처형하는 선례가 되었다. 그러나 엄밀히 살펴보면, 조선교회가 받았던 극심한 迫害들은 순수한 종교적 사건과 연계라기보다는, 정권의 쟁탈 내지는 정권의 연장을 위한 투쟁이 박해의 배경으로 크게 작용했다. 조선교회의 迫害를 보면 迫害者들은 가톨릭 신자들의 신앙행위를 전통적인 예속생활의 파괴 등을 명목으로 斥邪爲政을 강조하면서 참혹한 박해를 가했지만, 이것은 박해를 합리화하기 위한 표방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 박해자들이 자신들의 집권 지속을 위하여 정권 탈취를 위한 수단으로 가톨릭을 박해했던 것으로 나타난다.³²⁾

가톨릭이 다시 지하로 잠복하여 신앙생활을 이어가던 중 강원도로 피신 하였던 신대보(申大甫)와 그의 고종 사촌인 이여진(李如眞) 등의 노력으로 조선 가톨릭이 재건되었다. 이여진은 수차례 베이징에 가서 조선교회의 딱한 사정을 호소하였다. 이렇게 再建運動이 일어나고 있을 무렵 1811년, 조선 국왕은 다시 전국에 명령하여 가톨릭 신도를 잡아들이게 하여 이른바 ‘지방의 박해’가 시작되었다. 박해가 일어나고 있을 때, 교회 재건운동을 일으킨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신유박해 때 순교한 정약중의 둘째 아들 하상(夏祥) 바오로였다. 정하상은 1816년부터 거의 해마다 베이징을 왕래하면서 신부의 파견을 요청하는 한편 전교에 힘썼다. 그러는 사이 1827년 또 다시 박해가 전라도 지방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90여 명이 체포되었다. 다행히 순교자는 10여 명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죄의 경중에

32) 李銀美, 「天主敎의 전래와 敎育史業」,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p.22.

따라 처벌되었다. 1831년 9월 9일 로마 교황 그레고리우스 16세는 두 가지 교서를 발표하였다. 그 하나는 조선교회를 베이징 교구로부터 분리하여 독립된 교구로 승격시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브뤼기에르(한국성 蘇) 신부를 조선교구 초대 주교에 임명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조선교회 창설 후 47년 만의 일이었다. 그러나 소신부가 조선 입국의 길을 찾다가 35년 뇌일혈로 급서하자 프랑스의 모방(羅伯多祿) 신부가 성직자로서는 처음으로 입국에 성공하였고, 뒤이어 샤스탕(鄭牙各伯) 신부가 입국하여 숨어서 또는 모습을 변장해가며 전교(傳敎)에 힘썼다.³³⁾

모방 신부는 외방전교회의 방침에 따라 토착인 성직자 양성에 착안하고 최양업(崔良業), 최(崔)프란체스코, 김대건(金大建) 등 세 소년을 마카오로 보내 로마 인류복음화성성(傳敎聖省) 동양경리부에서 학문을 닦게 하였다. 이들은 조선이 해외로 보낸 최초의 유학생이었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서양 학문을 배운 선각자들 이었다.³⁴⁾ 세 소년 중 나이가 제일 위였고 학습능력이 뛰어난 최(崔)프란체스코는 1838년 11월에 열병에 걸려 사망하였다.

1837년 로마 교황청은 중국 쓰촨성(四川省)에서 전교 중이던 앵베르(范世亨) 신부를 조선교구 제2대 주교로 임명하였고, 그가 이듬해 정월 무사히 입국함으로써 조선교구 창설 7년 만에 비로소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당시 권세를 잡고 있던 김조순(金祖淳)은 가톨릭에 대하여 관대하였다. 이 당시 전국의 교인 수가 9,000여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김조순이 죽고 풍양 조씨(豐壤趙氏)가 세력을 잡자 1839년 기해박해(己亥迫害)가 일어났고, 신도 118명이 체포되었다. 그 중에 정하상, 유진길(劉進吉)을 비롯한 69명이

33) 박해시대 때 프랑스 신부들은 외국인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 상주 복장을 하고 다녔다. 조선시대 상주는 상복을 입고 다니면서,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신부들의 이러한 상제 복장은 포졸들의 검문을 피할 수가 있었다.

34) 柳洪烈, 『韓國天主敎會史』, (서울: 가톨릭 出版社, 1962), p.20.

순교하였다. 이때 외국인 신부 범주교, 정신부, 나신부 등도 새남터에서 순교하였다. 이때 가장 큰 일을 이룩한 순교자는 정하상이었다. 그는 己亥迫害가 일어나자 잡힐 것을 예상하고 상재상서(上宰相書)의 글을 우의정 이지연(李止淵)에게 올렸다. 이 글에서 가톨릭이 조금도 그릇된 종교가 아님을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주자학의 허례허식을 논박하였다. 이 글은 1887년 홍콩에서 책자로 간행되어 중국 전교에도 사용되었다.

정하상은 그의 《上梓相書, 1839》에서 정부의 가톨릭 박해가 비합리적인 것을 지적한 다음 자기는 가톨릭을 이상적 판단과 양심적 확신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음을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신유년 전후에 인민의 생명을 많이 없애면서도 천주의 기원과 전통을 조사하여 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 이제 감히 그 도리가 그릇되지 아니함을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곧 천지의 위에는 어른이 계시는데 거기에는 세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 萬有요, 둘째는 良心이요, 셋째는 성경입니다.” 35)

한편, 마카오로 유학하였던 김대건은 44년 부제(副祭)가 되었고, 이듬해 조선교구 제3대 주교로 임명된 페레올(高) 주교의 집전으로 상하이(上海)에서 신품성사(神品聖事)를 받고 신부가 되었다. 같은 해 그는 페레올 주교와 다블뤼(安敦伊) 신부와 함께 어렵게 귀국하였다. 귀국 후 그는 700여 명에게 성사를 주었다. 교우 수는 갑자기 늘기 시작하였다. 이듬해 페레올 신부의 명령으로 앞서 함께 유학을 떠났던 최양업 부제와 메스트르(李) 신부를 맞이하러 연평도에 갔다가 체포되어 병오박해(丙午迫害)가 일어났다. 김대건 신부는 새남터에서 순교하고 현석문(玄錫文) 이하 20여 명이 잡혀 그중 9명이 처형되었다.

35) 基督教思想 編輯部, 『前揭書』, p.26.

“나는 하느님을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게서 시작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죽은 뒤에 행복하길 원하신다면 가톨릭을 믿으십시오.”

조선인 최초로 신부가 된 김대건은 조부와 부친이 모두 박해로 순교한 독실한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났다. 신부가 되기 위해 16세에 모방 신부에 의해 마카오로 유학을 떠난 지 10년 만인 1845년 8월에 서품을 받고 귀국해 그 이듬해인 1846년 7월 참수형을 당할 때의 나이가 겨우 25세였다. 김대건 신부는 1857년 교황청으로부터 가경자(可敬者)³⁶⁾ 칭호를 받았고, 1925년에는 교황청에서 시복식(諡福式)이 거행돼 복자위(福者位)에 올랐다.

철종(哲宗)시대에 이르러 가톨릭은 보호받아 교세를 크게 떨쳤으며, 베르뇌(張敬一) 신부를 비롯한 10여 명의 신부가 내한했다. 최양업도 신부가 되어 귀국했다. 그는 전국의 3,700여 명에게 영세를 주었다. 그러나 철종이 죽고 고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흥선대원군의 섭정기에 가톨릭 최대의 수난인 병인교난(丙寅敎難, 1866)의 비극이 일어났다. 병인 대학살 사건의 원인은 극히 애매했다. 직접적인 동기는 조야(朝野)의 보수파들이 서교 배척열을 재연시키려 했다. 그들은 가톨릭과 서양의 침략세력을 동일시했다.

1866년에 이미 두 차례나 조선에 나타나 통상을 요구하다 실패하고 돌아간 독일인 상인 오페르트(E. Oppert)는 대원군의 부친인 남연군(南延君) 묘소를 도굴하여 무덤에서 몇 가지 유물을 담보물로 잡고 대원군의 기세를 꺾어 보려는 계획을 세웠다. 폐룡·갈래 신부 등 조선에서 탈출한 신부들

36) 시복(諡福) 후보자에게 잠정적으로 주어지는 존칭. 시복 조사가 교황청 예부성성에 접수되면, 시복 후보자에게 이 존칭이 주어진다. 한국교회는 1857년에 처음으로 82명의 가경자를 갖게 되었다. 한국교회는 <1839년과 1846년에 조선 왕국에서 발발한 박해 중에 그리스도의 신앙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순교자들의 전기...>란 문헌을 교황청에 보냄으로써 시복 조사가 시작됐는데, 1847년에 이 문헌을 접수한 예부성성은 박해로 인해 한국교회가 교구적 차원의 시복 조사를 할 수 없으나, 이 문헌 자체가 순교자를 선정하는데 매우 엄격했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교회법에서 요구되는 교구 조사를 대체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1857년 9월 23일 한국교회의 시복 조사를 공식으로 접수하는 법령을 반포하였다. 이로써 82명의 가경자가 탄생하였다.

과 조선 교인들의 안내를 받아 충청도 덕산에 상륙하여 남연군 묘소를 도굴하려다 서해안의 바닷물이 빠지는 바람에 실패한 사건이 터졌다. 신부와 교인들이 이 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됨으로써 대원군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고, 가톨릭에 대한 박해는 한층 더 가열되었다.

결국은 세계정세에 대한 무지와 유교적인 전제주의와 배타적인 쇄국정책이 결합되어 가톨릭의 대학살이라는 비극을 초래한 셈이다. 1866년 이후 3년을 두고 학살한 교인의 수는 무려 8천명에 달했다. 그리하여 3만에 가깝던 가톨릭 신도들은 거의 종적을 감추는 사태에 이르렀다. 실로 조선 가톨릭 초기 100년은 처절한 순교의 역사였던 것이다.

<표 1> 홍선대원군의 쇄국정치 때 처형당한 외국인 신부³⁷⁾

직위	이 름	입국 연대	활동 연수	순교 장소	나이	순교 일자
주교	베르뇌 장	1856	10년	새남터	52	1866.3.08
주교	다블뤼 안	1845	21년	보령	48	1866.3.20
신부	푸르티에 신	1856	10년	새남터	36	1866.3.11
신부	프티니콜라	1856	10년	새남터	38	1866.3.11
신부	오메트르오	1863	2년	보령	29	1866.3.30
신부	브르티니에르	1865	8개월	새남터	28	1866.3.08
신부	보리외 서	1865	8개월	새남터	26	1866.3.08
신부	도리 김	1865	8개월	새남터	27	1866.3.08
신부	위엔 민	1865	8개월	새남터	30	1866.3.08

<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홍선대원군 섭정기에 프랑스 신부 12명 중 9명이 순교했다.

가톨릭 역사에 기록된 큰 박해로는 1801년의 신유박해(辛酉迫害), 1839년 기해박해(己亥迫害), 1846년 병오박해(丙午迫害), 1866년 병인박해(丙寅迫

37) 全澤晷, 『韓國教會發展史』,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p.57.

害)를 들 수 있다. 이렇게 100여 년 동안 이어진 박해 과정에서 순교한 사람 가운데 오늘날 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대략 1,800여 명에 이른다. 물론 이들 외에도 조선 왕조의 가톨릭 박해 과정에서 무명으로 순교한 신자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다. 이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상황은 교회성장에 좋은 여건을 제공하였다. 1860년 발생한 中·英戰爭으로 북경의 함락은 조선 사람들에게 서양세력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가톨릭과 연결을 통해 위협을 모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는 입교자 증가의 한 원인이 되었다.³⁸⁾ 이러한 지적은 다음 자료를 참고할 때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다.

“높은 관직에 있는 관리들이 신자들에게 공손하게 보호를 부탁하고 위협의 날에 대비하여 종교서적이나 苦像이나 聖牌를 장만하려는 교섭을 벌였다. 어떤 관리들은 공공연하게 가톨릭의 이 표지를 허리에 차고 다니기까지 했다.”³⁹⁾

시대적 상황은 입교자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었지만, 제7대 조선 교구장 블랑 (Jean Marie Gustave Blanc, 白主三, 1844~1890) 주교는 개신교 선교사들의 입국에 크게 위협을 느껴, 파리외방전교회 본부로 보낸 1885년 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전했다.

“우리가 위협받고 있는 또 다른 곤경은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들의 내한입니다. 이미 10명 이상의 선교사들과 2~3명의 여 선교사들이 들어와 습니다. 현재 그들은 말공부에 전념하고 있으며, 선교사라는 신분도 감추고 있습니다.”

38) 白宸旭, 「19세기 조선사회의 사상적 동향과 천주교」,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43.

39) 샤를르 달레 원저, 안응렬, 최석우 역주, 『前掲書』, p.318.

다. 이들 모두는 아직 미국 영사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정착하려고 온 미국인들입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 신부들의 위치는 아주 이색적인 면을 보일 뿐입니다. 오류를 설교하는 이 개신교 선교사들은 활보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 반면 진리와 참된 자유의 설교자들인 우리들은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들처럼 숨어서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말하자면 손과 발이 묶여 있는 신세입니다.”⁴⁰⁾

실제로 서양세력을 의식하여 중앙으로 문제를 크게 확대하지 않으려는 지방관의 움직임도 찾아진다.

“한 겨울에 나라의 이곳저곳에서 신자들이 불잡혀 갇혔습니다. ... 박해가 크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 그런데 갑자기 잡혔던 사람들이 한 사람만 제외하고는 배교를 하지 않은 채 석방되었습니다. ... 불잡혔던 신자들은 놓여나왔는데 신자 家長 1백 명의 명단을 가지고 관장과 암행어사에게로 갔던 고발자들 중의 한 사람은 결박을 당하고 투옥되고 매를 흠신 맞았습니다. ... 우리 예비신자의 수는 거의 3배로 증가했습니다.” (1858년 8월 14일자 베르뇌 주교 서한)⁴¹⁾

이 같은 박해에도 날로 늘어나는 교세와 외세의 압력에 굴복, 조선은 1886년(고종23년) 5월 프랑스와 수호조약이 체결되면서 공식적으로 가톨릭에 대한 박해를 종식시키기에 이르렀다. <표 2>의 「그리스도교 신자 증가 표」에서 보면 가톨릭 신자가 1900년대 초까지 개신교 신자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이 땅에 가톨릭이 들어온 지 102년 만의 전교의 자유를 완전히 획득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0) 『서울교구연보 I』,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pp.44~45.

41) 샤를르 달레 원저, 안응렬, 최석우 역주, 『上揭書』, pp.278~279.

<표 2> 그리스도교 신자 증가 표(단위: 명)

년 도	가톨릭	개신교	년 도	가톨릭	개신교
1897	32,217	6,800	1907	63,340	72,968
1900	42,441	13,569	1910	73,340	140,470
1905	64,070	37,407	1919	88,553	144,062

프랑스와의 조약은 불완전하나마 조선에 처음으로 종교자유를 가져다주었다. 이로써 선교사의 정착이 가능해 졌고, 그 결과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이 파견되기 시작했다. 비록 조약문에 공식적으로 선교에 자유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조약문에 있는 교회(敎誨)⁴²⁾라는 표현은 신앙의 자유와 선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때부터 선교사들은 호조(護照)를 발급받고, 프랑스 공사관의 후원을 얻어가며 본격적으로 선교활동을 시작했다.

최초의 본당인 서울의 종현(오늘의 명동)본당은 대성당을 비롯하여 주교관, 수녀원, 인쇄소 등의 부속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종현에 이어 원산, 제물포, 부산, 마산포, 목포 등 개항지에 잇달아 본당이 건설되었고, 평양 등 중요한 교우촌⁴³⁾과 대도시에도 본당이 세워졌다. 또한 주교좌성당 구내에

42) 「교회」는 “가르친다.”라는 뜻으로 후에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 열강은 선교권의 승인으로 해석하고, 조선은 이에 반대하였으나 결국 조선도 후에 이를 승인하였다.

43) 가톨릭 신자들의 주요 생계 수단은 교우촌을 중심으로 화전, 웅기, 담배, 지필묵, 양잠, 한방, 사냥 등을 생업 수단으로 택해 장기간 박해 기간을 견디어 왔다. 이러한 업종을 택한 이유는 첫째 그들이 모여 살았던 교우촌에서 공동 노동이나 공동 분배를 쉽게 할 수 있는 생업이었고, 둘째는 큰 밑천이 없어도 웅기나 토기를 만들어 팔아먹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밥도 얻어먹고 인심 좋은 집에선 숙식도 해결하는 유랑 생활은 교인들에게 적합했다. 셋째 친한 웅기장사나 등짐장사는 포졸들로부터 감시의 눈길로부터 감시의 눈길을 피하기 쉬웠고, 박해로부터 흩어진 친인척들을 찾기도 쉬웠기 때문이다. 넷째 신자들끼리 서로 소식을 전하면서 박해가 일어나면 즉시 서로에게 연락을 주어 피하기 좋았고, 신자들의 유일한 희망인 신부가 있는 장소를 알아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아원과 양로원 등이 세워졌다.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프랑스로부터 수녀들이 진출하였다. 또한 용산에 서양식 신학교 건물이 세워짐으로써 조선인 성직자 양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시기에 복음은 남쪽으로는 제주도, 북쪽으로는 국경을 넘어 멀리 간도 지방까지 전파되었다.

1888년 6월 8일 블랑 주교는 서울 종현성당에서 미사를 드린 후 종교의 자유를 알게 된 최후의 승리를 온천하에 알리고, 이때부터 성직자들은 과거에 입고 다니던 상제 옷과 방갓과 포선(布扇)을 벗어버리고 뽀뽀하게 검은 수단 옷을 입고 어느 곳이나 버젓이 다닐 수 있게 되었다.⁴⁴⁾

제7대 블랑 주교가 1890년 2월에 작고한 뒤 뮈텔(Gustav Charles Marie Mutel, 閔德孝)⁴⁵⁾신부가 그해 8월에 제8대 주교로 서임(敍任)되었다. 그때부터 뮈텔 주교는 43년간 조선교구의 책임자로 있었다. 과거 1829년부터 1890년까지 61년 동안에 주교가 7명이나 바뀐 것에 비하면 실로 엄청난 장기(長期) 사목(司牧)이었다. 그만큼 뮈텔 주교는 장수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와 같은 박해시대는 지나고 신교 자유시대를 누리는 동안에 조선 가톨릭의 발전, 토착화 및 교세 확장의 빛나는 금자탑을 쌓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1899년 내무지방국장 정준시(鄭準時)와 뮈텔 주교 사이에 약정된 교민조약(敎民條約)에서 비로소 조선인들의 신교 자유가 전제되었다. 교민들에게도 일반인들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었다. 이어 1904년 약정된 선교 조약에서는 조선인의 신교 자유 외에 선교사가 개항지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토지를 매입하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게 되었다. 이러한 종교의 자유로 인해 교회는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가톨릭은 선교와 사회복지 활동이라는 개방적이고도 외적인 형태로 활기를 띠게 되었

44) 全澤鳧, 『前揭書』, p.64.

45) 뮈텔 주교는 1854년 프랑스에서 출생. 1877년 사제 서품을 받음과 동시에 한국 전교신부로 피명. 처음에는 만주에서 배회하다가 1880년에 입국했으나, 1885년 파리의방전교회 신학교 교감으로 임명되면서 한국을 떠났다가 드디어 1890년 8월에 조선교구 제8대 주교로 임명. 1891년 2월 22일 제물포에 상륙. 1933년 1월 23일 80세로 서울에서 작고했다.

다.⁴⁶⁾

위텔 주교 사목 기간 중 <표 3>의 「朝鮮 가톨릭 敎勢 通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⁷⁾

<표 3> 朝鮮 가톨릭 敎勢 統計

종별 \ 연대	1891년	1900년	1910년	1933년	1994년
교구 수	1	1	1	7	15
주교 수	1	1	1	3	20
외국인성직자수	20	40	46	98	210
한국인성직자수		12	15	85	2,072
성당 수	7	41	69	212	-
수녀 수			59	336	6,844
신학생 수	20	26	41	284	-
교인 수	18,000명	42,441명	73,500명	127,600명	3,340,000명

1891~1933년 까지 위텔 주교가 사목(司牧)했던 시기에 교세가 확장되어 갔다. 조선왕조 멸망까지 20년 동안 조선 가톨릭 교세는 성직자 수가 급속히 증가했고, 성당도 많이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신자의 수도 급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가톨릭의 발전 추세는 당시 改新敎에 비하면 놀랄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이는 개신교 선교사들의 적극적인 활동 때문이지 결코 조선 가톨릭의 팽창이 미진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수많은 위기 속에서 가톨릭은 1969년에는 서울대교구의 대주교 김수환(金壽煥) 신부가 추기경(樞機卿)으로 임명되었다. 1968년에는 100년 전 병인박해에서 순교한 약 1만 명의 신도 중 24위에게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에서 시복(諡

46) 심홍보, 「한국 천주교 사회복지사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p.28.

47) 全澤晷, 「前揭書」, p.125.

福)함으로써 한국의 복자위(福者位)는 모두 103위가 되었다. 1983년 9월 로마 교황청은 이들 복자를 다시 성인(聖人)⁴⁸⁾으로 승품시켰고, 1984년 5월 로마 교황 요한바오로 2세는 한국 가톨릭 창립 200주년을 기념하는 서울식전에서 이들 복자위 성인 승품식을 친히 집전하였다. 이어 1988년에는 세계 성체대회를 개최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의 가톨릭은 이렇게 외부의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여 전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중국에 머무르는 신부들로부터 관련 서적들을 구하여 연구에 몰두하다가 스스로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어 결국 자생적 가톨릭 교인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가톨릭은 조선의 지식층에 있는 학자들의 노력에 의해 수용되었고, 반복되는 박해 가운데서도 자력으로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은 세계 선교사에 쉽게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사례로 평가된다.

2. 개신교 선교사들의 입국과 활동

조용한 아침의 나라로 불리던 조선이 미국과 조·미우호통상조약을 체결한 때는 국내적으로 수구·개화세력의 갈등이 고조되고 국외적으로는 제국주의 침략 바람이 강하게 몰아치던 1882년 4월 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미국은 조선을 개항하면 경제적으로는 대(對)아시아 무역 팽창정책을 구현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는 러시아의 남진정책을 저지할 수 있으며, 문화적으로는 조선의 개화운동을 도와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요약하자면 조선이 가진 시장의 가치보다는 지정학적 위치에 중점을 둔 주장이었다.

48) 가톨릭에서는 신앙의 덕이 높은 사람을 聖人(성인)으로 추앙하는데, 성인의 前 단계로 福者(복자)이 있고, 그 前 단계로 가히 공경할 만한 可敬者(가경자)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8년에 24위가 복자로 시복되었고, 1984년에 103위가 성인으로 시성되었다.

조·미우호통상조약이 발표된 다음 해인 1883년 4월 미국 전권공사 푸우트(Foote)가 서울에 부임했고, 5월 20일 고종에게 신임장을 제정했다. 조선 정부는 그 답례로 1883년 7월 19일 민영익(閔泳翊)을 전권대신에 부관으로는 홍영식(洪英植), 서광범(徐光範) 등 개화파 청년을 임명해 미국에 파견했다. 1888년 1월 17일 박정양(朴定陽)은 초대 주미 공사로 신임장을 받았다. 미국은 다시 호레이스 알렌을 주한 공사로 보내면서 본격적인 외교 시대를 열었다. 이 시기에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이 조선에 입국해 종교 전파와 교육사업 등에 나섰고, 이러한 조·미 교류는 1905년 을사보호조약 때까지 그 맥을 이어 나갔다. 초대 공사 푸우트(L. Foote)는 그가 미국의 국록을 받은 외교관이기 전에 조선인에 대한 진정한 친구였고, 고종에 대해서는 조언자였다. 고종은 푸우트를 경험해본 결과 미국인이 이제까지 자신이 생각한 바와 같이 洋夷가 아님을 알게 되자 내정문제도 의논을 하였다. 고종은 1883년 그를 불러 조선의 미숙한 외교 문제를 다루고 신식군대를 교련할 수 있는 외교 고문과 군사교관, 그리고 서구의 발전된 문화를 가르칠 수 있는 미국인 교사파견을 부탁했다. 그 결과 군사교관으로 다이(W. Dye)장군이, 외교 고문으로 데니(O. N. Denny)가, 교사로 헐버트, 길모어, 벙커 등의 선교사가 입국하였다.

개화파의 거두(巨頭) 김옥균은 서양 문명을 조선에 도입할 것을 갈망하는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 그는 고종과는 대단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⁴⁹⁾ 그런데 1884년 6월 24일 맥클레이 선교사가 내한을 했고, 김옥균은 맥클레이 선교사를 통해 학교와 병원설립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고종에게 올리게 되었다. 곧바로 고종은 1884년 7월 3일 김옥균을 통해 맥클레이 선교사에게 교육과 의료사업을 허락하였다.⁵⁰⁾ 이

49) 閔康培, 『알렌의 宣敎와 近代韓美外交』,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1), pp.79~80.

50) 白樂濬, 『韓國改新敎史』,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73), pp.82~83.

처럼 왕실은 기다렸다는 듯이 매우 신속하게 반응하였다. 이것은 조선 왕실에 커다란 사건이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조선의 대내외 정책은 유교국가이기 때문에 서양종교를 금지하는 “不入敎堂”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때문에 왕실 스스로가 이 종교정책에서 실제적인 융통성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일은 차후 조선 땅에 모든 선교사들의 입국을 가능케 하는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여졌다.⁵¹⁾ 반면에 고종과 온건 개화적인 중신들이 가장 걱정했던 점은 가톨릭 전래 이후, 특히 대원군 섭정기간 동안 조선은 엄청난 사회적, 종교적 갈등과 혼란 그리고 살육을 겪었다. 살벌한 ‘척화비’ 문구에 익숙해 있던 일반 백성들도 갑작스런 政策變化에 어리둥절했다. 또한 외교관계를 반대하는 위정척사파의 반대도 강했다. 이런 상황에서 고종은 미국 등 서구 열강과 수교를 맺어야 할 필요성과 서양 종교에 대한 백성들의 걱정을 불식시켜 줄 필요가 있었다.⁵²⁾ 언더우드도 그 당시 조선 정부는 선교사나 선교활동에 대해 불간섭주의 입장이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깨지 못한 선비들은 송나라에서 화의를 하여 나라를 망친 것만 보고 마구 끌어다가 걸핏하면 화의를 배척하는 논의를 붙이고 있다. (中略) 고립무원 하게 떨어져 있으면서 세계만방과 말썽이 생겨 공격의 화살이 집중이 되는 중에 망해 버릴 것을 스스로 예측하면서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면 의리로 놓고 보아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논의를 버리는 사람들은 또한 서양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을 가지고 장차 예수에게 물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유교와 세계의 교화를 위해서 오랫동안 깊이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은 좋은 관계를 가지

51) 『朝鮮監理敎會年會錄1』, (서울: 基督教朝鮮監理敎會 100周年記念事業委員會, 1984), pp.1~2.

52) 류대영, 『기독교 선교사에 대한 고종의 태도와 정책(1882-1905)』, (한국기독교와 역사, 2000), pp.10~11.

는 것이고 종교를 막는 일은 원래 종교를 막는 문제이며 조약을 맺고 통상하는 것은 세계의 공법이 근거하고 있을 뿐이다. 처음부터 내륙지방에 교리 전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조건이다. 더구나 너희들은 본래부터 공맹의 가르침을 익혀 왔고, 오랫동안 예의의 풍습에 젖어 왔는데, 어찌 하루아침에 바른 교리를 버리고, 그릇된 교리를 따를 수 있겠느냐? 설사 어리석은 사람들이 몰래 그 가르침을 배우고 전한다 해도 나라에 몇몇한 법이 있는 이상 차단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되는데 무슨 걱정이 있는가? 숭상하고 물리치는데만 재간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기계를 만드는데 조금만 서양 것을 수용하면 대뜸 그릇된 것에 물든 것으로 지목하는데, 이것도 또한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탓이다. (中略) 종교를 배척하고 기계를 본받은 것은 원래 병행하여도 사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더구나 강하고 약한 형세가 현저한 조건에서 만일 그들의 기계를 본받지 않는다면 무슨수로 그들에 침략을 막아내며 그들이 넘겨다보는 것을 막겠는가? 참으로 안으로는 정사와 교화를 잘 하며 밖으로는 이웃나라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나라의 예의를 지키면서 각 나라와 대동하게 부강한 국가로 발전시켜 온 백성들과 함께 태평세월을 누린다면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中略)” 53)

이 문서는 당시 왕실과 온건 개화파 중신들의 의중을 잘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서양의 앞선 과학기술과 문물을 받아들이되, 그리스도교는 배척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선교사와 관계에서 고종이 보여준 것은 상당히 개방적이고, 원칙을 지키면서도 그들과의 관계를 충분히 이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군주의 모습이었다. 선교사들은 고종이 그들의 사업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들에게 많은 관심과 친절을 베풀고 있다고 본국에 보고했다. 고종은 미국인에게는 미국은 조선이 가장 신뢰하는 친구라고 이야기했으며, 영국인을 만나면 영국이 조선의 제일 좋은 친구라고 말해 왔다.⁵⁴⁾ 아무튼 각종 기록이 보여주는 바에 의하면, 고종은

53) 북한 사회과학원 민족고전 연구소에서 발행한 『고종실록』 제19권, pp. 162~165.

선교사들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형식을 갖추어 그들과 관계를 가지려 했다.

고종과 선교사들과의 관계에서 주목이 되는 점은 청·일전쟁 직후에 고종이 매우 적극적으로 선교사들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이다. 고종은 선교사들을 통해 그들의 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했고, 서양인들을 자기 주위에 둬으로써 신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믿었음이 분명했다.⁵⁵⁾ 따라서 선교사와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조선이 필요한 것은 얻고자 했던 종래의 선교사 정책도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교사들을 받아들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⁵⁶⁾ 정치적 보수 세력에 의한 진보적인 세력의 숙청으로, 쇄국주의 정책 속에서 외세로 취급되어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가톨릭 선교의 과정을 돌이켜볼 때,⁵⁷⁾ 개신교 전파가 순조로운 출발이 무엇보다도 정치적 배경에 힘입은 바 크다.

그리스도교 수용을 거부하던 대원군의 鎖國主義 정권이 무너지고 門戶開放 정책이 채택되자 서구 문물은 제한 없이 밀려 들어와 사회를 흔들어 놓았지만 정부는 束手無策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배층의 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개신교 수용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둘로 구분된다. 즉 개신교를 포함한 서구 문물에 대해서 수용적인 입장을 보였던 개화파와 극구 반대했던 위정척사파⁵⁸⁾의 대립으로 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심한 허탈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우리 역사를 통해 한때 전성기였던 선(善)이나 불교 및 유교의 정신적 차원이 고갈하고, 그 형식과 명분만으로 무게 없이 뚜렷

54) 류대영, 『前揭書』, p.35.

55) 류대영, 『上揭書』, pp.35~36.

56) 류대영, 『上揭書』, p.39.

57) 강만길, 『문호개방을 전후한 역사적 상황과 한미수교』, (기독교사상, 1982). pp.17~22.

58) 송길섭, 『韓國神學思想史』, p.74.

한 영향력 없는 반복만 되풀이하던 구한말은 종교적 신앙과 정신생활의 전례 없는 공백기였다고 볼 수 있다.⁵⁹⁾ 정치의 혼란과 경제의 파탄으로 백성들은 희망이 없고, 특히 종교마저도 천시를 받고 있었다. 유교는 부패한 양반과 관료들의 종교로 머물러 있는 지배층의 종교였고, 백성들의 종교는 아니었다. 오히려 불안한 백성들에게는 길흉을 점치는 민간신앙에 더 의지하였던 시대였다.⁶⁰⁾ 그런데 미국인들과 열강들이 믿는 '하나님'이 샤머니즘의 신인 '하느님'까지 다스리시므로 저들이 부강하다고 생각하여 개신교를 신뢰하게 되었다. 유교는 중주국인 청나라가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소위 경향신사라는 개화파에 속한 유학자들이 개종하므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改新敎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던 것이다. 양반계층에서 초기에 개신교에 입교한 사람으로는 서재필과 윤치호로 대표될 수 있다. 이들은 미국 생활을 통해서 개신교를 알게 되었고, 귀국하여서는 建陽. 光武 초기에 정치. 교육. 종교활동을 통하여 개화운동에 앞장섰다. 또 광무초기 현직 관료 중에는 궁내부 물품사장 이영무, 경무사 및 형사국장을 지낸 이충구, 면천군수 유제, 죽산군수 김홍수⁶¹⁾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1860년 최제우에 의해 창시된 동학은 '천심이 인심' (인내천), '사람을 하늘같이 섬기라' 고 하는 동학사상은 봉건적 신분질서를 부정하고, 미래에는 억압받는 민중이 복을 누리고 지배층이 몰락할 것이라는 지상천국설의 반봉건적 지향을 담고 있다.⁶²⁾ 이러한 東學思想은 당시의 유교적인 封建社會를 파괴하고 있었고⁶³⁾ 개신교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

59) 민경배, 『한국민족교회 형성사론』, p.120.

60) 유동식, 『한국신학의 광맥』, (서울 : 전망사, 1986), pp.37~38.

61) 『조선 크리스도인회보 41호』, 1897,11,10.

62)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역사』, (서울 : 역사비평사, 1992), p.236.

63) 유동식, 『前揭書』, p.37.

다는 사상과 어울리게 되었으며, 동학운동의 地上天國說은 종말론적 대안으로서 개신교를 소망하였다. 이렇게 개신교는 격랑이 높았던 19세기 말에 조선에 전파되었다. 선교사의 입국 전에 일부 개화와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개신교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⁶⁴⁾ 이들은 신교육과 의료사업 즉, 개화사업의 필요성에 의하여 개신교의 전파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처럼 개신교 형성의 시대에 약소민족과 고난 받은 민중들에게 새 희망과 힘의 종교로 수용되었다.⁶⁵⁾

개신교가 조선 선교 초기의 배경 중 중요한 요소는 선교사들의 조선에 대한 애정과 그들의 사역일 것이다. 선교사의 헌신적인 선교활동과 정열이 바로 조선교회의 초기 성장과 무관하지 않았다. 초기 선교사들의 선교활동 중에 공통적으로 조선의 상황을 고려하여 직접적인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우회적인 방법을 선호하였다. 물론 직접적인 복음 선포를 무시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구한말 직접적인 복음 사역보다는 간접적 선교 사업이 더 일반 대중에게 큰 의미를 주었다. 그 중에서도 교육, 의료, 출판, 사회개혁은 초기 개신교 성장에 두드러진 역할을 하였다. 또한 한·일합방 이전에는 선교사들의 조선에 대한 애정이 적극적이었다.

미국 장로교 선교부는 가톨릭이 조선에 들어온 후 쇄국정책으로 인한 참혹한 수난의 역사를 잘 알고 있던 그들은 조선 선교에 대하여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1882년 조·미수호조약과 1883년 조·영수호조약을 맺게 됨으로써 미국 선교부는 조선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파송할 선교사로 북장로회 선교부에서 파송 받아 중국 상해에 머무르던 알렌 의료선교사를 조선에 파송기로 했다. 알렌은 1858년 4월 23일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출생하여 1883년 마이아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0월 11일 의료

64) 論耶蘇敎, 『漢城旬報 24號』

65) 민경배, 『한국 기독교 사회운동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pp.95~105.

선교사로 상해에 파송되었다. 그는 1884년 6월 22일 선교부의 허락을 받아 1884년 9월 20일 제물포(인천)에 도착해서 9월 22일 서울에 왔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국내 선교가 금지된 상태라 정식 선교사의 자격으로는 입국하지 못하고, 미국 영사관의 공의(公醫)의 신분으로 입국하여 영국, 중국, 일본 영사관의 공의의 일도 보게 되었다. 1884년 12월 4일 갑신정변(甲申政變)이 일어나 개화파의 칼에 맞아 목숨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던 민영익(閔泳翊)을 알렌 의사가 3개월 동안 정성을 다해 완쾌시켰다. 이 사건으로 알렌은 고종과 민비의 총애를 얻어 고종의 어의(御醫)로 임명받았다. 고종은 알렌으로 하여금 궁성(宮城)을 자유롭게 출입하게 하기 위하여 당상 계통정대부(堂上階通政大夫)라는 벼슬을 주었다. 이는 알렌을 조선 양반으로 하기 위하여 궁성의 관례(慣例)를 고친 것이며, 더욱이 조선 국법(國法)하에서 3품(三品) 참판(參判)의 의무를 그에게서 덜기 위하여 특별법(特別法)을 적용하였다.⁶⁶⁾ 이로서 알렌은 합법적인 왕실의 御醫가 됐다. 알렌은 1885년 4월 9일에 조정으로부터 병원설립 허가를 받아 광혜원(廣惠院)을 설립하였으며, 후일 제중원(濟衆院)으로 개칭하였고, 이 병원이 세브란스병원의 전신이 되었다. 광혜원을 개원하여 많은 환자들을 서양의 신 의술로 치료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의 우호적인 반응은 선교의 길을 여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알렌은 왕실과의 두터운 신임으로 1897년에는 대리공사와 총영사로 임명되어 조정과 외교적 영향력에도 상당한 비중을 행사하였다. 알렌의 선교방법은 신중하여 국금(國禁)을 범하면서 선교활동을 하는 것을 꺼려했다. 그래서 언더우드 및 아펜젤러 등 선교사들과 선교방법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가 남긴 업적은 그 후에 입국한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을 돕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 알렌 선교사는 1905년 대리공사직에서 물러난 후 조선을 떠났으며, 귀국 후 고향에서 1932년에 별세했다.

66) 『승정원일기』, 고종 23년 5월 13일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1885-1916)와 아펜젤러(Henry Gerhart Appenzeller 1885-1902)는 1885년에 입국했으며, 언더우드(元杜尤)는 미국 북 장로회 소속 선교사로 아펜젤러(阿扁薛羅)는 미국 감리회 선교사로 부산을 거쳐 제물포(인천)를 통하여 입국하였다.

언더우드는 1859년 7월 1일 영국 런던에서 출생하여 13세 때 미국으로 이주했고, 1881년 뉴욕대학과 뉴브런즈윅(New Brunswick)의 신학교를 졸업했다. 1884년 7월 28일 선교사로 임명받아 그해 12월 16일에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다음해 1월 초에 일본에 도착하였다. 그는 일본에서 약 2개월 체류(滯留)하면서 당시 일본에 머무르던 조선인 신자 이수정⁶⁷⁾을 만나 그를 통해 조선말을 배웠다. 또한 그가 번역했던 성경을 가지고 1885년 4월 5일 인천을 통하여 26세 때 조선에 입국하여 알렌이 설립한 광혜원(廣惠院)(후일 제중원(濟衆院)으로 개명)에서 2년간 알렌을 돕기도 하며, 노방전도와 시골집 사랑방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 전도를 하였다. 1886년 7월 11일에 그가 전도한 노도사(魯道士)에게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다. 또한 1886년 5월 11일 남자 기숙학교(고아원)를 설립 하였다. 그가 조선에 입국한 지 2년이 지난 후 1887년 9월 27일 언더우드의 사랑방에서 14명의 신자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새문안교회’의 시작이었으며, 새문안교회 설립 당시 조선 최초로 서상륜과 백홍준을 장로로 임명했다. 그는 1916년 4월 신병치료 차 귀국 후 그 해 10월 12일 소천 하였다.

아펜젤러는 1858년 2월 6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손틸톤에서 출생하여

67) 이수정은 왕비 민씨의 조카이며, 임오군란(1882) 때 민비를 구출한 공으로 종4품 선략장군직을 하사 받았으며 임오군란의 뒤처리를 위해 파견된 박영호 수신사의 공식 수행원으로 일본에 도착한 이수정은 곧바로 쓰다센을 방문하여 친교를 돈독히 하면서 개신교에 관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는 조선인으로서 처음으로 일본에서 세례를 받은 첫 장로교인 이 되었다. 조선인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으며, 일본 내 최초의 한국인 교회를 설립하게 된다. 또한 루미스(H. Loomis) 목사의 성서번역을 제안 받고 신약성서를 착수한지 2달 만에 한글역이 완성되었다.

1882년 마살대학을 졸업했다. 1884년 목사 안수를 받아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와 함께 조선에 입국한 후 부부가 선교활동을 하면서 1885년 8월 배재학당(培材學堂)을 세워 다년간 교장직을 맡았다. 그는 우리나라 근대교육에 큰 공헌을 남겼으며, 1887년 10월 9일 정동에 ‘정동감리교회’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1902년 6월 12일 목포에서 열리는 성서 번역 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배를 타고 서해를 향해하던 차 거센 풍랑을 만나 배가 침몰하여 아펜젤러 선교사는 익사하였다.

데이비스(Joseph Henry Davies) 목사와 그의 누이 미스 데이비스(Miss Mary T Davies)양은 1889년 10월 호주 장로교회 소속으로 주로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상도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했다.

또한 100년 전 조선에 개신교 선교역사가 시작되었을 때 중요한 순간마다 언제나 여 선교사들이 있었고, 특히 교육·의료·사회봉사 등 여러 분야에서 여 선교사들의 활동이 크게 작용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과거 역사 속에서 그 시대의 가부장적이고 남성 위주 사회라는 특성 때문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모든 분야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여 선교사들에 대한 역사적 고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초기 조선에 입국한 여 선교사들의 활동이 조선사회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조선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시기는 미국의 선교역사와 맞물리는 시기였다. 이때 파송된 여 선교사들은 입국 초기부터 전체 선교사의 60%이상을 점하고 있었다. 1885년부터 처음 10여 년에 걸쳐 조선 백성들에게는 선교사에게 경계를 늦추게 하고, 미국인들에게는 조선 문화에 대한 문화 제국주의적 편견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문화 지킴이(cultural gatekeeper)기능을 담당하기도 했다. 조선에 주재해 있던 북미 출신 선교사들에 대한 통계를 보면, 여 선교사는 566명이었고, 또한 내한하여 조선에서 활동했던 기관들을 분야별로 보면, 교육기관에서 활동한 여성이 78.2%, 의

료기관이 19.4%, 복지관이 7%로 대부분이 교육 분야에서 일을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전체 선교사의 60%이상을 차지했던 여 선교사들은 주부, 또는 전문직 여 선교사로 조선에 들어와 교육과 의료사업을 통해 남성뿐만 아니라, 그 시대 무지하고 비참한 생활 속에 있던 조선 백성들에게 의식 구조와 생활의 변화를 가져옴과 동시에 조선 교회 성장의 초석을 마련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외국 여선교사들이 입국하여 행한 선교활동은 교육을 중심으로 시작했다. 그들이 선교활동의 중심으로 삼았던 교육은 학교 교육과 더불어 교회교육, 사회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 등에 관한 것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기에 충분했다.⁶⁸⁾ 이런 활동에 탁월한 능력을 보인 여러 명의 여 선교사 중 스크랜턴 부인, 페인 여사, 그리고 캠벨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째, 메리 스크랜턴(Mary Fletcher Benton Scranton 1832~1909)여사는 미국 북 감리교 여 선교부 선교사로서 1886년 5월 30일 이화학당(梨花學堂)을 설립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교육을 시작했다. 그녀의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William Benton Scranton 1856~1922)도 미 감리교회 의료 선교사로서 뉴욕의대를 졸업, 감리회 의료원 창설 선교사였다. 스크랜턴은 나이 50이 넘어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온 그녀는 남은 생애를 보람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동분서주 움직였다. 그는 1907년 선교부에서 나와 독자적으로 의료사업을 하다가 일본으로 건너가 1922년 고오베(神戸)에서 일생을 마쳤다.

둘째, 조세핀 페인(Josephine Ophelia Paine, 1869~1909) 선교사는 제3대 이화학당장을 역임했으며, 그녀의 열정적인 설교와 전도는 감동을 주었고, 여성 해방운동에 공헌했다. 40세를 일기로 1909년 9월 25일 해주지방

68) 김득룡, 『한국 기독교 교육 운동사, 한국기독교 성장 100년』, (서울: 기독교 문사, 1986), p.80.

전도사업 순회 중 콜레라로 별세하였다.⁶⁹⁾

셋째, 조세핀 캠벨(Josephine Eaton Peel Campbell 1853~1920)미국 남감리회 해외 여 선교부에서 조선에 파송하는 최초의 선교사로 45세인 1897년 10월 9일에 그녀의 중국인 양녀 여도라를 데리고 조선에 입국했다. 그 후 1898년 여학교인 ‘배화학당’의 전신을 창설하고 한글과 한문을 가르쳤다. 초기 수업 때 캠벨은 영어로 밖에 말할 수 없어 손짓, 발짓, 무언극으로 표현했는데, 이 교육은 춤을 추듯 한다 하여 발레 수업이라 했다. 그 후 1900년에 ‘루이스 워커 기념 예배당’이라 하여 오늘날의 종교 교회와 자교 교회의 모체가 되었다. 그는 안식년 때 얻은 신병으로 조선에 돌아와 악화되어 1920년 11월 12일 별세했다. 그의 비문에는 “내가 조선에서 헌신하였으니 죽어도 조선에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기록되어 있다.⁷⁰⁾ 외국 여 선교사가 조선 땅에 와서 행한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바로 의료 사역이다. 그 당시 비위생적 환경에서 오는 전염병과 여러 질병들을 헌신적으로 치료했으나, 오히려 환자는 고치면서 자신들은 그 병에 걸려 생을 마감하거나 자식과 배우자를 잃는 아픔을 겪는 선교사가 많았다. 이렇게 희생적이며 헌신적으로 사역을 한 대표적인 여 선교사로서 로제타 홀 선교사, 데이비스 선교사, 릴리아스 호튼 박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로제타 홀 (Rosetta Sherwood Hall 1865~1951)여 선교사는 감리회 의료선교사로 펜실베이니아 여 의대 졸업 후 입국하여, 상동시 병원, 평양 기흥 병원을 세웠다. 로제타는 남편과 딸을 잃었지만 어린 셔우드를 키우면서 조선 사랑을 실천해 갔다. 평양 기흥 병원에 근무하면서 여자 환자를 위한 광혜여원을 개원하였으며, 어린이를 위한 병원을 개원하였다. 처녀 때 본국에서 맹인용 점자사용법(New York Point)을 배운 적이 있는

69) 신호철, 『선교문화신문 126호』, 2004. 11. 07.

70) 신호철, 『上揭書』, 2004. 11. 07.

그녀는 평양에서 의료사업을 할 때 오 씨라는 보조원의 어린 딸 봉래가 앞을 보지 못하므로 그 아이에게 점자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 맹인 소녀에게 점자를 교육하면서 조선 최초의 맹인학교인 평양맹인학교를 세웠다. 후에 맹인학교를 확충하여 농아 교육도 시작하였다. 또한 박에스터(Mrs Esther Kim Park, 박점동)라는 조선 여성을 유학시켜 조선 최초의 여의사를 만들었으며, 지금 이화여대 부속병원이 로제타가 세운 병원이다. 또한 서울 경성여자 의학 전문학교를 설립했고, 현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이 되었다. 43년간 조선 사역을 인정받아 미국이 뽑은 200대 여인의 한 사람이 되었다.⁷¹⁾

둘째, 데이비스(1862~1903)여 선교사는 미국 남장로교 7인의 선발대로 온 선교사 중 처녀 선교사는 데이비스와 메티 선교사 둘이었다. 조선에 도착하여 호남선교를 준비하며 각 지역을 전도했다. 1896년 군산으로 가서 부인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시작하고 학교 사역을 담당하였다. 그 후 전주로 이전하여 헤리스 선교사와 결혼하여 그와 함께 약방을 개설하고 환자를 치료하며 선교했다. 한 해에 1885명을 전도하는 열매를 맛보기도 하였는데, 전주 예수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린 아이들을 혼신의 힘을 다해 돌보다가 그녀는 열병에 전염되고 말았다. 결국 데이비스는 그 병으로 41세의 나이로 1903년 6월 20일 소천 하였다. 동료 선교사들은 그녀를 가리켜 “생명을 바쳐 선교한 여장부”라고 하며 애도했다. 그녀는 호남지방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⁷²⁾

셋째, 언더우드 1세의 부인 릴리아스 호튼(1851-1921) 박사는 조선을 찾

71) 논문 : 「위생 의복론」, (예수교신보: 1907), pp. 13~14.

「기초적 위생」, (기독교신보: 1916), pp.26~22.

「The Life of Rev. William James Hall」, 1897.

노병선 역, 『賀樂醫員史蹟』, 1897.

현종서 역, 『닥터 윌리엄 제임스 홀』, (도서출판 에이멘: 1994)

72) 『한국 장로 신문 980호』, 2004, 12. 18.

은 첫 서양 여의사로 명성황후의 전담 의사로 활동하는 등 숨질 때까지 조선에서 의료활동을 하였다. 언더우드 가문의 4세인 원한광 박사는 2004년 11월 38년간의 한국 생활을 정리하면서 ‘언더우드가의 여성’이란 영문 기고문을 중앙일보에 보냈다.

“그녀는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향 시카고를 떠나 멀고 위험한 조선을 찾아 1921년 숨질 때까지 의료활동을 했다. 명성황후를 비롯해 왕족과 양반계급 여성들을 전담했다. 당시 미국에도 여의사가 적었으니, 그가 조선의 많은 여성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 짐작할 수 있다. 릴리아스는 서양 의학을 조선에 소개했으며, 여성도 남성처럼 똑똑하고 결단력 있고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 사회에서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조선 여성에게 일깨워 주었다. 그녀 외에도 언더우드2세 부인 에텔 반 와그너는 서울 외국인 학교를 시작하고 에텔 언더우드 소녀 고아원이라는 이름으로 고아원을 설립하였으며 49년 4월 집에 침입한 4명의 청년 테러리스트에 의해 살해됐다. 언더우드 3세의 부인 조운 데이비슨은 서울 외국인 학교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는 교사를 지냈고, 55년부터 76년까지 연세대 영문과에서 영어 회화와 글쓰기를 가르쳤다. 53년 그는 포켓 사전을 만들어 외국인들이 한국인들과 대화하는 데 있어 어떤 단어들 써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했다. 4세 낸시는 연세대 영문과 교수로 한국 학자들을 위해 영문으로 된 책들을 편집하고 수정했다.”⁷³⁾

그 밖의 양화진의 엘러스(Annie Ellers 1860~1938)여 의료 선교사는 보스턴 의과대학 재학 중 내한하여 광혜원 의사, 민비의 시의, 알렌의 보

73) 중앙일보 기사 2004.11.

조 의사로 일을 했고, 피터스 (Eva H Field Pieters 1868~1932)여 의료선교사는 노스웨스턴 의대 졸업 후 내한하여 1898년부터 제중원(세브란스) 부녀과에서 여자 환자들을 주로 치료하였다.

안나 야콥센(Anna P Jacobsen 雅各善 1868~1897) 간호선교사는 1895년부터 1897년까지 3년간 제중원에서 에비슨(Avison)병원장을 도우면서 환자들을 간호하고 간호사를 양성하며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 또한 영(Mable Barbara Young 1883~1935) 간호선교사 등이 구한말 우리나라에 입국해 의료선교를 했다.

영국 성공회(聖公會)에서는 1890년 코프(Bishop C. J. Corfe) 등 6명의 목사와 2명의 의사가 1891년 제물포에 최초의 성공회 교회당을 건립했다.

침례교회는 1889년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교에서 과송한 펜윅(Malcolm C. Fenwick) 선교사의 내한으로 선교활동이 시작되었으며, 1895년 미국 침례교회의 폴링(E. C. Pauling), 게이들린(A. Gadeline) 선교사들은 부산, 공주지역에서 활동을 했다.

제7일 안식교는 1905년 미국인 스미스(W. S. Smith) 선교사에 의해서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되었고, 구세군은 1908년 호가드(R. Hoggard) 선교사의 내한으로 국내에서 선교활동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初代 선교사들은 개신교를 비롯하여 성공회, 침례교, 제7일 안식교회, 성결교회, 구세군 등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이 수교 이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선에 들어왔다.

200여 년 전 한반도에 먼저 들어온 가톨릭과 비교하면 여러 차이점이 있겠지만, 먼저 선교사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개신교가 급속한 성장이 가능했다. 또한 국외적으로는 조선정부가 더 이상 鎖國政策을 유지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비록 대원군 일파가 민비 일파에게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다. 분명히 과거와 같이 서양 문물을 무조건 반대하고서는 건드릴 수 없도록 국내외 정세가 바뀌었던 이유도 있다. 여기

에다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야욕이 더욱 더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고종의 아관파천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의 세력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이것은 외국의 세력을 막고, 터부시 했던 100년 전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배경을 보여주었다. 국내적으로는 사회 개혁적인 집단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구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기반을 개신교에서 찾았다. 또 출세에 목적을 둔 일단의 무리들도 영어 공부와 신문물을 배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개신교를 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 점점 나라의 기운이 기울자 일단의 애국지사들은 개신교를 통해 나라를 구하고자 하였다.

인도 등에 진출한 영국 선교사들과는 달리 조선에 입국한 선교사들은 영적인 열심이 있었고, 정치적으로 자유롭게 본국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구령운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 또한 직접적인 복음전도도 하였지만 그보다는, 성경번역, 한글보급, 교육, 의료, 사회개혁 등을 통하여 일반 민중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접근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각 개신교 교파별로 분열하지 않고 어느 정도 협력하였기 때문에 초기 선교사들의 정착이 성공을 거두었다.

3. 선교사들에 대한(對韓) 인식

가. 가톨릭 선교사의 對韓 인식

오랜 박해에 시달리던 가톨릭교회는 조·불조약으로 인해 선교의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조·불조약 이후 선교사들은 최초로 종현 언덕에 성당 지을 땅을 합법적으로 구입하고 작업에 들어갔으나, 정부의 반대로 무산될

처지에 있었다.⁷⁴⁾ 그러나 블랑주교는 정부의 뜻에 순응하지 않고 정부와 2년 이상 긴 대립 상태를 거친 후 결국 목적을 달성했다. 그리고 이 성당을 시작으로 교우촌을 중심으로 한 소극적인 선교활동에서 벗어나 곧바로 전국적으로 본당을 건립했다. 각 본당을 중심으로 한 직접적인 선교활동을 추진하였다.⁷⁵⁾ 그러나 오랫동안 가톨릭을 멸시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던 조선인들에게는 가톨릭을 거부반응 없이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다. 아직도 신자들은 주민들로부터 동네에서 쫓겨나고 약탈을 당하며, 부당한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주민들의 의식이나 오랜 습관에 의한 가톨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선교사들이 각 지역에 들어가 본당을 세우고, 교세를 확장해 나가는 상태에서 선교활동은 필연적으로 마찰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선교사들이 전국적으로 선교활동을 시작하자 전국 각지에서 주민, 지방관청, 각종 사회단체들과 선교사들 사이에 많은 교안(敎案)⁷⁶⁾이 발생하였다. 선교사들이 조선인들의 가톨릭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불식시키지 않은 채 무리하게 교세를 확장하려는 직접적인 선교방법에 가장 큰 원인이 있었다. 이러한 갈등은 비록 법적으로는 선교사들의 활동과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 해도 조선의 내부 사정이 아직도 외국 선교사들에 대한 상당한 거부 반응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정부

74) 천주교 명동교회편, 『서울교구년보 I』 (1878-1903),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p.65.

75) 최석우, 『韓國天主敎會의 歷史』,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p.198.

76) “敎案”은 본래 유교적인 동양 전통 사회에 있어서, 개항 정책에 따라 서구 열강들과 외교적 관계가 맺어진 후 반 그리스도교의 사회 분쟁이 외교적인 절충을 통해서 해결된 사안을 일컫는다. 한국교회사 측면에서는 한불조약 이후부터 1905년 을사보호조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될 때까지 그리스도교로 야기되는 교회와 정부 간에 분쟁 그리고 그로 인한 외교적 절충을 교안이라 한다.

이원순, 『조선말기 사회의 교안연구』, 『韓國天主敎會의 歷史』,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86), p.169.

와 주민에 대한 공세적이고, 대항적인 선교정책이 필연적으로 갈등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구한말에 가톨릭 선교사들은 개신교 선교사들처럼 지방관청과 주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호의를 사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의도에 순응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다. 심지어 선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변 보호라는 명목하에 민간인을 억압, 폭행하는가 하면 더 나아가 발포까지 하는 극한 사례도 있었다.⁷⁷⁾ 따라서 외국 선교사들에게 배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던 조선인들에게 가톨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기는 힘들었다. 그러나 개신교 선교사들의 선교 방법은 가톨릭 선교사들과는 대조적이었다. 개신교 선교사들은 먼저 교회를 짓고 직접적으로 선교에 참여하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서 그들과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은 무조건 피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먼저 그들의 요구를 들어 주면서 그들의 환심을 얻은 후에 우회적으로 선교를 하는 간접적인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개신교 선교사들이 직접적인 선교를 하지 않고 주위를 살피면서 간접적인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가톨릭 선교사들은 이미 전국 각지에 본당을 세우고 적극적인 선교활동을 펴고 있었다. 본당 설립을 통한 교세 확장이 우선적 과제였기 때문에 개신교와 같은 사회 간접 활동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고, 오히려 개신교의 방법을 그릇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가톨릭 선교사들의 이러한 생각은 시대상황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 방법이었다. 직접적인 선교정책은 선교사들의 신자 증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세 증가 면에서 개신교에 뒤처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다.

77) 1895년 7월 원산의 Bret 신부가 민간인 배중현에게 총상을 입혔고, 1897년 칠곡 거주 프랑스인 Pailhasse 신부가 발포하여 살인한 사건이 있었다.
이원순, 『上揭書』, pp.179~182.

교황청 포교성성은 선교 지역들이 자체적으로 성직자를 양성하는 일에 중요성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또한 선교지의 문화와 풍습은 물론 그 나라 사람들의 심성을 잘 이해하고, 교회가 선교지역에 깊이 뿌리 내리고 성장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고 포교성성의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그들이 지니고 있는 예절과, 풍습, 그리고 관례가 명백히 종교와 윤리에 위배되지 않은 다면 그것을 바꾸려 하거나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프랑스나 스페인 또는 이탈리아나 다른 유럽 국가들을 중국에 그대로 이식한다면 이보다 더한 비합리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유럽 국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교 신앙을 전파하십시오. 이 신앙은 어느 민족의 의식이나 관습을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보존하고 사랑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민족 고유의 것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따라서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어느 민족의 습관을 바꾸려 한다면 반드시 대단한 증오와 분노를 유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관습과 유럽의 관습을 서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선교사들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관습에 익숙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칭찬할 만한 것은 칭찬하십시오. 그러나 칭찬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첨(阿諛)하는 찬양을 하거나 경솔한 판단을 함으로써 성급하게 단죄하는 일은 하지 않은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만일 어떤 관습이 명백하게 악한 것일 경우에는 말로써 보다는 자제와 침묵으로 일깨워 줄 것이며,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근절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78)

이러한 포교성성의 지침은 서구 문화를 중심으로 선교지의 문화를 판

78) J. Metzler(ed), 『Sacrae Congregationis de Propaganda Fide Memoria Rerum. 1622-1972』, Vol. III/2, (Germany: Herder, 1976), p.700.

단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최선을 다하여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적응하라는 것이었다. 서구의 그리스도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여 가톨릭교회가 그 나라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는 ‘적응주의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곧 선교의 방법은 ‘현지화정책’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뮈텔주교를 중심으로 하는 가톨릭 선교사들은 조선 문화와 전통 그리고 민족과 일체가 될 것을 추구하라는 본부의 현지화정책에 따라 선교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 그들은 성직자 양성 노력은 했으나, 자신들 보다 열등한 성직자 그리고 자신들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성직자를 배출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신학교를 발전시키고, 더욱 유능한 조선인 성직자를 키우고자 학생들을 지도할 훌륭한 교수를 초청할 의도도 없었다.⁷⁹⁾

교회는 전적으로 외국 성직자들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조선인 성직자들은 그들의 영향 아래에 있으면서 자주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조선에서의 선교정책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⁸⁰⁾

제8대 조선 교구장 뮈텔(Gustave Charles Marie Mutel 閔德孝 1854~1933) 주교는 1892년 11월 19일 일기에서 블라두 신부와 함께 외출했다가 성공회 수녀들을 만난 후 성공회 수녀들과 신부들을 수도자·성직자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블라두 신부와 함께 미국 공사관으로 브와스벤 씨를 예방했으나 만나지 못했다. 돌아오는 길에 성공회 수녀들과 마주쳐 지나가다. 그들은 어디서나 가톨릭 수녀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며, 성공회 선교사들 역시 이곳에서는 수단을 입고 망토와 로만 칼라를 하고 다닌다. ‘수염이 수도자를 만드

79) 지정환, “제54회 교회 간담회 〈뮈텔주교의 역사적 배경〉”, (교회와 역사, 제137호, 1986. 11), p.13.

80) 김구정, “3.1운동과 대구 유스티노 신학생”, (교회와 역사, 제122호, 1985. 8), p.10.

는 것은 아니다!’ (Barba non facit monachum) 더욱더 놀라운 일은 이 수녀들이 성 베드로를 후보성인으로 하는 한 수도회 소속이라는 점이다.”⁸¹⁾

가톨릭 선교사들은 또한 민족 우월의식을 갖고, 프랑스를 ‘기사도적인 기질과 관대함을 가진 나라’로 자랑하면서 프랑스 국민으로 행세하였다. 그런가 하면 ‘양대인’이라는 칭호를 즐기면서, 자신들이 1등 신부라는 의식에 사로잡혀 조선 신부를 차별대우 했다. 그들이 얼마나 민족 우월의식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안중근이 뫼텔 주교에게 대학 설립을 요청했을 때 “조선인이 만일 학문이 있게 되면, 교 믿는 일에 좋지 않을 것이니, 다시는 그런 말을 꺼내지 말라.”⁸²⁾

이와 같이 포교성성의 현지화정책을 무시한 가톨릭 선교사들은 격동기에 처해 있던 조선에서 교회가 대중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신자들에게 비민족적인 자세만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이 선교의 사명을 띠고 서구 문명사회를 벗어나 조선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과 더불어 문명적인 가치와 생활방식을 선택하도록 계몽하는 이중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

나. 개신교 선교사의 對韓 인식

조선 백성은 개화기에 조선에 들어온 그리스도교를 수용함으로써 그들의 정신세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리스도교라는 새로운 사상에 의하여 자아를 발견하는 동시에 국가와 민족의 문제도 관심을 기

81) 『뫼텔주교일기 I』,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86), p.92.

82) 안중근 저, 『안중근의사 자서전』, 이은상 역편, (서울: 안중근 의사 숭모회, 1979), p.56.

울이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암담한 현실 속에서 선교사들이 조선 백성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명해 본다.

둘째, 선교사가 조선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미친 영향을 알아본다.

셋째, 가톨릭 선교사와 개신교 선교사들이 대한(對韓)인식과 선교 방법의 차이점을 살펴본다.

고종은 1882년 미국과의 수교에서 얻은 만족감을 바탕으로 1886년 프랑스와의 수교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때 고종은 프랑스의 중심 종교인 가톨릭에 대해 깊이 있게 알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고종은 프랑스와 수교에 앞서 선교사 알렌에게 통역을 보내 프랑스의 가톨릭과 미국 개신교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했다.⁸³⁾

“오늘 아침에 국왕의 통역(通譯)이 와서 국왕의 질문이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했다. … 나는 이 같은 문제를 다루는 것이 나의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중국, 일본, 멕시코, 스페인 등지에서 가톨릭 포교 사업을 설명한 후, 나는 우리 미국 국민들은 독립 정신이 강한 국민이기에 우리를 위축시키는 어떠한 것에도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가톨릭을 믿는다면 우리 대통령도 교황의 간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다. 우리가 가톨릭을 받아들일 수 없는 세 가지 이유 가운데, 그 중의 첫째는, 우리는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떤 우상이나 인물을 숭배하는 것을 반대하는데 가톨릭은 여자이며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죄를 용서할 수 없다고 믿는데 가톨릭에서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리를 신부(神父)들에게 줌으로서 신부들을 타락시켰다고 하였다. … 셋째로 신부

83) 김명환, 「구한말 조선왕실의 개신교에 대한 시각 연구 논문」, (서울 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pp.35~36.

들도 다른 모든 남자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감정과 신체를 가진 사람인데, 그들이 내시(內侍)가 아닌 바에야 여인들이 그들을 찾아가서 은밀한 생각과 죄과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은 안전한 일이 못된다고 하였다.”⁸⁴⁾

알렌은 통역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전갈을 보냈다. 그는 고종에게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미국을 예로 들면서,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개신교에 있어서 우수한 점만을 부각시켰다.

또한 알렌은 1885년 6월 17일 자신의 일기에서 고종과 민비의 충애를 전폭적으로 받고 있음을 아래 내용에서 알 수 있다.

“국왕은 오늘 나에게 말 두 마리를 하사했다. 이 말들은 병원 제증원에서 쓰일 말들인데 나에게 보내진 것이다. 지금 병원 일을 도와주고 있으며 매사에 추악한 방법으로 질투심을 보이고 있는 스크랜튼 박사가 국왕이 내린 말 두 마리 중 한 마리를 자기가 가지겠다고 나섰다.”⁸⁵⁾

알렌은 명성황후가 병을 앓았을 경우 그의 치료를 위하여 거처 안까지 들어가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전통적인 조선사회에서 남자가 왕비의 치료를 위하여 자유롭게 궁정을 드나드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다.

1887년 조선을 둘러싼 열강(청.영.러)의 다툼은 왕실로 하여금 위기의 타개책을 모색하게 만들었다.⁸⁶⁾ 고종은 1887년 6월 29일 협판내무부사(協辦內務府事) 박정양(朴定陽)을 전권대신(全權大臣)으로 미국 워싱턴에 특파하였다.⁸⁷⁾ 이러한 조치는 미국과 통상을 증진함으로써 조선의 개화와 自強을

84) 『Allen Diary』, May 9, 1886.

85) Allen Diary, 『上揭書』

86) 李基白, 『韓國史新論』, p.176.

87) 文一平, 『韓美五十年史』, (서울: 韓光社, 1945), p.176.

촉진하려고 했다. 이에 따라 박정양은 고종의 뜻을 받들어 미국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체계적인 미국견문기(美國見聞記)인 『미속습유(美俗拾遊)』를 집필하게 되었다.⁸⁸⁾ 1889년 7월 24일에 귀국하여 방정양은 고종에게 미국 정세와 동향을 담은 『미속습유(美俗拾遊)』를 올렸다. 그 중 박정양이 미국의 개신교에 대하여 기술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야소교(耶蘇敎)를 대중(大宗)으로 삼으며, 그 나머지는 천주교(天主敎)와 유태교(猶太敎) 등으로써 이들은 구주(歐州)에서 받드는 것입니다. 각기 받드는 종교는 인민(人民)이 수의(隨意)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합니다.…”

일천팔백팔십년(一千八百八十年) 전국(全國)의 야소교(耶蘇敎)의 교회당 숫자는 오천구백칠십오처(五千九百七十五處)이며, 야소신교(耶蘇新敎)의 교회당 숫자는 팔만 육천일백삼십이처(八萬六千一百三十二處)입니다.… 매주 일요일(日曜日)마다 남녀 기백인(幾百人)이 다투어 그 교회당에 갑니다. 거기에는 교사(敎師), 기인(幾人)이 송경(誦經)하고, 연설(演說)하는데,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잠잠히 청취(聽取)합니다. 이는 모두 권징도선(勸懲導善)의 규(規)라고 할 수 있습니다.”⁸⁹⁾

이상의 내용을 보면 박정양은 미국의 개신교와 가톨릭의 교세를 상세하게 조사하여 알고 있었다. 그는 개신교를 미국 주류(主流)의 종교로 기술하고 있다. 고종으로 하여금 개신교가 권징도선(勸懲導善)의 규(規)를 내포하고, 도덕과 윤리적 관점에서 긍정적인 종교로 인식하도록 기술하고 있다.

민비가 개신교에 대해 알게 된 것은 1894년 자신의 시의(侍醫)로 있던

88) 韓哲昊, 『親美開化派研究』, (서울: 國學資料院, 1998), pp.41~42.

89)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박정양전집 卷6』,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4), pp.611~612.

릴리어스 호튼(Lilias Horton) 선교사와 대화를 통해서였다. 이 두 사람은 1888년 가을 호튼이 민비를 한 번 진찰한 뒤부터 급속히 친해졌다. 그러나 궁중에서 왕비와 시의(侍醫)로 있는 선교사가 공공연하게 종교를 화제(話題)로 대화를 한다는 것은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민비의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왕비는 크리스마스 전날에 나를 불러서 우리의 위대한 축제가 가지고 있는 그 기원과 의미, 그리고 축하하는 방법 따위를 물었다. 누가 이보다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복음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천사들의 합창과 별들에 대하여, 그리고 말구유에 누운 어린 아이에 대하여, 속죄 받아야 할 버림받은 세상에 대하여,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을 원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다. 왕비는 깊은 흥미를 느끼며 내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다. 그녀는 때때로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임금과 세자 이야기로 몸을 돌려 지극히 활기차고 자애로운 표정으로 내 말을 되풀이 하곤 했다. 며칠 뒤 왕비는 미국에 대하여 많은 것을 묻고는 웬지 서글픈 목소리로 말했다. ‘아, 조선도 미국처럼 그렇게 행복하고 자유스럽고 힘이 있다면! 나는 여기서 미국이 비록 부유하고 강한 나라이기는 하지만 가장 강하고 훌륭한 나라, 무한한 영광과 기쁨만이 있는 나라를 보일 기회를 다시 한 번 얻게 되었다. (中略)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용서받을 수 있고, 깨끗해지며 따라서 이 나라를 신성하게 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왕비는 사려 깊게 내 말을 들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으나, 그 일로 왕비에게 구원의 방법을 분명히 지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말할 수 없이 고마웠다.’” 90)

90) L. H Underwood.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pp.114~115.

위의 대화 내용을 통해 왕비가 미국과 새로운 종교에 관한 호기심이 대단함을 알 수 있다. 그녀는 호튼과의 거침없는 대화를 통해 개신교의 유래를 알고 부강한 미국에 대한 한없는 부러움을 나타냈다. 그리고 왕비의 獨白은 왕실의 보전과 안위(安慰)를 걱정하는 말로 가득하다.

고종은 명성황후(明成皇后 1851~1895)가 일본인 폭도들에 의하여 시해(弑害)당한 후에는 선교사들로 하여금 왕실을 지키게 하였으며,⁹¹⁾ 음식에 독약이 들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선교사들이 차려 주는 음식만 먹을 정도로 고종은 선교사들을 신뢰하였다. 이와 같이 선교사들이 쉽게 선교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왕실과의 두터운 친분관계 때문이기도 하였다.

조선에 입국한 선교사들이 선교지 조선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일차적인 관점은 조선을 근대 문명의 이기주의나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은 선교의 처녀림으로 조선을 인식하고 있었다. 언더우드(John U. Underwood)는 조선에 도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심정을 담은 말을 다음과 같은 기도문 한편을 남기고 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 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들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 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 인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 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

한 벽안의 이국인에게 조선은 인습과 가난의 깊은 어두움에 잠겨 있는 은둔의 나라였다. 그것에 대한 시적 표현으로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나라...” 조선의 형국은 이국인의 눈에는 참담하고 피폐함, 그리고 고집스

91) I. B. Bishop, 『Korea and Her Neighbours』, (Seoul: Reprinted by Yonsei University Press, 1969), p.279.

러움으로 비쳐지는 암담한 형편이었다. 그러나 조선인들에 대한 초기 선교사들의 대한(對韓) 인식이 또 다른 한 단면은 비록 현재적 시점에서 암담함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 미래적 가능성에 대하여 상당히 괄목(刮目)할만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초기 선교사들이 조선에 발을 들여 놓기 이전 그들이 이미 한글로 번역된 성서를 손에 넣는 과정에서부터 느낄 수 있었던 조선과 조선인에 대한 인상이었다.

언더우드도 선교 초기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처음 출발에서부터 조선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달리 개신교를 수용할 자세를 보였다.” 암담한 현실에 대한 선교사들의 처방은 개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⁹²⁾ 마서 헌트리는 언더우드와 알렌의 선교방식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여 분석했다. 선교사는 주된 목적이 ‘福音宣布’에 있으나, 한편으로는 종교인의 양심에 따라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가난한 자나 무식한 자나 병든 자들을 처참한 곤경에서 구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선교를 펼쳐 나갔다. 무엇보다도 언더우드는 조선사회의 각계각층과 조선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였다.⁹³⁾ 그러나 알렌은 제중원 중심의 사회봉사, 그리고 미국 공사의 지위를 이용한 고관세력과의 밀착을 통한 선교와는 달리 언더우드는 서민 중심의 선교활동을 마서 헌트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처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알렌을 비롯한 장로교 선교사들은 정부의 호감을 얻고 수구파(守舊派)의 반대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하였다.

감리교 선교사들은 이와는 좀 달리 조선인의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선교활동 초기부터 실시하였다. 그래서 시내 여러 곳에

92) 이상훈, 「舊韓末 美 改新教 宣教師들의 對韓 인식」, (정신문화연구 제 27권 제2호 통권95호, 2004), pp.138~139.

93) Martha Huntley A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 in Korea, 車鍾淳 역, 『韓國改新教 初期의 宣敎와 敎會成長』, (목양사, 1985), p.31.

병원과 진료소를 세우고 교육 사업을 시작하면서 인원과 재정을 증가시켜 나갔다. 그리고 민중과 보다 긴밀한 접촉을 갖기 위하여 정동을 떠나 가난한 빈민이 사는 남대문으로 병원을 옮기고, 그들에게 무료로 치료도 해주면서 점차 민중들이 개신교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켜나갔다.⁹⁴⁾

개신교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활동이 정부나 일반 민중에게 오해받을 여지가 있는 것은 무조건 회피하고자 했다. 그래서 그들은 외국인들에게만 부여되어 있던 종교 행사도 자제하였다. 종교 행사가 있을 때에는 정부에 정식으로 보고를 하면서까지 신중하게 행동을 하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병원과 학교를 통하여, 개인과 사사로운 대화를 통하여, 선교를 조용히 진행하여 나갔다. 이렇게 은밀하게 선교활동을 하다가 1886년 조·불조약 이후 가톨릭이 선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자 개신교 선교사들은 3차례의 내륙 답사 여행을 실시한 후 사랑방에 머물며 민중들과 접촉을 하면서 성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법으로 은근히 선교활동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⁹⁵⁾ 그러나 정부의 금교령이 내려지자 이에 복종하고 서울로 돌아와 모든 종교 행사를 금지하였다. 개신교 선교사들의 이러한 신중한 행동과 간접적인 선교는 외국인 선교사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들은 정부와 타협하는 자세로 민중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활동을 하면서 생활을 안락하고 사치스럽게 하여 민중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잘사는 원인이 개신교 때문이라는 것으로 보이기를 원하고, 개신교의 가치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였다. 개신교 선교사들의 이러한 태도는 효과를 나타내어 민중들은 개신교를 힘의 종교로 인식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출세를 하기 위해서라도 개신교에 입교하는가 하면, 지식인들은 민족운동을 전개하고자

94) 이덕주, 「스크랜톤의 민중선교와 한국교회의 민족운동」, (한국기독교사연구 제23호), 1988, pp.8~12.

95) R. E. Shearer. 『Wildfire: Church Growth in Korea』, (Michigan: W.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6), p.46.

개신교를 선택하기 시작하였다.⁹⁶⁾ 이것은 결국 개신교의 간접적인 선교정책이 가톨릭의 직접적인 선교정책보다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민심을 획득해 나가면서 점차 개신교의 다른 선교 단체들도 속속 입국하여 체계적으로 조선인들에게 접근하여 나갔다.



96) 이만열, 『한말 기독교와 민족운동』, pp.63~74.

IV. 선교정책에 따른 선교사들의 교육 · 의료활동

1. 가톨릭 선교사들의 교육 · 의료활동

가. 교육활동

가톨릭 선교사들이 입국하여 선교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교육 활동의 목적과 방법이 조선 백성들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백성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하고 발휘하는데 영향을 미친 사실을 규명하는데 본 장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밝힐 연구 과제는 첫째, 가톨릭이 각 지역에 개교한 학교와 設立精神 둘째, 가톨릭이 당시 조선사회에 남긴 공헌 셋째, 선교활동에 의하여 전개한 구체적인 민족교육에 관한 내용 넷째, 가톨릭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당시의 어려웠던 시대적 상황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육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그 시대의 요청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舊韓末 新教育이 받아들여지게 된 것도 그와 같은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요청이 있어서 가능했고,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오랜 박해를 받아왔던 가톨릭 대다수의 신자들은 성직자들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수동적이고, 비자주적 이었다. 따라서 선교사들이 추진하

는 교육활동도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이러한 활동을 후원할 인적·재정적 능력도 결여되어 있었다.⁹⁷⁾ 그러나 1900년대에 접어들면서 신자들 가운데 국권회복의 일환으로 교육 사업에 동참하는 이들이 나타났다. 예로, 안중근은 을사조약 강제 체결 직후 국권회복의 방책을 세우기 위해 상해로 갔다. 그 곳에서 만난 르 각(Le Gac)신부로부터 무력적 반항을 포기하고 국내로 돌아가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사회와 백성들이 단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충고를 받았다. 그리하여 그는 진남포에서 삼흥학교(영어 야학)를 운영하였고, 숙의학교의 2대 교장을 역임하는 등 애국계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⁹⁸⁾

19세기 말 조선사회의 근대적 교육이 쉽게 받아들여진 요인을 열거해 보면 첫째, 일본과 중국을 통한 서양 문화의 소개 둘째, 선교사들의 來韓 셋째, 조선사회를 근대화하려는 개화파 인사들의 노력 넷째, 國權을 수호하려는 애국지사들의 열정 등을 들 수 있다.⁹⁹⁾

구한말 가톨릭의 기본 교육이념과 학교설립 목적을 살펴보면, 교황 Paus Pius XI은 “그리스도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참되고 완전한 크리스찬을 양성하는데 있다.” 고 밝힌 바 있다. 선교사들은 異邦人을 독실한 신자로 만들어 믿어 순종케 함을 근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톨릭계 학교의 사명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宣言된 다음 글에서도 구체적으로 증명된다.¹⁰⁰⁾

97) 盧吉明, 「舊韓末 프랑스 선교사의 社會·文化活動」 『교회사연구 제5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87, p.121.

98) 趙珖, 「안중근의 조국 계몽운동과 독립전쟁」, 『교회사연구 제9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4, pp.76~78.

99) 車京守, 『開化期 敎員의 社會的 役割과 敎師像』, (韓國敎育研究所, 韓國精神文化研究所, 1980), p.310.

100) 제2차 바티칸 公議會, 『그리스도교적 敎育에 관한 宣言, 第18項』, (서울: 韓國天主教中央協議會, 1967)

“학교 내의 자유와 사랑의 복음적 정신으로 충만한 학교 공동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과 청소년이 자기 인격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聖洗로 말미암아 새로운 被造物이 된 . …(後略)”

윗글의 내용은 가톨릭 학교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 시대적 상황에 개방적 태도로서 사회복지에 기여할 것을 그 사명으로 하고 있다.

조선에 1906년에 설립된 가톨릭계의 대표적인 학교인 三愛學校와 聲濟學校의 교육목적을 살펴보면, 三愛學校는 첫째는, 天主를 사랑함이요. 둘째는, 임금을 사랑함이요. 셋째는, 사람을 사랑함을 목표로 삼았다. 聲濟學校 역시 첫째는, 愛主요. 둘째는, 愛國이요. 셋째는, 愛人임을 알 수 있다. 구한말 국운이 기울어가는 때에 선교사들은 愛主, 愛國, 愛人을 교육목표로 이 땅에 젊은이들을 교육했다. 당시 가톨릭계 학교들 대부분이 가톨릭 성당 안에 학교를 운영하였다. 그 이유는 이중적인 목적을 지녔는데, 교육을 통한 傳敎의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조선의 개화기에 가톨릭은 민중 啓蒙運動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서구 문명이 개방되어 가면서 사회화의 과정을 겪고, 이에 소외된 백성들의 문명을 퇴치하고, 과학기술의 이해와 습득을 위해 교회와 선교사들이 앞장을 섰다. 이런 취지하에 선교사들은 모든 백성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세워나갔다. 어린이들에게 의무교육을 강조하면서 각 동네마다 소학교를 세우는가 하면, 낮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야간학교를 세웠다. 김해에 농군학교, 영천과 고산의 노동야학교, 신천의 측량학교, 진남포 야학교 등 전 국민의 생계를 위한 직업교육이라는 목적을 띠고 설립된 학교들이다. 이러한 학교를 통해서 선교사들은 유교적 전통사회에서 경시했던 상(商), 공(工)에 대한 가치를 강조하는 실업교육을 실시하여 낙후된 조선을 개화하고자 하였다.

<표 4>에서 1890년대 이후 교육활동과 지방에 분포된 학교들을 분석하고, 당시

가톨릭의 교육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시기에 가톨릭계 학교의 증가 현상을 당시 「朝鮮敎區 統計 報告書」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¹⁰¹⁾

<표 4> 가톨릭系 學校 및 學生 數의 各 道別 累計(1894-1909年)

道別 年度	서울		경기		충청		강원		전라		경상		황해		평안		함경		계		학교 당 학생 수
	학 교	학 생	학 교	학 생	학 교	학 생	학 교	학 생	학 교	학 생	학 교	학 생	학 교	학 생	학 교	학 생	학 교	학 생	학 교	학 생	
1894	3	65	1	15	4	25	4	25	6	35	2	32	-	-	1	12	-	-	(21)	(209)	(10)
1895	3	60	3	43	2	8	5	21	6	32	3	36	-	-	1	10	-	-	(23)	(210)	(9)
1896	3	98	2	18	5	30	4	16	3	23	3	48	1	15	2	25	1	13	24	286	12
1897	4	86	2	12	7	39	3	14	11	32	5	60	1	14	2	31	1	0	36	288	8
1898	4	54	4	38	11	33	3	17	6	18	5	68	1	12	1	18	7	15	42	273	7
1903	3	124	17	114	10	40	9	52	28	102	7	87	5	65	2	27	6	67	87	678	8
1909	4	325	28	551	6	156	19	217	17	236	8	257	29	527	16	432	4	82	131	2783	22

(- 표는 把握 되지 못한 것, 따라서 ()표는 正確한 合計가 아닌 것)

위 표를 보면 가톨릭계 학교들이 서울보다 지방에 설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서울에는 학교 수가 적으나, 학생 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학교 수가 제일 적은 도는 함경도이며, 제일 많은 도는 경기도와 황해도였다. 또한 당시 정확한 통계를 잡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학교의 기준을 어디까지로 정하느냐는 문제도 있었을 것이다. 당시 각 지방에 설립된 사립학교가 폐지되는 주된 이유가 제정 문제였다. 반면에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학

101) 가톨릭시보, 「天主教 朝鮮敎區 年末統計」 1894~1910년에 정리함.

李元淳, 「韓國天主教敎育事業의 敎育史的 意義」, (司牧, 1979年 9月號), p.21.

교는 지방 주민들의 지원으로 번창하는 학교들도 많았다. 진안군 여면 어운동에 있는 영신학교는 가톨릭에서 세운 학교로서 주민과 교인들의 보조금으로 운영되었다. 또한 몇 달 만에 학생 수도 40여 명에 달했으며, 1909년 9월에 정부인가도 받았다. 또한 전라북도 여산에 있는 계명학교 운영 실태를 보면 설립 1주년인 1909년 학생 수가 50명이나 되었다. 교장 김두환은 설립 초부터 학교에 매년 10환씩 보조해 가난한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했다.¹⁰²⁾

1882년 9월 조선교구 6대 교구장이던 리델(Felix Ridel 李福明 1830~1884) 주교가 종현(현 명동)성당 관할인 인현동에 인현서당을 세웠다. 1883년 8월에는 인현서당을 종현으로 옮겨 종현성당 한한학원 또는 종현학원 등으로 불렸는데, 이 서당은 가톨릭교회의 전액 부담으로 운영되면서 1886년에는 40명가량의 학생들에게 국어와 한문 읽기, 쓰기 등을 가르쳤다. 그 후 1906년에 본당 신부였던 프와넬 (Victor Poisnel, 朴道行, 1855~1925) 신부의 적극적인 재정 후원과 신도인 최봉섭의 협조를 얻어 종현학원을 개편 확장하여 비로소 신식 교육기관인 계성지정보통학교로 탈바꿈하였다. 한편, 이 서당은 1909년에 계성초등학교로 공식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 학교는 구한말에 발간된 ‘경향잡지’와 같은 교회 잡지에 1906년부터 기사화되기 시작했다.¹⁰³⁾

1895년 약현(현 중림동) 성당에서는 약현서당을 통해 어린이들을 교육했다. 그 후 1901년에는 두세(Doucet) 신부가 여학교를 설립했으며, 당시 학생은 30여 명 이었고, 2명의 한국인 수녀가 교리, 경문, 바느질 등을 가르쳤다. 1906년에는 남자학교 건물을 새로 신축하고 학교명을 약명(藥明)학교로, 여학교는 가명학교라고 하였다. 이들 2개의 학교는 1909년 가명(加明)

102) 京郷新聞, 1909. 2. 5.

103)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100년사』, (분도인쇄소, 1991), p.793.

학교로 통합되었으나, 6·25 동란으로 인하여 폐교되었다.

1898년에 황해도 매화동 본당의 우도(Paul Oudot, 1865-1913) 신부는 종교 교육과 문맹퇴치를 목적으로 봉삼학교를 설립하였다. 봉삼학교는 안악 지방에서 1899년 45명의 남학생들에게 교리 공부와 한문을 가르쳤으며, 여자부에서는 기도문 이외에 한글과 가사를 가르쳤다. 1907년 이 학교는 초등교육기관으로 정식 설립되었고, 2년 후에는 사립학교 인가를 받은 후, 샬트르 수녀회 수녀들을 초청하여 여학생들의 지도를 맡겼다. 수녀들은 1912년부터 우도 신부의 장례로 양잠 강습소를 개설하여 양잠 기술을 널리 보급하여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도 하였다.¹⁰⁴⁾

1899년 인천 제물포 성당에 샬트르 수녀원이 설치되면서부터 수녀들은 꾸준히 보육원 원아들과 신자들의 자녀 및 무산아동(無産兒童)들을 모아 가르쳤다. 평양 관후리 본당의 2대 주임 신부인 르메르(Louis Le Merre, 1858~1928) 신부는 1905년에 평양 관후리 본당 내에 남자 교육기관인 기명학교를 설립하고, 이듬해 5월 1일에는 여학생들을 위한 성모여학교를 세웠다. 그리고 1909년 봄, 사제피정 후 샬트르 수녀회 스타니슬라 원장 수녀에게 학교 교사로서 일할 수녀들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한편 수녀들은 낮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틈틈이 학부모들과 주민들을 상담하였다.¹⁰⁵⁾

황해도 재령 본당의 초대 주임으로 부임한 르 각(Le Gac) 신부는 선교의 전 단계로 교육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1899년 한문서당을 개설하였는데, 이것이 모성 학교의 전신이 되었다. 그 후 2대 주임 멜리장(Melizan) 신부가 부임하면서 개신교의 교세가 급격히 신장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신식 학교의 설립·운영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그 때까지 운영해 오던 한문서당을 개화된 신식 학교로 바꾸고 교명을 모성 학교로 하였다.¹⁰⁶⁾

104) 『上揭書』, p.970.

105) 『上揭書』, p.967.

평양교구 진남포 본당은 가난한 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1900년에 돈의학교를 설립하였다. 초대교장 이평택(파트라치오)을 중심으로 착실하게 성장한 돈의학교는 2대 교장 안중근(安重根, 토마스)을 맞아 더욱 충실하게 성장하였으며, 민족운동에 크게 기여하는 전통 있는 학교가 되었다. 1908년 교사를 증축하여 300여 명을 교육시키는 커다란 학교로 발전하였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에 일어났고, 이에 따라 본당 주임 르레드(Jules Lereide 申) 신부가 본국으로 소환되어 가면서 재정난을 이기지 못하고 1916년 폐교하였다.¹⁰⁷⁾

1901년 수원 교구 왕림 본당의 앙드레(Jacques Andre 1861-1890) 신부가 성당 뒤에 ‘삼덕학교’(三德學校)를 세워 가난한 이들을 교육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후에 ‘광성초등학교’로 발전하였다.

수원 교구 장호원 본당의 초대 신부였던 부이용(Camille Bouillon 1869-1947) 신부는 한 때 민비가 피신해 있던 충주목사 민응식의 집이 의병과 일본인들과의 격전으로 거의 불타 버리자, 남은 집을 헐값에 매입, 1896년 12월 5일에 조선식 건물로 임시 성당을 지었다. 1907년부터는 ‘매괴학당’을 설립하여 남학생들을 모집했고, 곧이어 여학생도 모집하여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교재로 『동국사략(東國史略)』과 『유년필독(幼年必讀)』을 사용했다. 통감부의 일본인 관리들로부터 금서를 가르친다 하여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학생 수가 점점 증가하여 60명에 달함으로 교사가 비좁아지자 1908년 3월에 학교를 크게 세워 성대한 낙성식을 거행하는 발전을 보였다. 이어 여학교도 설립하였는데, 수녀들의 필요성을 절감한 부이용 신부는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의 수녀들을 초청하여 여학교는 1912년 10월 7일 매괴축일에 개교하였다.¹⁰⁸⁾

106) 한국가톨릭대사전편찬위원회, 『한국가톨릭대사전』,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88), p.394.

107) 『上揭書』, p.305.

1908년 수원 교구 이천 본당은 염산리에서 이천읍 내의 개하리로 본당을 이전하는 한편 그 해에 ‘경천애국(敬天愛國)’을 교훈으로 한 ‘명의(名義)학교’를 설립하였다.¹⁰⁹⁾

1909년 조선 교구장 뮌텔 주교의 요청에 따라 성 베네딕토 수도회가 조선에 진출해 1911년 당국의 설립인가를 받아 최초의 사립 사범학교인 ‘송덕사범학교’를 서울에 세우고 23명의 학생으로 개교하였다.¹¹⁰⁾

1909년 프랑스 라크루(Marcellus Lacroux) 선교사가 제주도의 가난한 집안의 어린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신성학교’를 설립하였다. 이 학교는 현재의 신성여자중·고등학교의 전신이다.¹¹¹⁾ 이때 창립된 학교로는 1892년 경기도 華城의 光星學校¹¹²⁾, 1896년 橫城의 光東學校¹¹³⁾, 博文學校와 서울에 설립된 藥峴學校 등이 기록에 남아 있다. 학교의 대부분은 신부에 의해 설립이 되었고, 일부는 信徒나 有志들에 의해 설립·운영되었다.

가톨릭계 신학교로는 1856년 제천의 배론신학교가 국내 신학교의 첫 출발이다. 그 규모는 작고 초라하기 그지없었으나, 敎科나 敎師의 資質面에서 볼 때 최초의 서구식 교육을 한 곳이었다. 학생 수는 불과 10여 명 이었다. 교육과정은 漢文, 敎理, 一般常識, 라틴어, 修辭學 등이었다. 傳敎의 자유권도 얻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비밀리에 운영이 되다가 丙寅迫害 때 교장 뿌르띠 신부와 3인의 교사가 순교하였다.¹¹⁴⁾ 龍山神學校는 강원도 원주에 설립을 했으며, 1880년 11월에 입국한 류비에

108)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前揭書』, p.793.

109) 포교 성 베네딕토 수녀회, 『원산수녀원사』, (왜관 분도 인쇄소, 1987), p.247.

110) 한국교회사연구소, 『교회와 역사 98호』, p.8.

111) 한국가톨릭대사전편찬위원회, 『前揭書』 p.722.

112) 이 학교는 1892년 프랑스 알릭스신부에 의해 설립 되었으나, 1981년 운영난으로 폐교.

113) 韓國天主教 中央協議會, 『天主教年監』, 1960.

114) 『高宗時代史 券1』, p.183.

(Liouville, 柳達榮) 신부가 원장으로 취임한 후 학생 수가 증가했고, 후일 용산신품학교로 교명을 바꾸었다.

구한말 가톨릭에서는 신학교육을 제외하고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은 매우 소홀하였다. 그것은 선교사들이 교육을 통한 지도자 양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시급함을 느끼지 못했다. 때문에 가톨릭에서 운영하던 사립학교의 교사들은 정식 교원이었다기보다는 학생들에게 간단한 기초 지식과 함께 교리를 학습시킬 수 있을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갖춘 평신도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일정한 급여를 받지 않고 교사를 자원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독특한 교수법을 가지고 있다든가, 뛰어난 지적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처럼 사립학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대 학문을 교육받은 교사의 절대적 부족은 교육활동의 질적인 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다. 교원 수급의 어려움을 뒤편 주교가 파리로 보낸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새로운 학교들이 진남포와 원산에 설립되었습니다. 여러 선교사들, 특히 우리도 신부와 부이수 신부는 신학교를 건립하기 위해 교우들 중에서 기부금을 모금하였습니다. 그들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교우들은 그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그 같은 것을 실행하는데 즉시 대두되는 첫째 어려움은 교사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럽게 그들의 임무를 다할 수 있을 만큼 교육받은 교사는 극히 소수입니다. 어린이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을 위해 사범학교의 필요성이 통감되고 있습니다.” 115)

가톨릭은 男女平等原理에 입각하여 男尊女卑思想을 타파하는데 앞장섬으로써, 여성을 전근대적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선구적 역할을 했다. 당시

115) 한국교회사 연구소 편, 『서울교구연보 II』, (천주교 명동교회, 1987), p.54.

가톨릭에서는 여성교육에 필요한 교과목으로 國文, 漢文, 算術, 歷史, 地理 등을 교육하였다.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이와 같은 기초적인 학습뿐만 아니라 여성의 생업에 요긴한 바느질, 청소, 세탁, 유아법, 자수, 비단짜는 일 등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¹¹⁶⁾

<표 5> 宗派別 道別 學校 數 (1910年 2月)

道別	學 校 數	長老教會			監理 教會		聖公會		安息 教會	各派 合同	가톨릭		改新教		佛 教	教 師 數
		韓 人	美 人	英 人	韓 人	美 人	韓 人	英 人	美 人	美 人	韓 人	佛 人	韓 人	美 人	韓 人	
漢城府	24	0	4	6	0	9	0	0	0	1	1	2	1	0	0	82
京畿	41	0	7	0	2	21	0	2	0	0	1	3	5	0	0	85
忠南	18	0	0	0	0	2	1	0	0	0	0	2	13	0	0	27
忠北	7	0	6	0	0	0	0	1	0	0	0	0	0	0	0	10
全南	3	0	2	0	0	0	0	0	0	0	0	0	0	1	0	5
全北	32	1	3	0	0	0	0	0	0	0	1	3	22	2	0	41
慶南	17	0	3	5	0	0	0	0	0	0	0	0	6	0	3	29
慶北	74	8	53	0	0	0	0	0	0	0	1	1	10	0	1	79
江原	4	0	0	0	0	0	0	0	0	0	2	2	0	0	0	7
黃海	183	0	133	0	0	37	0	0	0	0	5	4	4	0	0	219
平南	261	0	159	0	0	78	0	0	2	0	9	8	4	0	1	337
平北	121	53	42	0	0	9	0	0	0	0	1	0	16	0	0	164
咸南	16	0	0	16	0	0	0	0	0	0	0	0	0	0	0	81
咸北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計	801	62	412	27	2	156	1	3	2	1	21	25	81	3	5	1,116
宗派別		501			158		4		2	1	46		84		5	

교회 통계에 의하면 1910년 124개교에 3,048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가운데에는 비정규 학교인 교리학교가 다수 포함되었을 것으로

116) “녀인들이 공부(론설)홀,” 「경향신문」 제87호, 1908년 6월 12일,

추측된다. 그런데 통감부에서 조사한 내용이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톨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46개교에 불과하다고 발표하였다. 가톨릭계 학교를 지역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때,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간도 등 서울 이북 지역에 설립된 학교가 36개교로 전체의 56.25%가 된다. 특히 1907년 이후만 놓고 볼 때, 46개 중 29개교, 63.04%에 해당하는 학교가 서울 이북 지역에 설립되었다.

書堂 중심의 재래식 교육에서 근대식 교육으로 탈바꿈하는 시기에 私學教育의 형태는 보잘 것 없었으며, 교육에 뜻을 가진 지방에 有志들이 시대적 위기를 느끼고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다. 이때의 私學의 형태는 亂立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 당시 가톨릭 사학의 모습을 경향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舊韓末 가톨릭系의 學校

年 代	學校名	設立者	設立場所
1887	龍山神品學校	류비어 신부	서울 용산(원효로 4가 성심여중고)
1882	鍾岷學校 (啓星學校)	블랑주교	서울 명동
1895	藥岷學校	약현성당	서울
1898	奉三學校	우도(Oudot)신부	황해도 안악
1900	제물포여학교 (博文學校)	천주교인	인천 중구
1900	돈의학교	천주교 및 안중근	평안도 진남포
1906	華三學校	오바오르신부	황해도 안악 매화동
1906	월산학교	김문옥 신부	황해도 문화군 아현면 월산
1906	삼애서숙	장원일	북간도 룡성시
1907	일신학교	우도신부	황해도 신천군
1907	三愛學校	상포리 천주교	강원도 이천군 낙양면 상포리
1907	敬愛學校	신부와 교인들	황해도 장연군

1907	매곡학교	부이용신부	충청도 면천군 비방면 소합덕
1907	대교동학교	남문교(교주)	북간도 연길현 대교동
1907	慕聖學校	천주교회	황해도 재령읍
1908	명신학교	김문옥 신부 및 정원영(면장)	황해도 송화군 도화면
1908	봉양학교	천주교인들	황해도 봉산군
1908	聖濟學校	외국인과 천주교인	평안남도 속천군 신지리
1908	명의학교	천주교인(한세필)	강원도 이천군 하읍면 개양리
1908	三興學校	안중근	평안도 삼화 진남포
1908	계명학교	장신부	전북 여산 북일면 화산
1909	광진학교	부이용 신부	충북 청안군 북면 백학동
1909	인성학교	김신부	황해도 풍천군 천동면 석탄리
1909	간도경에서숙	주민과 신부	간도 오도구
1909	영신학교	천주교(김양홍)	전북 진안군 여면 어은동
1907	聖義學校	김성학신부	경북 김천
1908	해성학교	강신부	경기도 양성군 금곡면 미리내
1909	보덕학교	천주교인	전남 순천군 선원면 모성리

이와 같이 근대화의 변혁으로 출렁이고 있던 구한말에 서구의 신문물과 신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선교사들의 입국은 조선의 교육활동, 의료활동, 복지제도 뿐 아니라 우리 역사에 있어 근대화와 민주화의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했음은 명확한 사실이다. 그러나 가톨릭은 우리나라에 傳來된 이후 많은 교육활동을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은 개신교에 비해 교육활동이 저조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래 후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 보급에만 전념하였다는 선입관을 배제할 수 없다. 또 가톨릭이 부각되지 못했던 이유는 오랜 迫害下에 가톨릭이 실시한 교육활동의 의의가 숨겨졌고, 전래 이후 박해를 피하여 지방 또는 산촌에 은거하거나 교우촌에 숨어 신앙 보급에만 전념하였기 때문이다. 정식과정의 正規學校 運營이 어려웠고, 또 교육적인 행사가 비공개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記錄이 소멸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톨릭은 민중교육과 학교교육을 위하여 크게 활동하였으며, 이러한 교육적

활동이 이후 전래된 개신교의 교육활동에 礎石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구한말 가톨릭교회의 교육이념은 「경향신문」에서 쉽게 찾아진다. 이 신문은 가톨릭교회가 발행하던 주간신문으로 교회를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1906년 12월 28일자 논설의 요지는 서양학문의 수용으로 참된 개화를 이루어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는데 교육이념과 목표가 있다는 내용의 「학교의 설시」 논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전에는 우리나라 사림만 사느고로 사림들이 글을 몰나도 제 성계에 넉넉히 살며 벼슬하느 이와 상등인에게만 맛당하엿고 장스나 농군에게는 요긴치 아니하더니, 지금은 외국 스림이 만히 들어와 사느니라 이전에는 우리나라 다스리는 관리들이 다 우리나라 스림이었어니와 지금은 우리나라 스림이 타국인의 학문을 숭상치 아니면 외국인 이 촌촌 대한관리를 더신으로 다스릴뿐더러...”

이러한 내용은 국가의 부강은 교육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1907년 6월 14일자 「경향신문」은 그리스도계 학교의 독특한 특징으로 규정지을 수 있는 교육이념인 敬天愛人과 愛主愛人의 정신을 제시하였다.

“우리가 텃주를 스랑흙과 님금을 스랑흙과 사름을 스랑흐는 도리로 학교를 세우고 ㄱ르치지 아니하면 텃주를 스랑흐고 군부를 스랑흐고 동포를 스랑흐는 본분을 직힘에 크게 흠집이 되니 엇지 급히 교육흐는 방침을 베풀지 아나흐고 안연히 잇스리오.”

교육을 통해 愛主・愛君・愛人의 三愛精神을 기를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스도와 사람을 사랑할 것을 강조하면서 임금과 동포를 사랑하라는 이와 같은 학교 설립의 취지

는 바로 가톨릭이 지향하고자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¹¹⁷⁾ 그러나 가톨릭이 실시한 민중교육과 학교교육은 儒敎的傳統과 여러 가지 制約속에서 아무런 정책적 뒷받침 없이 전래되어 迫害時代를 거치는 동안 꾸준히 지원 운영된 敎育事業은 비록 그 규모가 작으나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서구식 교육을 실시하여 근대 교육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나. 의료 활동

구한말 가톨릭의 의료사업은 고아원 사업¹¹⁸⁾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고아원을 설립한 선교사들은 곧이어 이들 기관에 시약소를 부설함으로써 아이들과 노인들에게 진료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러한 시약소 활동은 프랑스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의 입국과 더불어 본격화 되면서 진료소로 확대되었다.

1894년 제물포 고아원의 고아들을 위한 시약소(현 해성병원)가 설립되었다. 그런데 이 제물포 시약소는 일반에게도 개방되었다. 서울 교구년보에 나타난 기록을 토대로 시약소에서 치료한 환자들을 보면 1897년 8월 이후부터 1898년 4월까지 8개월 동안에 제물포 시약소에는 모두 2,623명의 외래환자를 받아들여 진료했다. 또한 275명의 환자를 직접 방문해서 치료해 주기도하였다. 이는 이 기간 동안 시약소에서 월평균 328명의 환자를 받아들여 진료했고, 또 35명의 환자들을 직접 방문해서 치료했음을 나타낸다. 또한 휴일을 포함해서 매일 평균 11명 정도의

117) 全点禮, 「天主教의 傳來가 近代敎育에 미친 影響」, (한국교원대학교 敎育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p.13.

118) 한국 가톨릭교회의 고아원 활동은 박해 시기부터 시작된 성영회 활동이 그 시초이다. 성영회는 박해로 활동이 중단 되었다가 1880년 블랑 주교에 의해 다시 시작되어 1885년 서울 곤당골에 기와집을 구입하면서 정식으로 고아원으로 발전 되었다. 그 후 1888년 샬트 성바오로 수녀회가 입국하면서부터 본격적인 근대식 고아원 사업으로 발전을 거듭하였다. 노신영, 「구한말 일제하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의 육영사업」,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기념 한국교회사 논문집 I”, pp.221~228. 참조

외래환자를 진료했다. 한 곳 이상의 가정을 수녀들이 직접 방문해서 치료했음을 뜻한다. 이때 제물포 시약소에는 보통 2명의 수녀가 봉사자들과 함께 봉사하고 있었다. 이들은 각기 오전·오후로 시간을 분담해서 진료와 시약을 했다.¹¹⁹⁾

1901년에 6,078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1902년에는 4,271명, 1903년에 3,315명으로 줄어들다가 다시 약간의 증가 추세를 보여, 1910년에는 5,263명을 치료하였다.¹²⁰⁾ 이 통계는 당시 가톨릭의 의료활동에 선교사들이 적극적인 지원이 부족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각 본당에서는 고아원과 양로원을 함께 운영했다. 고아와 노인 그리고 지역 사회의 가난한 이들을 위한 무료 진료와 시약소가 설립되어 의료복지가 펼쳐지고 있었다. 이 시기에 있어서 의료분야는 환자를 위해서는 치유와 구원을, 교회를 위해서는 선교의 성과를 가져오고, 수녀들과 평신도 봉사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확인해 주었다. 이 당시의 의료사업은 그 규모나 시설 면에 있어서 그리고 의료행위의 수준에 있어서는 의사 한 두 명과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결코 완벽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교회에서 운영하는 본격적인 의료기관의 출현을 촉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¹²¹⁾

선교사들은 부족한 재정 때문에 극빈 환자들에 대한 무료 진료와 막대한 예산의 투입을 동시에 실시할 수 없었다. 그 결과로 의료기관은 발전을 하지 못하고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이것은 개신교 선교사들이 본국 선교부의 막대한 인적·재정적 지원을 받아 가며 지방으로 병원을 계속 세워나갔고, 서울 소재 병원에서는 조선인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의과대학을 설립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것이었다. 따라서

119) 심홍보, 「한국 천주교 사회복지사 연구」, pp.34~35.

120) 노신영, 『前掲書』, p.226.

121)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前掲書』, p.186.

가톨릭의 의료활동은 개신교와 비교해 볼 때 외국 선교사들을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던 조선인의 선입견을 해소하는 데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¹²²⁾

김대건 신부는 서울 한양에서 1845년 3월 27일 외방전교회 대표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열 번째 서한에서 “조선에서는 어린 아기들의 대부분이 반점으로 얼굴이 흥해지는 병(즉 천연두)으로 죽어 가는데, 그 병을 퇴치할 수 있는 처방을 저에게 명확히 적어 보내 주시기를 스승님께 청합니다.”^고¹²³⁾ 적고 있다. 직접 치료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외국 선교사들에게까지 도움을 청해 보고자 했다.

최양업 신부는 “이 모든 질병이 물의 비위생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러니 물을 정화하는 방법을 아시면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고 적고 있다. 최양업 신부가 도양골에서 1850년 10월 1일 그의 마카오 신학교 시절 스승인 르그레주아 신부에게 보낸 이 일곱 번째 편지에는 최 신부가 고국에서 선교하면서 필요한 두 가지 청을 담고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공중위생을 위한 물의 정화 방법’을 알려 달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선교에 필요한 성물’ 등을 보내 달라는¹²⁴⁾ 청이다.

가톨릭 사목자인 최 신부가 선교를 하면서 스승에게 청하는 내용에서 일반인들의 공중위생을 위한 물의 정화 방법을 배우려는 내용은 참으로 대중들을 사랑으로 선교하려고 한 폭넓은 시각을 제시 해주고 있다. 이와 같이 선교사들이 조선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을 감안하여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 하였던 것이 선교의 한 방법으로서의 醫療事業이었던 것이다. 사실 조선 백성들은 각종 질병으로 말미암아 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겪어야 했고, 선

122) 배효식, 「구한말 가톨릭과 개신교 선교사들의 선교정책 비교연구」, p.53.

123) 김대건 저, 한국교회사 연구소 편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시누의 서한』,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p.169.

124) 최양업 저, 정석진 역,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서울: 바오로딸, 1985), p.77.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치료해 줌으로써 육체적으로 구원해 주는 것이 영적으로 구원 해주는 것에 앞서 해야 할 절실한 문제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선교사들의 의료사업을 그들의 중요한 임무로 생각했으며, 여기에서 혜택을 입은 사람들은 자연히 교회로 발길을 옮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¹²⁵⁾

다. 기타 사회활동

(1) 고아원 운영

1852년 8월 말에 조선에 입국한 매스트르(Maistre, 李) 신부가 조선 각지를 돌며 전교활동을 계속하는 가운데, 죽음에 직면한 고아가 많음을 보고, 파리에 있는 성영회 본부에 재정적인 원조를 청하여 1854년경에 고아들에 대한 구제 사업을 펴기 시작하였다. 매스트르 신부는 파리 성영회 본부에 보낸 1854년 10월 22일자 서한에서 초기에는 3명의 여인들이 고아들에게 세례를 주고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독실한 여교우 2명 총 5명이 자원봉사의 형식으로 돌보도록 하다가 자원봉사만으로는 늘어나는 고아들을 다 돌볼 수 없어 유모에게 매달 8프랑씩 지불하며 유료로 위탁하여 키우도록 했다. 고아들이 커감에 따라 자립할 수 있도록 생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근대 아동복지사업의 문을 열었다. 1886년 종현으로 옮겨진 영해회 고아원의 고아의 수가 250명을 넘자 블랑 주교는 1888년 9월 18일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원에 수녀를 초청하여 고아원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때 고아의 수는 남아가 80명 여아가 65명이었고, 유모에게 양육되던 유아는 30명 고아원에 상주하면서 고아를 돌보는 여인들은 18명이었다. 원장 자카리야 수녀를 비롯한 7명의 수녀들은 고아원 건물을 목조 2층 241평으로 새로 짓

125) 李奎元, 『開化期 韓國基督教 民族教育의 研究』, (서울: 國學資料院, 1997), p.43.

고 남자 아이들은 한문과 경문을 배우도록 했고, 그리고 돛자리 짜는 법과 기타 여러 가지 실업교육을 가르쳤다. 여아들에게는 바느질과 가사를 가르쳐 구제 및 교육 계몽사업을 하였다.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빈사 상태로 들어와 그냥 고아원 지도 신부인 코스트 신부에게 대세를 받고 사망하는 어린이도 많았다. 고아원에서는 길에 버려진 아이들을 수용하기도 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고아원에 맡기는 경우도 있었다. 이때 고아원에서 원아를 받아들인 규정은 아마도 성영회의 규정을 원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영회에서는 남아의 경우 6세 이하 여아는 8세 이하를 맡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며, 두 돌이 차지 못한 아이는 유모가 없을 경우에 받기 말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을 받아들일 때에는 친권을 포기하겠다는 부모의 각서를 받았다. 아동을 받아들일 때 부모의 친권을 포기하도록 했던 것은 원아의 양육에 대한 부모의 간섭으로 예상되는 폐단을 미리 막기 위해서였다.¹²⁶⁾ 원아들 중 남자에게는 목공, 약국, 철공 등의 기술을 습득케 하고, 여자에게는 재봉틀 사용법을 가르치는 등 직업교육을 시킴으로써 자립의 길을 열어 주는 근대적인 고아 구제 사업으로 발전해 갔다.¹²⁷⁾

1901년부터는 운영상의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신입 남아들의 수용을 중지하고 여아들만 돌보게 되었다. 특별한 수입원이 없던 당시로서는 존타그 부인이 운영하고 있던 존타그 호텔에서 나오는 세탁물이나 외국인들의 세탁물을 해주고 받는 돈이 생활에 큰 보탬이 되었다. 1903년 중현의 고아원에서는 32명의 수녀들이 이소사(李召史) 등 여직원 11명 및 남직원 3명과 함께 고아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¹²⁸⁾ 한편 영해회 고아원은 1875년 12월 20일 충남 합덕에서 매스트르 신부가 선종한 후에도 계속 되어 1977년 9월 6일까지 성 바오로 보육원이란 이름으로 운영되다가 폐쇄되었고, 지금은 인천의 해성보

126)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前掲書』, p.160.

127) 한국가톨릭대사전편찬위원회, 『한국가톨릭대사전』, p.650.

128)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前掲書』, p.160.

육원으로 연결되어 운영되고 있다.¹²⁹⁾

1894년 8월 18일 제물포(현 답동) 성당의 마라발 신부는 샬트르 수녀회에게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마태 18,5)라고 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8명의 어린이들을 수녀원에서 키우도록 함으로써 제물포 고아원이 시작되었다. 1895년에는 고아가 15명으로 늘자 마라발 신부는 1896년 8월 15일 120평의 고아원 건물을 별도로 신축하게 되었다.¹³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이 고아원은 ‘바다의 별’이라는 뜻의 해성보육원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한편 1899년부터 보육원 원아들과 신자들의 자녀들 및 무상아동들을 모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 박문유치원, 박문초등학교의 효시가 되었다.¹³¹⁾ 그리고 리델(Felix Ridel, 李福明, 1830~1884) 주교는 옥중 일기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나는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소, 이 나라에 머물게 두시면 이 땅에서 죽을 것이오. 그 동안 자선사업을 하겠고, 예컨대 병원이나 고아원 같은 것을 설치하여 빈궁한 병자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며, 무의무탁한 고아들이나 내버린 아이들을 거두어 양육하여 주는 등 갖가지 박애사업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블랑주교는 1885년 7월 2일에는 종로 뚝골(현 관철동)에 큰 기와집 한 채를 매입하여 양로원을 설치하여 노인복지를 시작하였다.¹³²⁾ 설립 당시 남녀 노인들의 수는 20여명에 달하였으며, 양로원은 시약소를 겸하였다. 젊을지라도 중한 환자이면 이 시약소에 입원시켜 치료해 주었다. 이를 보면 양로원은 노인들과 오갈 데 없는 환자들을 위한 시약소도 겸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선교사들은 순수하게 신앙(信仰)의 문제에만 몰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자체가 가난한 자, 고통 받는 자, 병든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

129) 『上揭書』, p.995.

130) 『上揭書』, p.164.

131) 심홍보, 「前揭書」, pp.30~31.

132) 柳洪烈, 『韓國天主教會史』, p.289.

의 편에서 산 삶으로써 그를 섬기는 선교사들은 당시 조선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교육활동, 의료활동, 고아원 운영 등과 같이 생활양식을 개선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2) 한글 보급교육 및 언론정책

가톨릭이 한글의 보급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가톨릭교회가 한글로 많은 서적들과 교리 및 성경을 번역 저술한 목적은 漢文을 모르는 소외된 서민층을 대상으로 가톨릭을 보급시키는데 있었다. 그러나 그 활동은 문맹퇴치와 한글을 우리 글로 발전시켰으며 한글의 가치를 인정했던 최초의 집단으로서 문화적 의의를 갖는다.¹³³⁾

16세기 이후 중국에서 유입된 漢譯西學書들은 그 종류가 상당히 많았지만, 그것은 모두가 지식계급만이 이해할 수 있어 하층계급에게 가톨릭의 교리와 사상을 전파하는 데에 적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들 서적의 한글화 작업은 선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신유박해 때 옥사한 정약중은 최초의 한글 교리서인 『주교요지』를 저술했다는 사실이 황사영의 금서(1801)에 의하여 알려졌고, 또한 형조에 압수되어 소각된 서적이 120종 177권 199책¹³⁴⁾이 있었으며, 그 중에 한글로 쓰인 책이 83종 11권 128책이라고 하니 이 시기에 가톨릭 서적이 얼마나 많은 양이 한글로 보급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한글 사전 저술도 가톨릭의 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조선의 제5대 교구장이었던 다블뤼 신부는 한글에 깊은 관심을 갖고, 1854년 韓佛字典을 저술하는 한편 『東國歷代』를 번역하였다. 뿌로띠에 신부는 10여 년에 걸쳐 『朝鮮語研究』와 『韓漢羅辭典』 집필하였고, 뽀띠니콜라 신부는 3만 이상의 라틴어와 10만에 가까운

133) 최병욱, 「朝鮮後期 天主教의 收容과 그 影響」,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p.62.

134) 조광, 「朝鮮 後期 天主教史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4), pp.90~94.

조선어를 담은 『羅韓辭典』을 저술했다. 가톨릭은 이와 같이 당시에 암글(女文), 중글(僧文), 아랫글(兒文), 또는 언문이라고 천시하여 부르던 우리의 한글을 사용하는데 앞장서서 한글 전용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신부들을 통하여 조선의 한글을 세계에 전파시키기도 하였다.

1906년 10월 19일 서울 대교구는 경향신문을 창간했다. 당시 교회는 교육을 통해 백성들의 민족 자립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언론을 통한 애국계몽 운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당시 백성들은 개화라는 미명(美名) 아래 자행된 일제 식민주의의 침투에 저항하며 한편으로는 계몽으로 언론 투쟁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러한 투쟁의 역사는 전기(1896-1904)와 후기(1905-1910)로 양분할 수 있는데, 가톨릭이 경영한 경향신문은 후기에 속한 것이었다. ‘경향신문’은 순 한글의 주간지로서 창간된 이래 1910년 일제의 탄압으로 폐간되기까지 4년간 계속되었다. 경향신문은 참된 개화가 어떤 것인가를 거듭 천명했다. 동시에 외적이요 형식적인 개화가 아니라 내적 개화를 지향해야 하고, 또한 이 내적 개화야말로 나라와 겨레를 구하기 위해 가장 급하고 가장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러한 개화는 외적 변혁이나 법의 개정만으로 인내와 용기가 요구되는 과업임을 아울러 지적하였다.¹³⁵⁾ 그리하여 경향신문은 무지에 대한 계몽과 교육의 필요성, 사대주의에 대한 자주를 그리고 개혁과 개방을 수시로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경향신문이 간행 2년에 접어들면서 이미 체제와 내용과 구독자의 수에 있어서 다른 신문을 능가하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비단 가톨릭 교인뿐만 아니라 개신교인을 포함한 일반 독자들을 확보했다. 또한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널리 일본과 하와이, 미국 등지에서 독자들을 확보함으로써 한때 최고의 발행 부수를 기록하기까지 하였다.¹³⁶⁾ 경향신문은 정교분리원칙에 입각한 정치 불간섭주의

135) 경향신문, 1907.1.11. 논설

136) 서울교구연보, 1907.

를 공식적인 편집 방침으로 삼았고, 이러한 경향신문의 방침은 뮌헨주교를 비롯한 선교사들의 선교원칙이 되었다. 그러나 1910년 8월 한·일합방과 더불어 이 땅의 언론이 완전히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면서 9월 10일, 경향신문은 총독부로부터 이후 종교 사항에 국한되지 않는 한 신문이 계속될 수 없다는 통고를 받았다. 그러나 그러한 위협에도 간행을 계속하다가 사장 프랑스인 드망즈(Florian Demange, 安世華) 신부는 여러 번의 출두 명령을 거절하면서 12월 30일자 220호를 끝으로 폐간되었다.¹³⁷⁾

실제로 교회는 경향신문을 통하여 의병운동에 대해 지지를 보냈다. 1904년 일본이 이른바 황무지 개간 안을 구실로 우리 농민들의 토지를 강점하고자 했을 때 신자들은 이를 저지하고자 노력했다. 명동성당에서 기도회를 개최하였고, 나아가서는 전국 각지에 회람장을 돌려 지방민들도 상경하여 서대문에서 집회를 갖고 일제의 침략을 규탄할 것을 호소하였다.¹³⁸⁾ 이 무렵 지방에서는 친일 어용단체인 일진회(一進會)가 일본 세력을 등에 업고 무엇보다도 가톨릭 교인을 침해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일진회가 한·일합병을 발설하자 경향신문은 일진회원들의 매국적인 발언을 취소하고 해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1906년에 평양과 신천(信川) 등지에서는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애국단체가 조직되기 시작했다. 특히 신천의 일신회(一新會)가 대표적인 것이었다. 평신도들은 국채보상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한편 가톨릭 청년 신자들의 활동도 두드러졌다.¹³⁹⁾ 이 시기의 가톨릭 선교사들은 자신의 몸을 바쳐 순교 하듯이 가난한 이들에게 헌신적으로 실시한 사회복지 활동은 초창기 빈민 구제와 고아 및 환자 치료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아울러 개화기에 사회화·문화화 과정에서 문맹퇴치 등을 위한 사회 기초 교육활동과 독립운동 고취에 선교사들이 앞장섰다.

137)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前掲書』, p.35.

138) 뮌헨 문서, 『The Korea Daily News』, 1904. 7. 28.

139) 심홍보, 「前掲書」, pp.36~37.

2. 개신교 선교사들의 교육 · 의료활동

가. 교육활동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당시 조선사회에 신교육의 이념을 깊이 심어 주었고, 근대학교의 터를 잡아준 것은 1876년 개항 이래 이 나라를 찾아온 미국 선교사들 이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유교적인 전통 사상이 지배적이어서 선교사들이 활동하기가 어려웠다. 이것은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후 미국 감리교 선교사 맥클레이(R.S. Maclay)가 1884년 6월에 고종의 윤허를 받은 것이 선교 사업이 아니라, 교육과 의료사업이었다는 사실로서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교사들은 선교의 한 수단으로 교육에 먼저 착수하게 되었다.

감리교 선교회의 맥클레이, 미국 성서 공회의 루미스(H. Loomis), 장로교의 녹스(George W. Knox) 등 선교사들은 미국의 선교 본부에 청원서를 보내어 조선에서 선교 사업을 시작할 것을 호소했다. 녹스 목사는 1883년 장로교 선교 본부에 다음과 같은 호소문을 보냈다.

“조선 수도에는 영국 출생의 중국인 몇 사람을 선생으로 초빙하여 영어 학교를 설립하였는데, 벌써 70명의 학생이 수용되어 있다고 한다. 그들의 목적은 조속한 시일 내에 미국인 선생이나 영국인 선생을 초빙하자는 데 있다. 조선인들은 서양학문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다는 사실이다. ... 조선에서 선교 사업을 개척할 뜻이 없는가? 미션스쿨은 설립하기만 하면 큰 성과를 거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목사 두 사람과 의사 한 사람만 있으면 사업 개척이 충분할 줄 안다.... 내년 봄 4월에는 선교사가 그 나라 땅에 상륙해야 된다. 이 선교지를 열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세 사람을 보낼 수 없겠는

가? 만약 우리 교회가 할 수 없다면 다른 교회에서라도 이 부름에 응답할 수 없을 까요?” 140)

조선에 선교를 자원하는 선교사가 생기고 일본과 중국 및 조선에서 선교사 파송을 강력히 요청함으로 인해 미국 선교부는 조선에 선교사를 파송할 용단을 내리게 되었다. 파송된 선교사들은 조선정부와 민중의 신임을 얻어 공공연하게 선교활동을 시작하게 됐다.¹⁴¹⁾ 이와 같은 교육 사업은 칼빈(J. Calvin)이나 녹스가 표현한 ‘교회 옆의 학교’ 라는 말이 조선에 있어서는 ‘학교 옆의 교회’ 라는 말로 대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당시에 조선은 고종이 공포한 「홍범 14조」와 「교육입국 조서」에 잘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근대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하였다. 따라서 당시 조선 정부는 서구의 교육제도와 발전된 기술문명을 수용하여 富國強兵을 이루려고 하였다. 선교사들은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이 땅에 교육기관을 세우고 그것을 통하여 젊은이들에게 선교활동을 하려는 점에서 양쪽의 관심이 일치하였기 때문에 개신교 학교가 발전할 수 있었다.

개신교 학교가 급격히 발전된 것은 일제의 식민지화에 대항하는 조선인의 민족적 저항 정신에 따른 구국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교육 계몽운동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즉, 일제의 침략에 대하여 저항 의식과 민족사상을 가진 많은 선각자들이 개신교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1884년 9월 20일 알렌(H. N. Allen)은 의사의 자격으로 인천을 통하여 입국하였고, 언더우드(H. G. Underwood)와 아펜젤러(H. G. Appenzeller)가 그 다음해인 1885년 4월에 선교사로 내한하여 활동하는 데서 개신교계 학교의 시작으로 본다. 이들은 본래 목사의 신분이면서도 구한말 조선 정부

140) G. W. Knox, Affairs in Corea, The Foreign Missionary for January, 1884, p.335.

141) 예종복, 「개신교의 한국 정착화 과정에 대한 연구」,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p.36.

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교사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제중원과 진료소의 교사 신분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그 당시 담당한 학생 수는 2명에 불과하였다.¹⁴²⁾ 또한 그들이 바라는 학과목은 단순한 영어 학습과 회화에 불과했다. 광혜원은 개원 12일 만인 3월 12일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의 계(啓)에 따라 제중원(濟衆院)으로 바뀌었고, 1899년(광무3)에 제중원의 학교를 설립하고, 학생들을 선발하여 의학교육을 실시했다. 10년이 지난 1908년(융희2) 6월에 처음으로 제1회 졸업생 7명을 배출했는데, 이것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세브란스 의학과의 시초가 되었다.

구한말에도 외국어학교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였는데, 이미 설립된 통역학교, 육영공원, 일어학교에 이어 1896년 1월 12일에 불어학교, 동년 5월 10일에 아어학교, 1900년 한어학교와 독어학교가 각각 설립되었다.

아펜젤러 목사는 스크랜튼 의사의 조수 두 사람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것이 모체가 되어 학교를 시작했다. 고종 황제가 이 학교의 이름을 배재학당(培材學堂)이라고 명명하여 이것이 조선 최초의 신식 교육기관이 되었다. 배재학당(培材學堂)은 개교와 동시에 사회적 인식이 크게 향상되어 불과 5개월 만에 32명의 학생으로 증가 발전하였다.¹⁴³⁾ 1895년 배재학당(培材學堂)은 조선정부와 계약을 맺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학생 200명을 받아들였다. 첫 3년 동안 계약이 성공을 거두자 1898년에 왕은 친히 계약 갱신을 명했다. 배재학당은 자체적으로 힘을 가질 만큼 성장했는데, 그 당시 학교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었다. 배재학당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등 인재가 배출되었다. <표 7>은 배재학당의 학과목별 시간을 표시한 것이다.

142)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 I』, (서울: 기독교문사, 1991), p.197.

143) 『上揭書』, p.197.

<표 7> 배재학당 학과목별 시간 수¹⁴⁴⁾

학과목 \ 학년	1	2	3	4
국 한	6	6	6	6
일 어	6	6	6	6
역 사	3	3	3	-
지 리	3	3	3	1
수 학	6	5	4	1
박 물	4	2	2	-
물 리	-	-	2	2
화 학	-	-	1	2
		농,상,공	농,상,공	농,상,공
실 업	1	3	3	3
도 화	2	1	1	1
체 조	3	3	2	2
법 제	-	-	-	2
(현행제도·경제)				
창 가	1	1	-	-
외국어	2	3	3	3
계	38	37	37	31

이러한 학생 수의 증가는 개신교와 현대학문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영어실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또한 영어실력을 배경으로 출세하려는 현실적 목적이 강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인들 사이에 영어를 배우려는 열정이 강합니다. 새로운 언어에 대한 부족한 지식이 출세의 걸림돌이 되어 왔으며, 지금도 그런 형편입니다. 조선인에게 “왜 영어를 배우려고 하오?”하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이 공통된 대답이 “벼슬을 얻기 위해서요.”라고 합니다.”

144) 大韓基督教出版社, 『한국 기독교 문화사』,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p.202.

본래 학생들은 영어학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입학하였으나, 입학 후에 개신교에 입교하여 성경 학습과 동시에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계속했다. 학생 수가 증가하자 교육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선교사들은 학교를 설립하고 선교활동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선교사가 언더우드(H. G. Underwood)였다. 그는 고아원과 같은 형태로 교육 사업을 시작했다. 본래 언더우드 목사는 1886년 5월 11일부터 정동에 있는 자기 집에 붙어 있는 건물에서 고아원을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소위 ‘언더우드학당’이라고 불리는 고아원 학교였다. 언더우드는 1886년 미국공사 포크를 통해 조선 정부에 고아원 개원 허가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해 고종은 1886년 2월 14일 외무대신 김윤식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회답을 주었다.

“우리나라 백성들을 도와주려는 의도에서 알렌, 해론, 언더우드 씨가 서울의 고아원들과 집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설립할 것을 제안해 왔다. 고아원에서는 옷과 음식을 제공해주고 한문과 한글을 가르쳐 주며,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칠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 정부가 이들의 제안보다 더 보람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이 땅에 또 있겠는가?”

이처럼 개신교 초창기 선교는 조선정부가 미처 돌보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의 보호에 눈길을 돌렸다.¹⁴⁵⁾ 이 학교는 ‘예수교학당’, ‘민로학당’, ‘구세학당’으로 불리다가 1905년에 경신학당으로 정착하여 오늘날 경신중·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의 모체가 되었다.

선교사들은 입국하자마자 이와 같이 교육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이는 조선 선교사업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조선에서 처음으로 여자학교를 세운 것은 1886년 5월 31일에 메리 스크랜

145) 안신영, 「구한말 고종의 개신교 인식과 정책연구」, (협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p.37.

톤(Mary F. Scranton) 여사이다. 그녀는 의료선교사로 입국한 아들 스크랜톤(William Benton Scranton)을 좇아 1885년 1월 21일에 조선에 입국했다. 스크랜톤 여사는 여성들을 주체적이고 근대적인 여성으로 이끄는 데 실마리를 제공했다. 여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세울 계획으로 서울 정동에 큰 집을 구해 놓고 하나님에게 기도했다. 이것은 당시의 조선 상황으로 보아서 매우 혁신적인 일이었다. 남존여비 사상이 강하였고, 여자에게는 이름, 교육, 인권도 필요 없다고 여겨지는 시대에 여자학교의 설립은 경이적인 것이었다. 스크랜톤 여사가 세운 이화학당(梨花學堂)은 당시로서는 학생모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 1886년 첫 학생으로 아주 어린 소녀를 만나게 되었다. 끼니가 없어 굶다가 먹여 살릴 수 없어 보내진 아이였다. 씻기고 입히고 먹이며 함께 기거했다. 이 아이가 이화여대 첫 학생이며 이렇게 한 명의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시작한 것이 결국 이화학당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학교를 창립한 것이다. 가난한 집 아이들을 모아서 숙식, 책, 의복까지 제공하며 공부를 시켰다. 후일 명성 황후에 의하여 ‘이화학당’이라고 명명된 이 학교는 한국 여성교육의 요람이 되었다. 한국 최초의 여의사 박예스터도 이화학당의 인물이며, 특히 뒷날 3.1운동의 상징이 된 유관순이 다니던 학교로 일제침략에 항거한 여성들의 빛나는 전통을 지금도 긍지로 가지고 있다.¹⁴⁶⁾ 조세핀 페인(Josephine Ophelia Paine 1869~1909) 선교사는 미국 메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출생하여 미국 감리회 소속으로 조선에 도착하여 먼저 조선어를 공부했고, 1893년 제3대 이화학당장으로 취임하여 15년 간 여성교육에 이바지했다. “여자가 공부해 해 무엇하느냐”하는 시절에 여성교육에 횃불을 들고 앞장섰다. 그의 주요 업적과 활동 상황을 살펴보면 『Lessons on the Human Body』라는 생리학(生理學) 교과서를 1899년 조선 최초로 프라이(Frey)와 공동 저술했다. 1904년

146) 鄭在貞 외2人, 『서울 근현대 역사기행』, (서울: 도서출판 해안, 1998), p.75.

9월 중학과 (중등과정)를 설치하였으며, 교과과정(敎科課程) 정비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한문, 산수 등 기존 과목 외에 성경, 영어, 체조 등 교과과정을 편성하였으며, 재봉, 자수를 가르치는 가사과를 설치했다. 특히 조선 최초로 여성에게 체육 운동과목을 첨가한 것은 큰 변혁이었다. 이 같은 체육운동 때문에 양반층에서 처음에는 크게 반발하고 “집안 명예가 손상되고, 혼사 길이 막힌다.”고 하면서 하인들을 시켜 학생을 집으로 데려갔다는 이야기도 있다. 페인 선교사는 학생들을 지극 정성으로 보살피면서도 엄하게 훈육하여 학생들은 그를 아버지라 불렀다. 늘 흰밥(쌀밥)을 해주니까 학생들이 팔밥이 먹고 싶다고 하면 가끔 시장에 나가 팔을 사다 팔밥을 해 먹이기도 한 무척 인정이 많은 분이였다.

1887년 6월에는 엘리스(A. J. Ellers) 선교사가 정동여자대학을 설립하였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선교사들이 앞장서서 여학교를 설립하여 교육했다. 이러한 일은 여성들에게만 유익이 아니라 국가의 부흥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 당시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는 언급하고 있다.

사실 개신교 초기의 여성 지도자들 대부분이 사회적인 소외 계층이었다. 그들은 전통적인 봉건사회에서 천대받은 소외 계층들이었으나, 개신교에서 설립·운영하는 여자학교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발전을 위한 학문을 습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입학할 희망하는 학생들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다.¹⁴⁷⁾ 이러한 생각을 반영이라도 하듯 이화학당, 정신여학교, 기전여학교, 호수돈여학교, 누씨여학교, 진성여학교, 신명여학교 등 선교사의 발길이 닿은 곳이면 서울이나 지방 할 것 없이 어디에나 여학교가 설립되었다. 1886년부터 1908년 사이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세운 25개 학교 가운데서 절반이 여학교였다.

1885년부터 한·일합방 직전인 1909년까지 설립된 개신교계 대표적인 학

147) 강준렬, 『교회와 사회복지』, (서울: 한들출판사, 2005), p.101.

교들을 보면 <표8>와 같다.

<표8> 舊韓末 개신교계 學校¹⁴⁸⁾

年 代	學校名	教 派	設立場所
1885	廣惠院 (延世大 醫大前身)	합 동	서울
1885	培 材 學 堂	감 리 회	서울
1886	梨 花 學 堂	감 리 회	서울
1886	敎 新 學 校	장 로 회	서울
1894	光 成 學 校	감 리 회	평양
1894	崇 德 學 校	감 리 회	평양
1894	正 義 女 學 校	감 리 회	평양
1895	貞 信 女 學 校	감 리 회	서울
1895	一 新 女 學 校	장 로 회	동래
1895	正 進 學 校	감 리 회	평양
1896	攻 玉 學 校	감 리 회	서울
1896	崇 實 學 校	장 로 회	평양
1897	信 軍 學 校	감 리 회	서울
1897	永 化 學 校	감 리 회	인천
1897	培 花 學 校	감 리 회	서울
1898	明 信 學 校	장 로 회	재령
1900	平 壤 神 學 校	장 로 회	평양
1903	崇 義 女 學 校	장 로 회	평양
1903	貞 明 女 學 校	장 로 회	목포
1904	德 明 學 校	감 리 회	원산
1904	進 誠 女 學 校	장 로 회	원산
1905	永 明 學 校	감 리 회	공주
1906	啓 聖 學 校	장 로 회	대구
1906	保 聖 學 校	장 로 회	선천
1906	韓 英 學 校	감 리 회	개성
1906	義 明 學 校	안 식 회	순천

148) 孫仁鉄, 『韓國近代教育의 理念과 實態』, (서울: 新星印刷社, 1980), pp.144~145.

1907	藥 峴 學 校	감 리 회	서울
1907	須皮亞女學 校	장 로 회	광주
1907	信 明 女 學 校	장 로 회	대구
1907	紀 全 女 學 校	장 로 회	전주
1908	新 興 學 校	장 로 회	전주
1908	昌 信 學 校	장 로 회	마산

스크랜톤 여사(Mary F. Scranton)는 조선에 와서 사회상황을 보고 “이 나라에 가장 급속한 진보를 위해서는 여성과 소녀들이 꼭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음식과 옷, 학비를 무료로 제공했다. 교육사업의 성과는 왕실과 일반 민중의 신임을 얻었는데, 일반 민중들의 신임도를 스크랜톤 여사의 감리교회의 외국인 선교 부인회 보고서를 보면 “맨 처음에 사람들이 자기네 딸들을 학교에 보낼 때 무슨 큰 덕이라도 베푸는 것처럼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와 반대로 우리가 아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큰 은혜로 알고 있다.” 라고 썼다. 한편, 개신교는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이 땅에서 버림받아 오갈 데 없는 불구자(不具者)에게도 적은 부분이나마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 미국 감리교 여선교사 홀(Rosetta S. Hall, 1865~1951)이 1894년에 평양에서 맹인소녀 한 명을 대상으로 점자(點字)를 가르치는 특수교육을 시작했다. 홀은 1897년에는 맹인을 위하여 ‘뉴욕식 점자’를 활용한 최초의 한글 점자인 ‘평양식 점자’를 창안해 내었다. 이것을 가지고 여아 맹인에게 초등독본(初等讀本)과 기도문(祈禱文), 십계명(十誡命), 그리고 구약(舊約)의 역사와 함께 지리와 음악을 가르쳤다. 또한, 1903년에는 역시 평양의 정진학교 안에 맹인 여학교를 설립하였으며, 1909년에는 농아부를 두어 후일 이것을 맹아학교로 발전시켰다. 그리고 1904년에는 역시 평양에서 장로교 선교사 모펏(Samuel A. Moffett, 1864~1939)의 부인에 의하여 남자 맹인학교가 설립

되었다. 이 외에도 개신교 선교사들은 서울, 평양, 개성, 부산, 마산, 전주, 광주, 목포, 수원, 인천 더 나아가 함흥과 간도 지역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에 소학교, 보통학교, 고등학교 및 전문학교를 세웠다.

1885년부터 시작된 개신교계 학교는 1909년에 가서는 805개를 넘게 되었다.¹⁴⁹⁾ 선교사들이 낯선 타국에 와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근대학교 설립에 공헌하였다는 사실을 독립신문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친구 없는 만리타국에 자기 돈을 들여 의복, 음식, 거처를 준비하고 학교를 설치하여 조선 남여를 같이 교육하여 밤낮 가르치는 것이 옳고 참되고 정직하고 옳은 행실과 당당한 심법을 공부케하여 주었다.”¹⁵⁰⁾

<표 9> 1896년 新教育機關 現況

소속		개신교계 학교							국립, 일선학교									
학교 유형	통합 학교		남기숙 학교		여기숙 학교		학 교	학 생	소 학 교	사범 학교		외국어 학교		육영 학교		학 교	학 생	
학교 학생	학 교	학 생	학 교	학 생	학 교	학 생	총 수	총 수		학 교	학 생	학 교	학 생	학 교	학 생	총 수	총 수	
계	13	260	2	160	3	18	18	514		5	1	50	5	232	1	103	12	385

<표 9>에서 「1896년 新教育機關 現況」을 살펴보면 국립 및 일선 학교가 소학교 5개를 포함해서 12개 교인데 비해 개신교가 설립한 학교가 18개교로 당시의 개신교 교육의 비중을 알 수 있다. 조선에 많은 젊은이들이 개신교계 학교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민족지도자로 활동했는데 대표적인 인물로는 윤치호(尹致昊), 남궁억(南宮棼), 에스터김, 안창호(安昌浩), 김규식(金

149) 이 통계는 감리교와 장로교의 1909년 연례보고서에 의한 통계이다.

150) 「독립신문」, 1896. 8. 20.

奎植), 이승훈(李昇薰), 김구(金九), 김마리아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무당, 농민, 백정, 광대 등 천민 계층에서도 개신교계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사회 지도자로 활약했다. 또한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개신교 신자가 16명 이었고, 민족대표부 48인 중에 22명이 개신교 출신이었다. 그리고 각 지역 만세 운동에 주동자로 활약했다. 이것은 당시 전 백성에 대한 개신교 신자 비율이 1.5%에 지나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대단히 경이적인 것이었다.¹⁵¹⁾

구한말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된 선교사의 私學經營은 우리 민족에 새로운 활력을 주었으며, 근대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선교사들이 설립한 학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된 신앙인을 양성하고 교역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무리한 전도를 注入시키지 않고 조선의 전통과 풍습을 존중하고 조선인의 사고방식에 입각하여 활동하려 했다.

둘째, 낡은 사회의 질서를 개혁하여 이 나라를 개화하고, 근대화하려 했으며 백성들의 계몽을 위하여 선구적 역할을 담당했다.

셋째, 자유주의 사상과 인도주의에 기초한 근대교육을 실시하였다. 누구나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인간평등 사상의 정신을 심어 주었다.

넷째, 여성에게 처음 근대교육을 실시하고 신분제도에 따른 계급타파와 더불어 남녀평등 사상을 전개했다.¹⁵²⁾

이상을 통해 교육 사업은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기 힘든 선교사들이 종교와 무관한 의료사업을 통해 조선사회에 침투하는 과정에서 먼저 병원을 돕기 위한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 의학교육과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교육 그

15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20』,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84), pp.247~249.

152) 宋寅元, 「구한말 선교사의 私學經營」,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5), p.43.

리고 여성들에게 서양의 실용적인 지식을 교육하기 시작한데서 출발했다.

나. 의료활동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도착하기 전에는 병원이란 없었고, 다만 한약방이 있었을 뿐이다. 부스테드(J. B. Busted) 의사는 다음과 같이 한약방을 묘사하고 있다.

“아랫목에 늙은 의사가 앉아 있고, 주위에는 조수들이 약 처방에 따라서 조제하여, 가루도 내고, 봉지에 담기도 한다. 의사는 쾌활한 노인으로서 환자들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즐긴다.… (中略) 대부분은 조선의 산에서 구한 것이다. 종이봉투 마다 한문으로 약초 명이 쓰여 있었다.”¹⁵³⁾

이렇게 근대적인 의료시설이 전혀 없는 이 땅에 개신교 선교사들은 직접적인 선교를 하기에 앞서 1884년 6월에 일본주재 선교사 맥클레이(R. S. Maclay)를 조선에 보내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고종으로부터 조선에서 병원과 학교 사업을 시작해도 좋다는 윤허를 얻은 후에 선교사를 파견하기 시작하였다.¹⁵⁴⁾

구한말 백성들의 위생 상태는 아주 열악했고, 당시 백성들의 평균 연령은 30세에 훨씬 못 미쳤다. 일제시대 우리나라 신생아 중 거의 절반인 45.5퍼센트가 10세 이전에, 18퍼센트가 만 1세 이전에 사망했다. 1932년 통계로 2천5백만 인구 가운데 약 절반이 결핵 감염자였고, 1백60만 가량이 환자였다. 그 외에도 결핵, 말라리아, 천연두, 매독이 흔했으며, 콜레라도 때때로

153) J. B. Busted, 『The Korean Doctor and His Methods』, Korean Repository, vol. 2, May 1895, p.188.

154) 한국기독교사연구회, 『한국기독교역사』, pp.177~182.

유행했다. 이러한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최초의 근대식 병원과 의과학교를 설립했다. 결핵 요양소와 나병 환자촌을 세워 운영함으로써 많은 이들을 병으로부터 해방시켰다.

조선을 찾은 최초의 개신교 의료선교사 알렌은 의사 신분으로 조선에 진출하여 선교활동을 전파하기 전에 ‘의술’ 이라고 하는 선진 물질문화의 전파를 먼저 시도하여 선교의 발판을 삼고자 하였다.¹⁵⁵⁾ 알렌은 제중원 설립 이듬해인 1886년 조선인 의사 지원자들 중에 16명을 뽑아 의학교육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근대의학 교육의 기원이었다. 제중원의 새로운 책임자로 1894년 임명된 선교사 애비슨은 학생들에게 학습교재를 제공하기 위해 해부학, 생화학, 생리학, 약물학, 세균학, 위생학 등의 원서를 번역했을 뿐 아니라, 1899년 병원 내에 최초의 정규 의학교인 제중원 의학교를 개설하여 신입생을 모집했다. 1908년 최초의 졸업생들을 배출했고, 간호사 2명도 양성 배출되었다. 이 의학 교육부는 세브란스 의과대학을 거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로 발전했다.

알렌에 이어 입국한 스크랜튼(W. B. Scranton) 등 의료선교사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구했고, 소수의 인원으로 하루 최고 265명, 년 간 10,460명의 환자를 진료했던 결과, 제중원은 대단한 인기를 얻었다. 입원실에 놓인 침대 40개는 늘 환자로 메워졌다. 더구나 선교사들은 가난한 환자들로부터는 일체의 치료비도 받지 않았다. 그들은 환자들을 정성껏 치료했고, 그들을 자주 만나 복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게한다는 정책에 의거하여 의료사업을 전개했다. 사실 당시 미국 병원들이 미국 정부와 개신교 총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참담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우리가 상대하여 치료한 사람들은 대부분 빈곤 계층이었으며, 그 중에는 버림

155) 이만열, 『한국기독교와 민족의식』, (서울: 지식산업사, 1991), p.456.

받은 사람들도 많았다. 이러한 사람들은 건강 문제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치료비뿐만 아니라 입원기간 중 생활비까지 부담해야 할 입장이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선교사들은 병원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었고, 어려운 극빈자들과 직접 상면하여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까지 수행하였다.¹⁵⁶⁾ 1886년 여의사 엘러스가 오면서 부인부(婦人部)가 설치되었다. 고종은 제중원의 의료활동을 높이 평가하여 알렌과 엘러스에게 당상관 품계의 벼슬을 내렸다.

1887년 감리교 여의사 하워드(Meta Howard)가 2년 후 병으로 물러나자 다시 설우드(Rosetta Sherwood)여 의사가 입국하여 3년 동안 1만 4천명을 진료했는데 환자들 대부분 집으로 왕진을 했다.

1895년 여름 전국적으로 콜레라가 맹위를 떨쳐, 대략 50여 일 동안 무려 300,000명의 인명을 앗아갔다. 하루 평균 사망자 수만 6천여 명에 달했으니 가공할 만한 전염병이 아닐 수 없었다. 콜레라가 맹렬히 번지기 시작했을 때 조선 조정은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선교사들은 비상체제에 들어갔고, 조선어로 콜레라의 원인 및 예방법을 담은 수천 장의 홍보물을 제작 배포했다. 선교사들은 서대문 바깥에 콜레라에 감염된 사람들 수용소를 개설했으며, 그곳으로 몰려드는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았다. 고마움을 느낀 조선 조정은 미국 공관에 공문을 보내 “언더우드와 그의 동료들이 역병을 치료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財源)과 인력을 들여 수고함으로써 많은 환자들을 낫게 해준 것에 감사한다.”면서 선교사들의 수고를 치하했다.

구한말 청·일전쟁과 노·일전쟁이 잇달아 터져 서북의 많은 도시들은 폐허가 되었다. 곳곳에 시체가 있었고, 전염병이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죽어 가고 있었다. 당시 사무엘 마펏과 그래엄 리 등 평양에 있던 선교사들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병자들을 도와줌으로써 주민들

156) 강준렬, 『교회와 사회복지』, p.97.

의 존경을 받았다. 홀(Hall) 선교사는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보다가 과로가 겹쳐 세상을 떠났다. 그의 부인 홀(H. S. Hall)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폴 웰(E. D. Follwell) 의사의 도움을 얻어 남편 홀 의사를 기념하는 병원을 평양의 굴지의 병원으로 발전시켰다.¹⁵⁷⁾ 홀 뿐 아니라 많은 의료 선교사들이 누적되는 과로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얻은 질병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쓰러져 갔다. 예를 들면, 헤론은 농촌 순회 진료 도중 피로와 이질로 순직했으며, 여의사 해리스는 장티푸스로 숨을 거두었으며, 샤룩과 소든 등은 과로로 건강이 악화되어 본국에 송환되어 죽음을 맞이했다.

스크랜튼(W. B. Scranton)은 의료선교사 헤론이 도착함에 따라 제중원을 그만두고 본격적인 선교 사업으로 자신이 거쳐하던 집에 시약소와 임시 진료소를 마련하고 환자를 돌보기 시작했다. 고종이 시병원(施病院)이란 명칭을 지어주어 1886년 6월 15일 이 간판을 걸었을 때, 너무 감격하여 “조선에서도 미국의 흑인노예 해방자 링컨과 같은 훌륭한 임금이 계셔서 조선의 모든 노예들을 해방시켰다.”¹⁵⁸⁾라고 찬양했다. 그는 병원 출입문 한쪽 기둥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병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어느 날이든 낮 10시에 빈 병을 가지고와서 미국인 의사를 만나시오.” 이 병원은 양반이나 지배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제중원과는 달리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대상으로 삼았고,¹⁵⁹⁾ 돈 없는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기도 하고 생활대책을 세워 주기까지 하였다. 그런가 하면 구한말의 조선의 사회풍습을 감안하여 병원 내에 여성만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부인과’를 두었다.¹⁶⁰⁾ 후에 스크랜

157) 한영제, 『한국기독교성장 100년』, (서울: 기독교문화사, 1986), p.101.

158) 李成森, 『韓國監理教會史』, (基督教韓國監理教會 總理院 事務局, 1975), p.168.

159) 이덕주, 「스크랜튼의 민중선교와 한국교회의 민족운동」, p.7.

160) 이화학당 구내에 설치된 것으로 “보구녀관”이라 불리었다. 이것은 광혜원도 마찬가지여서 후에 제중원 안에 부녀부가 설치되었다. 백낙준, 『韓國改新敎史』, pp. 125~139. 이덕주, 「上揭書」, p.195.

톤 의료선교사는 동대문 시약소를 차리기도 했다. 이와 같이 스크랜턴 모자는 암흑기에 조선에 선교사로 입국하여 교육과 의료사업에 큰 업적을 남겼다.

선교사들은 정부로부터 선교의 자유가 허락되자 전국 각처에 병원을 설립해서 활발한 의료활동을 전개했다. 하워드, 셔우드, 커틀리 등은 1887년 정동에 우리나라 최초의 부인 전문병원 보구여관(保救女館)을 세웠는데, 이것은 후일 이화여자대학 부속병원으로 발전했다.

개신교 선교사들은 조선인들의 좋은 평판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치료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았고, 의료사업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목적을 선교활동에 두고 있었다. 따라서 백성들은 선교사들이 선교와 관련하여 그들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점차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개신교는 공식적인 포교의 자유가 없었던 상황에서도 왕실에서부터 일반 백성까지 편견을 가지지 않고 이해의 폭을 넓혔던 것이다.¹⁶¹⁾

그 외에도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병원들은 성공회 소속 의사인 와일스(I. Wiles)는 1892년에 서울의 남산 지역인 낙동에 성 마태병원과 1890년 인천병원을 세웠고, 장로교의 휴 브라운(Hugh Brown) 의사와 페니 브라운(Fanny Brown)은 1891~1894년 사이에 부산 일신병원(1893), 젠킨기념병원(1897), 나병원(1910)을 설립했고, 북장로교 의사인 존슨(W. O, Johnson)은 1897년에 대구에서, 남장로교는 군산에 드루(Damer Drew) 의사, 전주에 잉골드(Mattie Ingold)가 부인 진료소를 개설하였다. 이것은 훗날 전주 예수병원이 되었다. 그 외에도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은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1900년 초반까지 선교사들은 평양, 인천, 부산, 원산, 해주, 개성 등지에도 병원을 세웠을 뿐 아니라, 군산, 광주, 목포, 원주, 재령, 선천,

161) 李萬烈, 「韓末 美國系 醫療宣教를 통한 西洋醫學의 受容」, (국사편찬위원회, 1989), pp.206~207.

강계에 이르기까지 의료사업을 벌이고 있었다. 전국적으로 6개의 병원과 16개의 진료소를 두었고, 1910년에는 병원이 15개 진료소가 13개로 발전하였다.¹⁶²⁾

선교사들이 펼치는 의료활동이나 교육 사업으로 인해 개신교에 대한 그릇된 선입관이 많이 해소 되었고, 배타적인 분위기도 상당히 사라지게 된 것만은 사실이다. 계속해서 개신교는 타협하는 자세로 교육, 의료, 문화사업을 통해 간접적인 선교에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다. 기타 사회활동

(1) 금주, 금연, 아편금지

개화기에 있어 금주, 금연, 제사 문제에 대한 그 당시 개신교의 견해는 성서의 교리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개화의 방향에서 볼 때 개화를 저해하는 요소로서 이를 금지하였다. 금주, 금연, 제사 문제를 취급한 종래의 개신교 윤리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초기 선교사들의 청교도적인 영향으로 보아 왔으나, 이러한 주장은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오류에 빠진 억측에 불과하다.¹⁶³⁾ 음주와 금연이 개화의 저해 요소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이를 금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성이 있다. 술과 담배를 금지하는 문제가 성서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성서 자체는 명백히 밝히고 있지는 않다. 술에 관하여는 ‘취하지 말라’고 하는 교훈이 있을 뿐이며, 흡연에 관해서는 성서에 기록이 될 당시 이스라엘에는 담배가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대한 그리스도회보》에서는 ‘병당의 힘패한 일’이란 제목으로, 술

162) 이만열, 『한국기독교와 민족의식』, (지식산업사, 1991), pp.460~461.

163) 이만열 외7인, 『한국기독교와 민족운동』, (서울: 종로서적출판사, 1986), p.97.

취한 병사들이 패싸움한 일을 계기로 군기의 문란과 병사들의 망국적인 행동을 개탄하며, 술로 인한 사회의 물의를 없애기 위해 금주할 것을 간곡히 촉구하였다.¹⁶⁴⁾ 또한 “개화를 크게 해하는 물건은 술인 고로 옳게 생각하는 사람마다 이것을 없이 하기에 힘쓸지니 술은 바른 생애를 수고하여 모은 재물을 빼앗으며 검인과 죄인을 만들고 집을 망하며 협잡과 뇌물과 사정을 성행케하여 ... 국재를 남용하며... 경제상으로도 도덕상으로도 보면 술은 없이할 물건이어늘...”¹⁶⁵⁾ 술을 금하는 것은 음주 그 자체가 죄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건강을 해치고 경제에 손실을 주고 더 나아가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해로운 것으로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근대인의 윤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계주론’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한 그리스도회보는 무조건적으로 술의 악폐 함을 지적하고 금한 것은 아니다.

“한 평양 교인이 말하기를 약에 사용하는 거슨 죄가 아니요. 술로 먹는거슨 한잔이라 할찌라도 죄이니”¹⁶⁶⁾

이와 같이 건강을 위한 사용 목적에 한해서는 허용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구한말 사회는 술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자 사회의식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하였다.

개화에 있어서 흡연에 대한 교회의 견해는 금주의 논리와 마찬가지로 흡연도 개화의 저해 요소로 보아 이를 금지했다. 이러한 논리는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신령한 성전이라 가르쳤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를 불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더럽히는

164) 대한 그리스도인회보, 광무 삼년 오월 삼일 데삼권 데십팔호 <합 일 백십팔>
“병당의 힘패흔 일”

165) 『上揭新聞』, 1896. 6. 30.

166) 『上揭新聞』, 1897. 9. 8.

것으로 생각했다. 이것은 신앙적인 입장에서 금연을 주장한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금전의 낭비요, 보건 위생적으로도 건강을 해치고 두뇌를 나쁘게 하는 것이었기에 악습으로 보았다.¹⁶⁷⁾ 이러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흡연을 금지하였다.

“담배를 과히 먹는 사람은 여러 가지 병이 있나니 힘줄이 약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벌떡벌떡하고 수전증이 나고 안력이 대단히 해롭고 여러 가지 병이 많으니라.”¹⁶⁸⁾

당시 미국의 징병제도 중 담배를 피우는 자는 뽑지 않은 것을 보고 조선 청년들에게도 금연을 권고했다. 또한 아편은 독약보다 더 해로운 것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한 그리스도신문》은 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대저 아편이라는 거슨 사람에게 비샹보다 더 독한 거시라, 이거스로 집안이 패하고 몸이 죽고 나라히 망하는 거시니 사람이 갓가히 할거시 아니로다.”¹⁶⁹⁾

이미 1892년에 조선사회는 아편이 널리 퍼져 그 폐해가 극심했다. 청과 일본 상인에 의해서 들어온 아편은 혼란한 조선사회에 독버섯처럼 인간의 도덕성을 파괴하고 마비시켰다. 이렇게 병들어 가는 시민사회에 선교사들은 아편금지를 위한 생활윤리를 제정하였다.

167) 한국기독교장로회 역사편찬위원회, 『한국기독교100년사』, 1992, p.124.

168) 『그리스도신문』, (1권 9호), 1897. 5. 7.

169) 『그리스도신문』, (5권 14호), 1901. 4. 4.

(2) 미신타파

개화기에 개신교는 제사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제사는 참다운 효가 결여된 채 명분과 虛飾에만 치우쳐 온갖 형식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서 개화의 정신에 역행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선교활동을 통하여 미신을 打破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볼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마귀를 믿고 성황당에 제사하는 것이 모두 어리석은지라 성황당 같은 것은 비록 헛지라도 아무 일이 없다 하였더니 ...” 170)

당시의 선교사들은 혼인과 장례의식에 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婚姻制度의 모순은 早婚이고, 본인의 意思와 상관없이 결혼이 이루어지는 風習을 시정하기 위해 西洋의 결혼 풍습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서양은 남녀가 서로 만나서 그 마음이 어떠한 것도 알고 피차 허락하여 맺은 후에 부모에 알게 하거니와 동양은 그렇지 아니하여 그 부모가 혼인을 주장하는데 중매자를 가운데 세워 그 소개로 혼인을 맺나니라.” 171)

이러한 결혼제도는 男女平等에 근거하였다고 볼 수 있고, 결혼 연령을 높여 결혼과 더불어 가정을 책임지고 가족을 부양할 의무를 強調한 것은 자립정신을 요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장례식에 대하여 고쳐야 할 많은 부분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사람이 부모상을 당하여 애통할 제 풀어헤치고 얼굴을 씻지 아니하며 좋은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옛 사람의 유전을 지켜 내려오는 것을 보면 이

170) 『독립신문』, (3권 179호), 1898. 11. 2.

171) 『그리스도신문』, (3권 29호), 1899. 7. 19.

세상의 밝은 이치와 대단히 반대가 되는 것...” 172)

“머리 풀고 크게 우는 것과 뱃속 입고 삼년상 입는 것과 장사 지낼 때에 음식을 많이 차려 놓고 배불리 먹는 것이 두말할 것 없이 허례허식의 풍속...” 173)

축첩(蓄妾)의 금지도 선교사들의 눈에 비친 축첩의 보편적인 현상은 그리스도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회적으로 고질화 되어 있는 병폐였다. 축첩은 구호로만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 첩을 둔 사람이나 첩으로 들어간 여자는 교회에 신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감리교에서는 1895년에 소실이 있는 자는 교인으로서의 자격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결의한바 있다. 그러나 술, 담배, 아편 등을 금하였든지, 혼인이나 장례의식을 간소하게 개선하려고 노력하였든지, 축첩(蓄妾)을 금한 일 등은 조선인의 입장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고찰한 바와 같이 선교사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선교활동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사회의 고질적 구습(舊習)이나 악습(惡習)이라고 생각한 각종 병폐를 금지하거나 개선하려고 노력하였던 점을 역력히 볼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실들은 선교사들이 조선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서양의 사고방식이나 생활양식을 무조건 주입하려고 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이 개신교 정신에 바탕을 두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문화가 조선 문화보다 더 우수하다는 문화적 우월성에서 오는 의식이 여기에 작용하였으리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172) 『그리스도신문』, (5권 32호), 1901. 8. 8.

173) 『조선 크리스도인회보』, (28호), 1897. 8. 12.

V. 가톨릭과 개신교의 교육·의료사업 및 사회활동 비교

가톨릭과 개신교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도 때로는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조선선교를 주도했던 프랑스와 미국은 西歐의 구대륙과 신대륙의 종교문화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나라들이다.¹⁷⁴⁾ 따라서 구한말 조선에 입국한 이들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통해 교세가 확장되기를 바랐고, 그러한 의도하에 진행된 교육·의료사업·사회활동 등이 봉건체제에 살고 있던 조선 백성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본장에서는 선교사들이 펼쳤던 여러 활동들을 가톨릭과 개신교 선교사를 중심으로 차이점을 비교하고자 한다.

첫째, 가톨릭 선교사들은 직접 선교활동을 전개하며 전국 각지에 본당을 세우고 적극적인 교세확장을 통한 선교활동에 들어갔다. 개신교와 같은 사회 간접 활동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고, 오히려 개신교 선교사들의 활동이 그릇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개신교 선교사들의 우회적인 방법이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적극적이고 힘 있는 가톨릭으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다.¹⁷⁵⁾ 그러나 시대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선교정책은 선교사들의 신자 증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세 증가 면에서 개신교에 뒤쳐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부족한 재정 때문에 극빈 환자들에게 무료 진료와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어 의료기관은 더 이상 발전

174) 신광철, 「초기 한국 가톨릭과 개신교의 상호관계 및 이해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6), p.21.

175) 「서울교구연보 I」, 1898년 보고서, p.229.

하지 못하고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개신교 선교사들은 본국 선교부에 인적·재정적 지원을 받아 지방과 시내 여러 곳에 먼저 병원과 진료소를 세우고 교육 사업을 시작하면서 인원과 재정을 증가시켜 나갔다.¹⁷⁶⁾ 백성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난한 빈민이 사는 곳으로 병원을 옮겨 무료로 치료해 주면서 점차 백성들이 개신교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켜 나갔다. 이런 신중한 행동과 간접적인 선교는 선교사들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둘째, 가톨릭계 학교가 개신교에 비해 낙후된 원인은 대부분 빈곤자를 위한 무료 교육이었고, 재정적인 문제와 교사 수의 부족이었다. 1895년에는 학교당 평균 학생 수가 10명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정규학교라기보다는 소규모 마을서당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또한 가톨릭 선교사들은 불우한 사람들에게 연민에 정을 갖고 무엇인가를 베푸는 자선에는 익숙해 있으나, 교육을 통한 지도자 양성에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다. 가톨릭계 학교는 대부분 선교사들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다. 반면에 개신교계 학교는 미국 선교 본부로부터 많은 원조와 학생들로부터 받은 공납금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덜고 정규 고등교육기관으로 발전하여 많은 인재를 양성하였다. 이와 같이 개신교는 조선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톨릭의 역사적 경험을 자료 삼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될 때까지 직접적인 선교활동을 유보하였으며, 교육선교나 의료선교와 같은 간접적인 선교 활동을 우선적으로 펼쳤다.

셋째, 가톨릭은 선교사들이 정치적 사건에 많이 관계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1877년 블랑(J. Blanc) 주교가 『한국교회지도서』¹⁷⁷⁾를 통해 선교

176)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서울: 연세대출판부, 1973), p.168.

177) 『한국교회지도서』는 1887년 9월 21일 블랑주교를 통해 발표된 일종의 교회 법전으로 1911년 대구 교구가 탄생하기까지 한국교회 전체를 다스리는 규칙이 되었다. 제1장은 성사, 제2장은 선교사와 신자 그리고 회장, 제3장은 공소와 신심회 등으로 구성

사들이 신자들의 소송에 간여하지 말 것, 주교의 허락 없이 관청에 출입하거나 관리들과 담판 짓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함과 동시에 신자들 앞에서 정부를 헐뜯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지시를 내렸다.¹⁷⁸⁾ 또한 경향신문은 정교분리원칙에 입각한 정치 불간섭주의를 공식적인 편집 방침으로 삼고 “정부는 세속의 일, 교회는 후세의 일을 상관하여야 하고, 나라는 각 사람의 신앙을 상관치 말 것이며, 신자들이 나라의 법을 거스른다거나 세속 일에 상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¹⁷⁹⁾라고 표명했다.

개신교 선교사는 초기에 국권회복과 민족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나, 후기에 들어서면서 선교에 저해가 되는 행위는 근절하려고 노력했다. 선교사들은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입교하는 많은 조선인들을 개인주의적 신앙을 강조함으로써 민족적 관심을 덮으려는 ‘우민화 정책’을 추진했다. 가톨릭이나 개신교 모두 정치 중립주의에 입각해서 가급적 정치성이나 민족운동을 배제하고자 했다. 그러면서 모든 활동에서 교세 확장과 종교활동을 강조하였다.

넷째, 가톨릭 선교사들은 신도들 속에 섞여 살았으며, 학교들도 가급적 성당을 중심으로 세워졌다. 반면에 개신교 선교사들은 자기들이 안락하고 사치스럽게 사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개신교를 믿으면 자기들처럼 잘 살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었다. 또한 출세와 민족운동을 전개하고자 개신교를 선택하는 신자 수도 증가했다.

다섯째, 가톨릭 선교사들에게 내려진 포교성성의 지침은 선교지의 문화를 존중하고 현지인 성직자를 양성하여 자립교회를 이루게 하고, 선교지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며 가톨릭교회가 그 나라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

되어 있다.

178) 최석우, 『한국 천주교회사의 탐구』,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p.477.

179) 최기영, 「개화기 경향신문에 관한 연구」, (한국교회사 논문집 二), pp.810~811.

현지화정책'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따라서 개신교의 '네비우스 정책'은 신자들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교회재정을 유지하고, 현지인들에 의하여 교회의 설립 및 운영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은 가톨릭의 '현지화정책'과 공통점을 가진다.

여섯째, 가톨릭이 정교분리를 엄격히 하고자 했던 것은 교회를 보호하고 교세를 확장하는 일이었다. '정교분리정책'은 일제의 조선 지배를 정당화하는 구실을 하게하였다. 동학도들을 폭도라고 규정하는가 하면 일본이 보낸 원군을 이용하여 동학도들을 퇴치하는 일을 했다. 반면에 개신교는 동학운동, 만민공동회운동, 독립협회 등 모든 민족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으나, 점차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자신들의 교육·의료사업이 정치활동과는 무관함을 표시하기 위해 1901년 이후부터는 개인 자격으로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으나, 교회를 정치적인 장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정교분리정책'을 표방했다.

일곱째, 한·불조약(1886) 이후부터 1894년까지 가톨릭에서는 교세 확장의 시기였던 반면에 개신교는 선교의 발판을 닦는 시기로 의료와 교육활동에만 선교사들이 전념하였다. 이 기간 중에 가톨릭은 연평균 7.9% 성장을 했으나, 개신교의 신자는 457명에 불과했다

여덟째, 가톨릭 선교사들은 불법적으로 조선에 입국하여 말씀을 통해 신자들에게 교리를 깨우쳐 주었으나, 개신교 선교사들은 조선이 정식으로 개국한 후 조심스럽게 입국하여¹⁸⁰⁾성서를 번역하여 복음을 전파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톨릭은 직접적인 선교정책, 현지화정책, 정교분리정책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이런 정책들은 조선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일방적인 정책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왔다. 개신교는 간접적인

180) 한국가톨릭대사전편찬위원회편, 『한국 가톨릭대사전 부록』,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88). p.322.

선교정책, 선교지 분할정책, 네비우스 정책을 통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선교사들은 간접적인 선교정책을 통해서 교육·의료활동·사회봉사 등 폭넓은 의미의 선교활동을 전개했다.

개신교는 초기부터 가톨릭과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였으나, 민중들은 가톨릭과 개신교를 ‘한 통속의 서양종교’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조선사회에서 가톨릭과 개신교는 사실상 완전히 ‘다른’ 종교로 포교되었다. 조선사회에서 가톨릭과 개신교는 두 주류의 차별성의 이미지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의 두 주류가 차별성의 이미지만을 강조했던 것은 아니었다. 가톨릭과 개신교는 자신들의 위상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거나, 전통적인 고유 종교로부터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는 공동대응을 취함으로써 유사성의 이미지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가톨릭과 개신교의 관계는 구한말에 와서 海西教案¹⁸¹⁾에서의 충돌 등 보다 구체적인 충돌 양상을 보였다. 그리하여 양측은 護敎論의 문서 내지는 상호 비판문서를 간행하여 문서논쟁을 벌임으로써, 부정적인 성격의 상호이해가 가속화되기도 하였다.

조선 가톨릭과 개신교는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서 여론매체를 동원하여 이전 시기의 역사적 관계와 문서논쟁을 통해서 형성된 상호이해의 내용을 ‘여론화’하기도 하였다.

181) 1900년부터 2~3년간 황해도 일대에서 가톨릭교도와 일반인 및 개신교인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가톨릭 측의 성당을 건축하면서 헌금강요, 벌목, 노동력 착취, 구타 등을 행하고 건물 및 기물파괴, 개입하는 관리들을 구타한 일, 절도행각, 성당 안에 형구를 갖춰 놓고 사사로이 지역 주민들을 문초하고 특히 이 지역에 함께 선교활동하던 개신교인들을 박대했던 일 등이 빈번하게 일어남. 이 지역에 신부였던 프랑스인 윌헬름은 대표적인 양대인 자세를 지닌 선교사로 가톨릭을 내세워 민중을 탄압하고 월권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칫 가톨릭과 개신교간의 대립과 나아가 양측 선교국인 프랑스와 미국 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였다. 중앙정부는 사해사 이응익을 파송하여 사태를 수습했다.

Ⅵ. 결 론

한국교육사에서 개화기(開化期)와 구한말 시대는 여러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왔다. 이 시기는 우리 민족이 전통사회에서 탈피하여 근대화를 추진한 시기로 자연히 교육사의 측면에서도 구 교육에서 벗어나 신교육을 추진하던 과도기였다. 이와 같은 특수한 시대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본 논문은 가톨릭과 개신교라는 외래종교의 선교사들이 전개한 교육이 한민족의 민족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친 부분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화기에 선교사가 입국하기 시작하는 1885년을 기점으로 하여 일제에 의하여 국권이 강탈당한 1910년까지를 개화기로 규정하였다. 이 시기는 한민족이 오래 동안 유지해 오던 전통적인 사회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시기였고, 따라서 조선에 입국한 선교사들도 순수한 종교만을 전파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선교사들은 조선 백성들이 처해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족의식을 길러 주는데 노력했다. 그들은 민족 문제와 신앙을 결합한 선교활동을 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난 것이 근대식 학교의 설립, 남녀평등과 계급차별 철폐를 위한 노력, 서양식 의료사업의 전개 등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교의 정신에 바탕을 둔 선교활동은 조선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다. 그런데 조선에서 그리스도교를 수용하게 되는 동기는 일반 서민층과 지배층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민층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것은 부수적인 목적이 있었다. 현실 생활에서 지배층으로부터 억압과 착취를 피하고, 天災地變이나 질병, 전쟁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리스도교를 수용한 주요 목적이었고, 반면에 지배층 또는 開化派 인사는 서양세력의 도움을 받아 나라를 근대화 시키

고, 富國強兵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교를 수용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였다.

선교사들은 조선사회에 다음과 같은 교육 사업들을 전개하였다.

첫째, 조선에 서양식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新學問을 수입하는 개척자의 역할을 하였다. 교육을 통하여 서양의 문물과 사고방식을 조선에 소개함으로써 서양인을 오랑캐로 보았던 자아존대사상(自我尊大思想)을 버리고 우리의 진정한 위치와 모습을 깨닫게 해주었다.

둘째, 양반(兩班)이나 서민(庶民)의 차이를 차별 없이 교육시킴으로써 계급사상을 깨뜨리고, 교육의 기회균등의 원칙을 세웠다. 그리고 여성 교육을 실시하여 男女平等의 사상을 실천했다. 또한 가난한 학생에게 일을 주어 스스로 학비를 조달케 함으로써 근로의 정신과 自主自立의 정신을 가르쳤고, 실업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선교사들이 교육활동을 통해 신분이나 계급, 남·여를 구분하지 않고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 땅에 보급하려는 노력의 결과였다.

셋째, 정규수업 외에 運動競技, 演說會, 討論會 등의 전인교육을 실천하여 전통적인 교육사상을 깨뜨리고 교육의 목적을 사회봉사에 두었다.

넷째, 선교사들은 조선이 우수하고 독창적인 한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한자를 사용하면서 오히려 우리글을 천시하는 습관을 비판하였다. 그들은 조선 백성에게 자기 나라 글의 중요성을 깨우쳐주기 위해 新聞, 雜紙 등을 순 국문으로 발행했으며, 성경(聖經)을 국문으로 번역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조선 백성에게 주체성을 깨우쳐 준 활동이었다.

선교사들이 조선에서 전개한 의료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회개혁에 공헌하였다. 나아가 근대의 과학적 의학지식을 보급하였다.

첫째, 전근대적인 미신의 폐습과 무의(巫醫)의 폐해를 근절하였다. 즉, “마귀가 병을 일으킨다는 관념 때문에 발생하는 불행한 결과로부터 이 민

죽을 구출한 것”¹⁸²⁾이 선교사들이 전개한 의료선교는 조선 백성들을 구제하는데 크게 공헌했다.

둘째, 의료선교는 위로는 고종으로부터 아래로는 천한 하류층의 사람들을 함께 시료(施療)함으로써 계층 간의 소외 의식을 제거하는데 큰 작용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의료활동을 통하여 선교사들의 人間愛를 조선 백성에게 보여주었다.

셋째, 선교사들의 의료사업을 통하여 조선 백성들은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난 것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다.

넷째, 선교사들이 음주, 흡연, 아편 등을 금한 것은 자신들이 청교도적인 신앙과 양심의 결단에 근거한 것으로 조선 백성의 개화 진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¹⁸³⁾ 뿐만 아니라 명분에 빠진 형식적인 제사를 배격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참 효의 실천을 강조했다.

위와 같이 그리스도교는 신교육의 보급, 남·여 평등과 여권신장, 계급타파, 봉건적 구습 타파, 실업과 근로정신의 고취, 의료사업, 학교교육 등 조선사회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비록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이 민족정신 고취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나, 가톨릭 선교사와 개신교 선교사들이 실시한 선교활동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선교 방법에서 가톨릭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유일성, 천지창조, 영혼의 신령성과 불멸성”으로 직접 선교활동을 전개했으나, 개신교 선교사들은 먼저 학교와 병원을 세워 간접 선교활동을 실시했다.

정리하자면, 개신교 선교사들의 교육활동과 의료활동은 넓은 의미의 선교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은 당시 조선의 시대적 상

182) 『연세대학교100년사 I』, 1985, p.34.

183) 李萬烈, 『韓末改新敎人の 民族意識動態化過程』, 『民族主義와 基督教』, (서울: 民衆史, 1981), p.50.

황과 맞물려 민족교육의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종교와 함께 들여온 서양문화는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전통문화가 서양문화에 의하여 잠식당하는 단서를 제공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선교사들의 교육, 의료, 복지활동에 대해 서민층은 대체로 환영했으나, 일부 지식층은 그들 활동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參考文獻

1. 基本資料

1. 『고종실록 제19권』
2. 『그리스도신문』, (1권 9호), 1897. 5. 7.
3. 基督教朝鮮監理教會 100周年記念事業委員會, 『朝鮮監理教會年會錄(1)』, 1984.
4. 「論耶蘇教」, 『漢城旬報 24호』
5. 『독립신문 3권 179호』, 1898. 11. 2.
6. 류대영, 「기독교 선교사에 대한 고종의 태도와 정책(1882-1905)」,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13호』, 2000. 9.
7. 워털 문서, 『The Korea Daily News』, 1904. 7. 28.
8. 『워털주교일기』, 1895. 10. 31.
9. 『서울교구연보 (I)』, 1898.
10. 『서울교구연보』, 1907.
11. 『승정원일기』, 고종 23년 5월 13일
12. 신호철, 『선교문화신문 26호』, 2004.11.07.
13. 『Allen Diary』, May 9, 1886
14. 『연세대학교100년사 (I)』, 1985.
15. 『조선 크리스도인회보 41호』, 1897. 11. 10.
16. 한국교회사연구소, 『교회와 역사 (98호)』, 1983. 8.
17. 『한국기독교 100년사』, 한국기독교장로회 역사편찬위원회, 1992.
18. 『한국장로신문 980호』, 2004. 12. 18.

19. 韓國天主教中央協議會, 『天主教年監』, 1960.

2. 著書

1. 강만길, 『문호개방을 전후한 역사적 상황과 한미수교』, 기독교사상, 1982.
2. 강준렬, 『교회와 사회복지』, 한들출판사, 2005.
3. 基督教朝鮮監理教會 100周年記念事業委員會, 『朝鮮監理教會年會錄1』, 1984.
4. 基督教思想 編輯部, 『韓國歷史와 基督教』, 大韓基督教書會, 1983.
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20』, 국사편찬위원회, 1984.
6. 김득룡, 『한국기독교 교육운동사, 한국기독교 성장100년』, 기독교문사, 1986.
7. 김인수, 『간주린 한국교회 역사』, 한국장로교회출판사, 1997.
8. 동덕모, 『朝鮮朝의 國際關係』, 박영사, 1990.
9. 류대영, 『기독교 선교사에 대한 고종의 태도와 정책(1882~1905)』, 한국기독교와 역사(제13호), 2000.
10. 文一平, 『한미 50년사』, 朝光社, 1945.
11. 閔康培, 『알렌의 宣敎와 近代韓美外交』, 연세대학교출판부, 1991.
12.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대한기독교출판사, 1992.
13. 민경배, 『한국민족교회 형성사론』, 연세대학교출판부, 1974.
14. 閔丙秀外 2人, 『開化期 憂國文學- 韓國文學과 民族意識(Ⅱ)』, 新丘文化史, 1974.
15. 白樂濬, 『韓國改新敎史』, 연세대학교출판부, 1973.
16. 샤를르 달레, 安應烈, 崔奭祐 譯註, 『韓國天主教敎會史 上』, 성분도출판사, 1979.
17.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 100년사』, 분도인쇄소, 1991.
18. 손규태, 『한국민족교회사 서술의 문제 제59집』, 신학사상사, 1987.
 19. 孫仁銖, 『韓國近代教育의 理念과 實態』, 新星印刷社, 1980
 20. 송길섭, 『일제하 감리교회 삼대성좌』, 성광문화사, 1972.
 21. 송길섭, 『한국신학사상사』,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22. 안중근 저, 이은상 역편, 『안중근의사 자서전』, 안중근 의사 숭모회, 1979.
 23. 유동식, 『한국신학의 광맥』, 전망사, 1986
 24. 柳洪烈, 『韓國天主敎會史』, 가톨릭 出版社, 1962.
 25. 윤병석, 『근대 한국 민족운동의 사조』, 집문당, 1996.
 26. 이관구, 「월남 선생의 정치. 구국활동」, 『나라사랑 9집』, 외솔회, 1972.
 27. 李光麟, 『韓國開化史研究』, 一潮閣, 1969.
 28. 李奎元, 『開化期 韓國基督教 民族教育의 研究』, 國學資料院, 1997.
 29. 李基白, 『韓國史新論』, 일조각, 1999.
 30. 이만열, 『한말 기독교와 민족운동』, 평민사, 1980.
 31. 이만열, 『한국기독교와 민족의식』, 지식산업사, 1991.
 32. 李萬烈, 「韓末改新敎人의 民族意識動態化過程」, 『民族主義와 基督教』, 民衆史, 1981.
 33. 李萬烈, 『韓末 美國系 醫療宣敎를 통한 西洋醫學의 受容』, 國史편찬위원회, 1989.
 34. 李成森, 『韓國監理敎會史』, 基督教韓國監理敎會 總理院 事務局, 1975.
 35. 이원순, 「조선말기 사회의 교안연구」, 『韓國天主敎會의 歷史』, 한국교회연구사연구소, 1986.
 36. 李炫熙, 『韓國開化100年史』, 乙酉文化史, 1976.
 37. 全澤鳧, 『韓國敎會發展史』,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38. 정옥자, 『조선후기 역사의 이해』, 일지사, 1993.

39. 정중휴 옮김, J유평르트 지음, 『가톨릭과 개신교』, 바오로딸, 2006.
40. 鄭在貞 외2人, 『서울 근현대 역사기행』, 도서출판 혜안, 1998.
41. 제2차 바티칸 公議會, 『그리스도교적 教育에 관한 宣言, 第18項』, 韓國天主教中央協議會, 1967.
42. 趙芝勳, 「開化思想의 모티브와 그 本質」, 『韓國思想講座』, 韓國思想研究所, 1963.
43. 車京守, 『開化期 敎員의 社會的 役割과 敎師像』, 韓國敎育研究所, 1980.
44. Martha Huntley 저, 車鍾淳 역, 『韓國 改新敎初期의 宣敎와 敎會成長』, 목양사, 1985.
45. 천주교 명동교회편, 『서울교구년보 I』 (1878-1903),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46. 崔南善, 『朝鮮歷史』, 東明社, 1946.
47. 최수일, 『간추린 기독교 선교 역사』,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48. 최석우, 『韓國天主敎會의 歷史』,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49. 최석우, 『한국 천주교회사의 탐구』,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50. 최양업 저, 정석진 역, 『너는 주를 놓고 나는 세우고』, 바오로딸, 1985.
51. 포교 성 베네딕토 수녀회, 『원산수녀원사』, 왜관분도인쇄소, 1987.
52. 한국기독교사연구회 I 편, 『한국기독교역사』, 1991.
53. 한국가톨릭대사전편찬위원회편, 『한국가톨릭대사전 부록』, 한국교회사연구소, 1988.
54. 한국사목연구소, 『國史』,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1.
55.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역사』, 역사비평사, 1992.
56. 韓國學文獻研究所編, 『박정양전집 6권』, 亞細亞文化社, 1984.
57. 한영제, 『한국기독교성장 100년』, 기독교문화사, 1986.
58. 韓哲昊, 『親美開化派研究』, 國學資料院, 1998.
59. 홍순창, 『한말의 민족사상』, 탐구당, 1975.

3. 論文

1. 김구정, 「3.1운동과 대구 유스티노 신학생」, 『교회와 역사』, 제122호, 1985.
2. 김명한, 「구한말 조선왕실의 개신교에 대한 시각 연구 논문」,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3. 김진섭, 「초기 기독교인의 주체적 복음수용과 신앙형성」, 감리교신학대 신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4. 盧吉明, 「舊韓末 프랑스 선교사의 社會・文化活動」 『교회사연구 제5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87, pp.121.
5. 배효식, 「구한말 가톨릭과 개신교 선교사들의 선교정책 비교연구」, 수원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6. 白宸旭, 「19세기 조선사회의 사상적 동향과 천주교」,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7. 宋寅元, 「구한말 선교사의 私學經營」,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5.
8. 신광철, 「초기 한국 가톨릭과 개신교의 상호관계 및 이해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6.
9. 심홍보, 「한국 천주교 사회복지사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10. 안신영, 「구한말 고종의 개신교 인식과 정책연구」, 협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11. 이덕주, 「스크랜튼의 민중선교와 한국교회의 민족운동」, 한국기독교사연구 제23호, 1988.
12. 이상훈, 「舊韓末 美 改新敎 宣敎師들의 對韓 인식」, 제27권 제2호 통권95호,

- 정신문화연구원, 2004.
13. 이종성, 「한국재래 종교의 기복사상이 교회에 끼친 영향」,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14. 李銀美, 「天主敎의 전래와 敎育史業」,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15. 예종복, 「개신교의 한국 정착화 과정에 대한 연구」,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16. 全点禮, 「天主敎의 傳來가 近代敎育에 미친 影響」,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17. 지정환, 「교회 간담회 <뫼텔주교의 역사적 배경>」, 『교회와 역사 제137호』, 1986. 11.
 18. 조광, 「朝鮮 後期 天主敎史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4.
 19. 趙珖, 「안중근의 조국 계몽운동과 독립전쟁」, 『교회사연구 제9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4.
 19. 최명옥, 「朝鮮後期 天主敎의 收容과 그 影響」,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20. 한우근, 「개항당시의 위기의식과 개국사상」, 『한국사논문선집』 (VI), 일조각, 1982.

4. 洋書

1. G. W. Knox, Affairs in Corea, The Foreign Missionary for January, 1884.
2. H. B. Hulbert, 『The passing of Korea』, London & New York William Heinemann 1906 : Seoul : reprinted by Yonsei University Press, 1969.
3. I. B. Bishop, 『Korea and Her Neighbours』, Seoul: Reprinted by Yonsei

University Press, 1969.

4. J. B. Busteed, 『The Korean Doctor and His Methods』 , Korean Repository, vol, 1895.
5. J. Metzler(ed), 『Sacrae Congregationis de Propaganda Fide Memoria Rerum. 1622-1972』 , Vol. III/2, Germany: Herder, 1976.
6. R. E. Shearer. 『Wildfire: Church Growth in Korea』 , Michigan: W.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6.

